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순원 소설 연구
- 유랑의식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방 금 단

황순원 소설 연구
- 유랑의식을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방 금 단

인 준 서

방금단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고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에 내재한 핵심적 형상화의 원리로 ‘유랑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문학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역사와 현실에서 느끼는 작가의 ‘상실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지향하는 것과 사라진 것’ ‘잃어버린 것과 찾고 싶은 것’, ‘정착하고 싶은 것과 부유하는 것’ 등 대립되는 가치의 경계에서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작가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유랑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랑의식’을 표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의 욕망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실현 양상이 다르게 구현된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개인의 내면의식으로 인해 ‘유랑의식’이 형성되고 또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정착할 수 없이 흔들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유랑의식’이 드러난다.

일제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식민지 지식인은 자기부정과 정체성 형성에 장애를 갖게 된다. 고국이 있지만, 그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과 식민지인으로서 작가는 자신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유랑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랑의식’을 통해 황순원이 선택한 것은 일제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지향이었다.

해방기에는 월남을 체험한 작가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그의 삶의 변동에 따라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상징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내려온다. 황순원은 북한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변화된 남한 사회에서 뿌리내리기를 비교적 수월히 해 낸 월남민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회에 속한 이상 그 사회에 ‘동화’되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차별’받고 있음이 ‘유랑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황순원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월남체험과는 또다른 ‘유랑의식’을 갖게 된다. 월남한 이후 창작된 소설에서는 작중 인물이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서도 어떻게든 뿌리내려 살려는 것을 보이고 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드러나는 작중 인물의 삶은 그냥 부초처럼 흔들리며 사는 인물들이 주조를 이룬다. 이 시기의 소설의 작중인물들의 문제의식은 ‘동화’와 ‘차별’이 아니라, ‘동화’와 ‘과멸’의 사이에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의 결론은 행복으로 상징화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당대의 현실인식은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원적인 상실감의 배후에는 인간의 삶을 해체한 원인으로 역사적으로 과행을 거듭한 시대적 현실이 있다. 이러한 점은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의 행동을 추적하는 서사적 진행의 빈번함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갈등과 방황을 주인공의 배회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후기의 소설에서도 부조리한 일상에서의 권태가 배회의 동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황순원 소설에 등장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들은 부조리한 일상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수용하고 그것에서 삶의 신념이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순원의 문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기준으로 전통과 근대가 역사적 대립의 양상으로 치환되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대립의 양상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품의 주인공들이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답을 찾기 위한 ‘유랑의식’이 대두된다. 문명의 전환기에서 자기분열을 겪는 근대인은 자신의 주관적 내면세계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창작시기가 일제시대가 아니지만,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식민지시기가 포함되는 것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황순원 소설에서 전통을 지향하는 의식은 사라져버린 추억의 세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의 한 형태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현대적 삶의 공간 속에서 옛 전통적 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황순원 문학에서 타락한 부성성의 세계는 모성성의 세계와 대립되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부성성의 세계를 지향한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타락한 현실의 특성은 주로 부성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의 일면과 함께 삶을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검출되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 유대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가족의 세습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고, 월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가족에 대한 유다른 애착심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나며, 아이들의 이야기가 작가의 창작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성은 황순원 문학세계의 근간이며 그가 추구하는 작가정신임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의 작품에는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성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구적인 모성성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 건강한 부성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역으로 긍정적인 모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작품의 작중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의 동력이 되어 나타난다. 황순원의 소설은 남성주인공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병약함에서 오는 허무의식과 죽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성성에서 찾는다. 황순원의 소설은 여러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불구적인 모성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성성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세계, 혹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세계를 추구한다. 또한 모성성을 여성에게서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의 모성성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소설 속의 남성주인공들이 정신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지리적 고향에서 모성성을 가진 여성으로 변화한다. 그의 장편소설에서 남성은 항상 모성성을 지닌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의 경계에서 유랑하다 결국은 이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착생활에 실패하게 된다. 황순원 소설에서 남성주인공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헤매면서도 어떤 여성에게도 정착할 수 없는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고향과도 같은 모성성을 지닌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에게 이미 훼손된 고향을 의미하기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의 남한에서의 생활이 그가 떠나온 고향에서의 유년시절과 같이 자족적인 삶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선택할 수 없다.

황순원의 작품세계를 통해 발현되는 ‘유랑의식’의 의미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가 살

아온 역사적, 사회적 세계의 등가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순원 소설에는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터전을 떠나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에 대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의 원인을 민족의 삶의 토대 위에서 포착하였고, 당대의 보편적인 상황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전체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사 검토	1
2. 문제제기 및 연구 방법	13
II. 황순원의 삶과 문학	22
1. 삶과 유랑의식의 형성	22
2. 엄격한 문학정신과 세계	30
III. 상실감과 유랑의식의 형상화	40
1. 근원적인 상실감과 정체성 찾기	41
1) 부조리한 일상과 탈출의지	41
2) 문화적 혼돈과 전통의식	53
2. 사회적인 상실감과 정주(定住)의 욕망	65
1) 부정적인 현실과 정착의 의지	65
2) 부성성의 세계와 떠돌이 삶	79
3. 육친적인 상실감과 모성의 지향	93
1) 결핍된 모성성의 추구하고 상실감	94
2) 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의 의미	104
IV.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는 유랑의식의 의의	119
V. 결 론	127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사 검토

황순원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력과 문학세계를 갖고 있는 작가이다. 작가는 그가 살아온 한국문단의 문학적 풍토와는 구별되는 문학세계를 갖고 있다. 황순원은 그가 작품 창작을 시작한 초기의 문단 경향인 계급주의 문학과는 구별되는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남한문단의 특징인 순수문학과는 구별되는 현실의식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의 남한의 이데올로기의 담론인 반공주의에도 동조하지 않는 중간과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일관되게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황순원의 문학이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주목받고 읽혀온 것은, 그의 소설에 표출되고 있는 독창적인 작가의식과 함께 작품에서 발휘되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것이다.

그동안 황순원의 문학연구는 순수문학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황순원 문장이 지닌 서정성과 감각성, 지적 절제의 태도, 문장에 대한 세심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초월하려는 예술 지상주의자의 문학이 아니다. 황순원은 그가 경험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리얼리즘의 소설처럼 시대의 불합리한 사회의 조건들과 부딪치고 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해체되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현실의식이 들어있다. 황순원 소설연구에 있어서, 그의 소설이 시대적 상황을 은폐하고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는 무관한 듯이 개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문학으로 분류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문학이 역사적, 사회적 현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즉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작가의 현실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순수문학의 논의에 대한 대립적인 것들로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에 주목하

는 연구들도 있다.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역사의식이나 사회, 현실의식을 다루고 있는 논의들은 초기의 단편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이와 같은 논의들은, 황순원의 문학이 지닌 부분적인 국면들간의 상호관계를 살핌으로써 그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의 전체적인 성격을 밝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일정한 제약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역사의식이나 사회, 현실의식이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음을 다루고 있는 논의들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논의들에 광범위하게 다가가기로 한다.

황순원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소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황순원 소설은 작품과 작가의 삶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한다. 한 인간의 삶이 그가 살아온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작가의 삶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의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작가의식과의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현실과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황순원은 식민지 시기, 월남,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유랑의 삶을 체험하는 한편 이 땅위의 많은 사람들이 유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는 그가 체험한 유랑적인 삶이 그의 작품의 내재적 원리로서 형상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황순원 작품의 초기 소설에서 후기의 장편소설에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순원의 작품세계를 ‘유랑의식’의 관점에서 연구하면 그가 경험한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작가의 현실의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에 내재한 핵심적 형상화의 원리로 ‘유랑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문학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황순원 소설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의 작품에서 역사, 정치, 현실의식은 해방기를 기점으로 하여 뚜렷하게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기에는 해방기와 같은 작가의식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살아온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현실의식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현실의식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유랑의식’의 관점에서 황순원 소설을 연구하면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의식을 소설에서 은폐시키려는 작가의 의식적인 창작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즉 황순원 소설은 현실세계와 무관한 작중인물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소설에서 작중인물이 현실에 정착할 수 없는 원인이 부정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황순원 소설연구에 있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그리고 월남과 한국전쟁은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한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이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식민지 경험은 분단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월남민이 발생하게 되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분단은 고착화되고 심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현재 한국의 분단된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황순원 소설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을 ‘유랑의식’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격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유랑적인 삶을 경험하지 않았던 한국의 다른 작가와는 구별된 작가의식을 다루는 연구가 될 것이다.

소설가 “황순원을 말한다”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 소설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¹⁾라는 언급은, 평생을 창작활동에 전념한 작가의 성실성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의 규모로 인해 그의 소설 연구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동시에 소설세계의 풍부함을 지적한 말이다. 황순원은 한국문학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몇몇 작가 중의 하나로 17세부터 시작한 창작활동을 71세가 되도록 지속하였다. 황순원은 단편 105편과 중편 1편, 장편 7편 등 총 113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또한 2권의 시집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단편소설로 문학의 방향을 전환하여 장편으로까지 그 문학적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도 간간히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황순원의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작품론과 작가론과 단편 위주²⁾였으며, 본

1)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의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148면.

2) 이석훈, 『문학풍토기-평양편』, 『인문평론』, 1940.8.

남궁만, 『황순원 저 『황순원 단편집』을 읽고』, 『매일신보』, 1941.3.

조연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황순원씨의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문예』, 1950.4.

격적인 논의는 1960년대 장편 소설 『별과 같이 살다』와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발표한 이후, 이어령에 의해 “험난한 시대와 무관하게 내부 세계만을 지닌 주인공을 형상화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상실”했다는 신랄한 비판³⁾이 제기되고, 비평가 백철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도피주의’와 ‘트리비얼리즘’에 빠져 있으며 4·19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통과한 작가적 의식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통해, 황순원과 일대 논쟁⁴⁾ 등으로 문단의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작가로서는 최초로 소설 전집이 편찬되었다. 1964년에는 『황순원 전집』(창우사)이 발간되었고, 1973에는 『황순원문학전집』(삼중당)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 장편소설 『움직이는 城』이 간행되면서 황순원의 논의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황순원의 소설에 대한 논의는 주제의식에서부터 미학적 의미에까지 다각도로 진행⁵⁾되었다. 1980년대에는 『황순원전집』(문학과지성사, 1980~1985)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작가 황순원의 계속된 개작의 완성판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 대해 학문적 연구⁶⁾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전집이 출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논자들에 의해 종합적인 작가연구가 시도되었는데 허명숙, 장현숙, 박혜경 등에 의해 연구된 박사학위논문들은,⁷⁾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성과들을 수렴하여 황순원 문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도로서 황순원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

-
- 김성욱, 「시와 인형」, 『해동공론』, 1952.3.
 곽종원, 「황순원론」, 『문예』, 1952, 9.
- 3) 이어령, 「식물적 인간상」, 『사상계』, 1960.4.
- 4) 백 철, 「전환기의 작품 자세」, 『동아일보』, 196
 _____. 「소설작법」, 『한국일보』, 1960.12.18
- 5)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현대문학』, 1970.2-3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현대문학』, 1973.8
 김병익, 「찢어진 동천사상의 복원」, 『황순원문학전집』 제4권, 삼중당, 1973
 김현, 「소박한 수락」, 『황순원문학전집』 제6권, 삼중당, 1973.
- 6) 권영민, 「일상적 경험과 소설적 수법」, 『황순원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82.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 『말과 삶의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이동하, 「소설과 종교」, 『문학의 길 삶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7.
 조남현, 「우리소설의 넓이와 깊이」, 『문학정신』, 1989.1-5.
- 7) 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혜경, 「황순원문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황효일, 「황순원 소설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7.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7.

해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장현숙에 의해 황순원 작품에 대한 목록 작업⁸⁾이 시도되었으며 그 수록 및 개작과정에 대한 연구가 박용규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⁹⁾ 또한 2000년도에 타계한 작가에 대한 추모나 회고의 글이 많이 발표되었다.

황순원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황순원 소설의 ‘구조와 문체론을 포함한 형식미학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황순원 소설의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을 밝히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조와 문체론을 포함한 형식미학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논자들은 황순원 문학을 단편소설 양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미학적 특질을 서정적인 문체와 주관적인 내면 서술의 태도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논의는 구창환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데, ‘황순원 문학의 주조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리리시즘’¹⁰⁾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연현은 ‘그의 모든 단편은 인간 서정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그는 예술적 성취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풍기는 주정적 작가’¹¹⁾로 주목하였으며, ‘인생의 한 단면을 서정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탁월함을 보여준 작가’¹²⁾로 이용남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러나 김현, 김윤식은 황순원 소설의 기본적 성격이 퇴폐적 낭만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낭만주의적 성격의 일면을 이루는 퇴폐성은 서북지방의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제되어 거부되어야 할 것’¹³⁾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초기 단편소설의 평론에서 보이는 ‘서정성’ 및 ‘순수성’의 지적에 묶인 연구사적 시각의 편파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천이두는 황순원 소설이 세부 묘사 같은 것을 대담하게 생략하고 표현 대상의 이미지만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그의 엄격한 지적 질서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지적 절제의 문장이 ‘어떤 대상을 포착함에 있어서

8)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문학과 사상사, 2005.

9) 김만수, 「어둠을 응시하는 아르고스의 세 시선」, 『문학정신』, 1992.4.

김주현, 「<카인의 후예>의 개작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 『민족문학연구』 민족문학연구소, 1997.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0) 구창환, 「황순원문학서설」, 『어문학논총』, 조선대, 1965.

11) 조연현, 『한국신문학고』, 문화당, 1966, 293면.

12) 이용남, 「황순원론」, 『한국현대작가론』, 민지사, 1984, 668-680면

13) 김현,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2, 240면

그 실체의 물리적 정확성을 부각시키려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상이 빚어내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데 주력하는 편¹⁴⁾이라고 하였다. 정과리는 문체와 작가의 의식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와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싱싱한 삶을 지향하는 작가의 정신이 매끄러운 단문으로써 顯現했다고 지적¹⁵⁾ 했으며, 김윤식은 황순원 소설의 한 특성인 설화적인 문체가 ‘묘사의 거부’에서 비롯된¹⁶⁾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소설의 설화성, 혹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연구¹⁷⁾가 시도되었다. 권영민은 황순원의 ‘간결한 문장과 객관적인 서술방법’은 문체상의 외형적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이나 서술방식이 황순원 소설의 미적 구조를 가능¹⁸⁾하게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서정성 구조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박진에 의해 논의 되¹⁹⁾었으며 양식상의 특성과 서정성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논의는 모두 황순원 문체가 지닌 서정성과 감각성, 지적절제의 태도, 문장에 대한 세심함 등을 황순원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에 주목한 김치수는 ‘소설의 조직성’을 논의²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임채옥에 의해 ‘에피소드들의 층위나 차원이 다른데도 모두 엮어낼 수 있었던 탁월한 구성’²¹⁾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교선에 의해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연결을 통한 성층적 구조화’가 갖는 상징성²²⁾에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립되는 황순원 소설 연구로는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에 주목한 것들이 있다. 황순원은 해방기의 이념대립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경험한 이후 민족의 현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소설 속에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양식상으로도 내적 갈등과 외적 현실을 동시에 조망하기 위해 단편소설에서 장편소설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로는 황순원의 일제말기의 작품

-
- 14)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2000, 118면
 15) 정과리, 『사랑으로 감싸는 의식의 외로움』, 『황순원전집8』, 문학과지성사, 1984, 388면
 16) 김윤식, 『한국현대소설사』, 일지사, 1976, 169-186면
 17)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김윤식, 『민담, 민족적 형식에의 길』, 『소설문학』, 1963.3.
 박혜경,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소명출판, 2001.
 18) 권영민, 앞의 책, 158면
 19) 박진, 『황순원 소설의 서정적 구조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20) 김치수, 『소설의 조직성』, 『황순원전집10』, 문학과지성사, 1948.
 21) 김교선, 『소설의 이해와 평가』, 형설출판사, 1975, 102면.
 22) 임채옥, 『황순원 소설의 서정성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과 해방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 현실의식이 내제되어있다고 보는 방민호의 견해이다.²³⁾ 또한 김병익은 황순원 문학이 역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재현의 방식이 문학과 현실간의 관계를 동시에 포착하는 방법론적 선택으로 ‘역사의 내면화’에 주목하였는데, 황순원 소설이 ‘역사로부터 도피’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문장의 뛰어난 절제미와 묘사의 객관성이 지적 흥분을 최대한 억제한 장인의식과 역사적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처한 인간의 내면에 더 기울어진 때문²⁴⁾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치수도 김병익과 같은 관점에서 황순원 소설은 ‘1930년대의 프로문학 혹은 자연주의를 표방한 문학과는 달리 이들 밑바닥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자체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동욱은 황순원 소설에 대해 ‘역사적 개인화 현상’²⁵⁾으로 논의했으며, 이태동은 황순원 문학이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상징주의적 세계가 아니라 자연주의적 현실에 깊이 뿌리를 둔 실존주의적 경향의 상징주의적 작품임을 밝히고 ‘시대적 현실 속에 자연주의와 리얼리즘을 함축성 있게 수용’²⁶⁾한 깊이 있는 상징주의 문학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종희는 황순원 소설이 ‘작품의 구조에 걸맞게 시대현실을 유입’²⁷⁾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고, 정과리는 ‘개인적 고통의 묘사 한쪽에 역사적 현실의 한 단면을 무심한 듯 던져 놓는 수법’²⁸⁾ 등을 특징으로 보고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의식과 문체 사이의 단절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의 역사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작품 안의 미세한 부분들과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역사적 현실의 전체적 맥락 사이를 오가며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경호는 해방기나 한국 전쟁 이후의 황순원 소설의 변모양상에 주목하고 당대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건강성과 폭넓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문학사적으로 재평가²⁹⁾되어야 된다는 언급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황순원 소설에 대해 곽종원은 ‘비교적 현실폭로

23) 방민호, 「현실을 포획하는 상징의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9집, 1995.

24) 김병익,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25) 신동욱,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 한국적 삶의 연구」, 『동양학』 제16집, 1986.

26)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창작과 비평』, 1975.

27) 김종희,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 『작가세계』, 세계사, 1995. 37면

28) 정과리, 「사랑으로 감싸는 의식의 외로움」, 『황순원전집』 제5권, 문학과지성사, 1984, 297면

29) 이경호, 「황순원 소설의 주체성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8.

에 가까운 레얼리즘 경향³⁰⁾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작가가 역사적 경험치에 대해 사실주의 수법³¹⁾을 보여준다는 최일수의 논의를 통해서, 황순원 소설이 작가의 역사적 경험치를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사에서의 이러한 상반된 두 경향의 양립은 황순원 소설의 양면성과 다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황순원 소설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두 계열의 연구가 전체적 맥락에서 맺고 있는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작가의 삶과 작품을 비교한 역사, 전기적 연구방법이 있는데, 김동선은 황순원의 생애적 측면에서 그의 문학의 특성을 밝히고 그 배경과 심인적 동기 등을 다루는³²⁾ 논의를 시도하였고 이태동, 유종호, 김영민 등에 의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그린 생애와 일화를 통하여 주로 그의 가문과 가계, 인간적 면모, 창작의 배경을 이루는 전기적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그의 작품세계와 문단의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황순원 작품에 대해 성장소설의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인 논자로는 이재선을 들 수 있다. 이재선은 소년, 소녀가 등장하는 작품들의 통과제의적 구조에 착안하여 유년의 동화적 세계의 상실로 인한 환멸과 좌절의 아픔으로 정서적 시련을 거쳐 성숙과 변화에로 입문해 가는 생의 순환적 의미³³⁾로서 문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³⁴⁾방법으로 꿈을 비롯한 상징적 장치가 빈번히 사용된 것에 대한 연구가 김현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현은 『일월』의 주인공 인철의 꿈속에 나타나는 계단의 이미지를 하강 초월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³⁵⁾ 양선규는 심리소설로서의 특징에 주목하여 황순원의 소설 세계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이나 원시적 감성에 주목하고 있다.³⁶⁾ 그리고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적 성격을 살펴본

30) 박종원, 앞의 책, 27면.

31) 최일수, 「황순원 씨의 자연사상」, 『현대문학』, 1966.9. 281면

32) 김동선, 「황고집의 미학, 황순원 가문」,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33)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518-531면.

34)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133-134면.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유종호외,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1964, 269면.

35) 김현, 「일월의 한 문단의 해석」, 『말과 삶과 자유』, 1985.

김영화, 「황순원 소설과 꿈」, 『월간문학』, 1985, 5, 158면.

36) 양선규, 「황순원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논의로 천이두는 초기의 단편집 『기러기』를 개괄하면서 구조적 성향을 ‘휴머니티’라고 보는 한편 ‘그건 심원한 <로고스>의 통합이 아니라, 범속하고 간과하기 쉬운 다반사가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유로되는 <파토스>의 이야기인 것’³⁷⁾이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황순원 문학의 성격을 범생명주의나 그에 연관된 휴머니즘으로 파악한 논의로는 김종희, 송승철, 정문권 등이 있³⁸⁾는데, 이들의 연구는 천이두의 논의를 좀더 심화시키면서 세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순원 문학 전반을 다룬 포괄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황순원 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성과 다층적 의미가 풍부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연구할 황순원의 ‘유랑의식’³⁹⁾에 대한 연구사들을 살펴보면, 노승욱은 유랑성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한 민족을 그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유랑성을 단지 정주성과 그 문화에 대한 반대적의미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논의했다. 그는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성을 작중인물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민족의 무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한 유랑성의 본질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유랑성의 극복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작중인물들의 유랑적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자각이 비유랑적 삶의 태도를 갖게 함과 동시에 인간 존재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경호는 한국의 유랑민 근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작가는 『움직이는 성』에서 인물설정과 그들의 사고 및 행동부처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았으며, 유랑민 탐색은 세 남성(준태, 민구, 성호) 사이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며 이들의 좌절에 이른 극복의지를 통해 구원의식이 제시 된다고 보았다.⁴¹⁾ 또한 박배식은 인간의 근원적인 방향과 고독, 한국인의

37) 천이두, 「인간속성과 모랄」, 『현대문학』, 1958.11.

38) 김종희,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 『위기의 시대와 문화』, 세계사, 1996.

송승철, 「따뜻한 휴머니즘과 전쟁의 업보 황순원론」, 『실천문학』, 2001, 봄호.

정문권,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 담론 양상」, 『인문논총』 21집, 배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39) 본고에서는 ‘유랑의식’을 유랑성이나 유랑민 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40) 노승욱, 「유랑성의 소설화와 경계의 수사학」, 『민족문학사연구』 2005, 12, 140-141면.

41) 이경호, 앞의 책, 142면.

민족성, 신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 소설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⁴²⁾ 이들의 연구는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에 대해 극복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립되는 연구로서 이경호는 『움직이는 성』의 전체구조는 한국인의 근원적 심성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유랑민(流浪民) 근성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에게서 발현되는 과정을 축으로 짜여 있음에 주목하고, 작품의 중심인물들을 기동으로 해서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펼치다가 종내는 한국민의 유랑민 근성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작가는 등장인물에게 각각의 세계관을 형성화하고 이에 적합한 사건과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서사구조는 각기 신봉하는 세계관 등이 붕괴되면서 공통적으로 방황과 고독의 유랑민으로 결말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의⁴³⁾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박남훈은 한민족 정체의 아이덴티티 근원의 탐색과 관련하여 『움직이는 성』이 현실적으로 다급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면 기독교건 불교건 샤머니즘이건 닥치는 대로 의지하는 풍토, 즉 정착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정신풍토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인간 존재의 심연에 있는 근원적인 갈등을 의미⁴⁴⁾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인식은 『움직이는 성』의 의미가 인간 자체의 근원적인 방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은 가인의 원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성서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서 유랑자의 원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작품을 논의⁴⁵⁾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유랑의식’이 인간존재의 심연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극복될 수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유랑의식’에 대해 그것이 민족의식에서 연유된 것임을 논의한 연구로는 홍정선이 있다. 홍정선은 『움직이는 성』의 주제는 우리 민족의식의 저변을 천착해낸

42) 박배식, 「황순원 소설의 구원의식」, 『한국문학논총』 제30집, 동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6, 78면.

43) 이경호, 앞의 책, 142면.

44) 박남훈,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30집, 한국문학회, 2002, 6, 493면.

45) 장인식,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자』 비교」, 『문학과 종교』 제 7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9면.

으로써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도 영원한 차원에서 한 민족의 의식구조에 그 초점을 맞추어 정신적 지주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으며 그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⁴⁶⁾하고 있으며, 김미현은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유랑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소설로 『움직이는 성』을 다루고 있는데, 유랑민 근성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종교를 못 가질 민족인지도 모른다는 비판적인 인식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존재론적인 의미와 유랑민 근성을 연결시키면 서로에게 타인으로 존재하면서 근원적인 갈등을 일으키기에 실존적인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을 유랑민 근성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정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⁴⁷⁾

또한 황순원의 ‘유랑의식’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동하는 유랑민 근성에 대해 한국역사의 지배적인 특성이 ‘유랑’의 측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기독교 정신은 다양하게 변모하는 것이며 복합적인 면모를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유랑은커녕 농경민으로서 몇 대를 내려가도록 한 번도 마을을 떠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정착민의 생활양식이 한국사 오천 년을 지배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 정신사의 두드러진 특징을 ‘유랑’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동하의 연구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6분의 1이 만주나 일본으로 궁핍을 면하기 위해 이동했던 이유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하의 관점과 같은 비판의 논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보영의 연구를 보면, 『움직이는 성』이 현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의 불안한 생활양식과 생활감정을 심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작품은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덕적 중심이나 삶의 신념의 중심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주요인물의 정신 상황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학적인 조화가 없어진 소설⁴⁹⁾로 다루고 있다.

46) 홍정선, 「황순원론 - 『움직이는 성』의 실체」, 『현대문학』 27권 7호, 1981, 7.

47) 김미현, 「유랑의 형식과 대위법의 언어」, 『민족문화사연구』, 2005, 12, 212-213면.

48) 이동하, 「소설과 종교」, 『한국문학』 15권 7호, 1987, 365-366면.

한편,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이 경계의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에 주목한 연구로는 노승욱을 들 수 있는데, 노승욱은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계 위’에 존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유랑성’은 상반된 두 영역의 가치가 이와 같은 경계의 서사구조, 혹은 경계의 수사학은 작가의 개인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에 주목⁵⁰⁾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논으로 이은영은 자아찾기의 여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타자 혹은 타자들이 만든 법이나 금기로 인해 그 상징적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 내면과의 부단한 싸움 때문에 다시 말해 또 나로 인해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여러 유형의 인물들은 육체적 안착이 아니라 정신적 안착을 갈구하면서도 결국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의 사랑하는 방식 속에 내재해 있는 흔들리는 자아와 현실 사이의 경계에서 ‘유랑의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논의⁵¹⁾하였다. 구인환도 황순원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작가의식으로 완벽성과 예술성의 성취에 의한 그날의 지평을 추구하는데 전력투구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완벽성의 지향은 그의 생의 투사와 서사구조의 다성적이면서도 예술성으로 응집되는 소설기법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다. 또한 황순원 소설의 서사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극의식을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것은 황순원 소설의 소설미학에 접근하는 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논의⁵²⁾하고 있다. 허명숙은 『일월』, 『움직이는 성』, 『신들의 주사위』를 인물구조를 중심으로 다루어서 두 여성 사이에서 유랑하는 남성 관계 분석⁵³⁾하고 있으며, 손화숙은 장편소설에서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그로 인한 유랑의 삶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⁵⁴⁾에 주목하였고, 박양호는 이러한 여성 인물의 사이에서 유랑하는 ‘인물의 정서’에 대해 연구⁵⁵⁾를 시

49) 이보영, 「작가로서의 황순원」,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305면.

50) 노승욱, 앞의 책.

51) 이은영, 「『움직이는 성』의 경계 넘나들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제 18집, 2003, 3, 28면.

52) 구인환, 「황순원소설의 극적양상 -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199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16면.

53) 허명숙, 앞의 책, 111면.

54) 손화숙, 「존재의 고독과 모성의 추구」, 『우암어문논집』, 1995, 2,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9면.

도하였다.

그간의 연구들 중에서 황순원 소설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작품의 내재적 분석의 대상으로만 삼고 ‘유랑의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작가의 경험과 시대적 현실을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한계성이 엿보인다. 또한 ‘유랑의식’은 황순원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황순원 소설에 내재한 핵심적인 형상화의 논리로 ‘유랑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작가의 삶과 경험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인식을 그의 문학세계에서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황순원의 작품세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2. 문제제기 및 연구 방법

작가론의 범주에 드는 이 논문은 황순원의 방대하고도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소설세계가 단일한 연구방법에 의해 체계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에 내재한 핵심적 형상화의 원리로 ‘유랑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의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문학세계와의 상호연관성을 찾으려고 한다. ‘유랑의식’은 황순원 소설세계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황순원의 주요 작품 연보를 제작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항상 당대의 역사와 현실로 인해 작중인물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유랑의식’은 황순원 소설세계의 작중인물의 행동과 의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의 경험과 비례되는 사실주의적 시각에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순원의 소설 속에서 보이는 ‘유랑의식’은 매우 중요한 그의 문학세계의 본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랑의식’에 대해 작가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황순원 소설의 완결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작가가 애착을 갖고 창작한 『움직이

55) 박양호, 「황순원문학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는 성』 56)은 한민족의 ‘유랑의식’을 본격적인 문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황순원은 창작한 작품에 대한 동기나 배경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1972년 『문학사상』 통권 2호를 통하여 자신의 『움직이는 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여기에서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유랑민근성’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황순원 전 작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즉 황순원이 한국의 격동하는 역사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살아왔으며, 그 속에서 경험했던 삶에 대한 갈등과 지향의식이 작품을 통해 배출되었다면, 작가는 그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유랑의식’을 창작 작품에 표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문학적 본질에 대한 탐색은 작가의 작품세계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작품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작가의 작품세계 전체에서의 ‘유랑의식’에 대한 특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즉 황순원의 소설이 갖고 있는 ‘유랑의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연구의 결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가의 삶과 격동하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관련되는 접점을 찾아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분석해 나갈 것이며, 왜 작가는 그의 작품 속에 ‘유랑의식’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황순원 소설세계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은 그것이 문화적 보편성으로 작가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작품의 창작과 함께 비로소 발견, 재구성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식’이란 작가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유랑의식’은 작가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정신적 현상이지만, 또한 동시에 작가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 즉 경험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56) 김미현은 『움직이는 성』에 대해, 연재·완성·교정·출판까지 5년이나 걸린 작품으로서, 바로 이전 장편소설 『일월』에 이어 실존적인 인간 조건으로서의 운명과 고독에 대해 천착해 들어간 소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1968년 5월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하여 1972년 10월까지 비연속적으로 연재되기는 했지만 5년 동안 집필했다는 사실이나, 1973년 삼중당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할 때 연재분에 비해 1/3정도로 줄어들었고, 1980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낸 전집에 실릴 때 다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아 이 소설에 갖는 작가의 애착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미현, 앞의 책, 212면.

황순원의 문학작품을 ‘유랑의식’과 연관지어 연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작가의 삶과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황순원의 ‘유랑의식’을 역사적, 사회적인 사실과 이야기 할 때, 그 구체적 관계는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유랑의식’이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관련지어 어떻게 다르게 변형되는가. 또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본고는 황순원 소설세계 안에 있는 여러 작품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의 연속성과 차이의 상호관련성을 찾아 그의 소설을 분석하려는 것이 관점이다. 이러한 작업은 황순원의 문학세계가 갖고 있는 의미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내는 연구가 될 것이다.

황순원의 소설은 여러 작중인물의 광범위한 인간 경험과 시대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는 천진한 아이들과 동물들 그리고 긍정적인 어머니와 부정적인 어머니, 긍정적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으며, 병약하고 예민한 청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의 삶은 도시적 감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옛이야기가 존재하는 공동체적 삶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억압적인 현실의 경험을 드러내는 개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모티프들은 그의 문학을 지탱하는 각각의 요소일 뿐, 그의 문학적 특징을 유형화하거나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들은 텍스트 내에서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유랑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황순원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학세계의 기준을 양식 선택⁵⁷⁾의 문제나 작가의식의 변모양상⁵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 있는데, ‘유랑의식’과 관련하여 본고는 크게 네 가지로 변모양상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1기는 일제식민지 시기, 제 2기는 해방기, 제 3기는 한국전쟁기, 4기는 6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은 작품의 발표시기가 아닌 창작시기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분

57) 권영민은 1단계를 6.25를 전후한 단편위주의 시기, 2단계를 『카인의 후예』에서부터 『일월』까지 장편 위주의 시기, 3단계를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48면.

58) 장현숙은 1기를 시적 상징화와 민족현실의 반영, 2기를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의 확대, 3기를 생명지향성과 영원주의, 4기를 실존주의적 삶과 인식과 형이상학의 추구, 5기를 인간구원과 자유에의 실로 파악하고 있다.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 시와 시학사, 1994.

류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내적인 근거는 역사적 굴곡에 의해 전개, 형성된 작가의 ‘유랑의식’의 변모양상과도 관련된다. 황순원의 소설에 역사성이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작가는 시대와 역사가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의 접촉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유랑의식’을 통해 소설에 형상화한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이른바 노마디즘(nomadism)으로 불리우는 유목민의 방랑적 특성이 그것이다. 노마디즘은 특정한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nomad)에서 나온 말이다.

유목민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정착생활을 영유하지 않는 수렵, 채집 인에 대해 ‘유랑’, 혹은 ‘반유랑’, ‘반정주’ 등의 표현으로 또는 광역적인 이동 목축민에 대하여 ‘유목’이라는 표현을 쓴다. 유목민들에게는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동력, 또는 운송용 동물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계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 이동, 이주 등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심리적인 태도가 강점으로 작용하였다.⁵⁹⁾ 식량과 안전한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 인류는 끊임없이 이주와 탐험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유랑’은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자 목적이었다.

노마디즘은 오늘날 아주 다양한 측면의 인간적인 것들을 수식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부족, 열매 채취인, 수렵인, 유랑 농경민, 기사, 조각인, 선원, 순례자, 곡예사, 음유시인, 수련 기간이 끝났으나 독립하지 못한 직인, 해적, 걸인, 추방당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 상인, 탐험가, 계절 노숙자, 노숙자, 카우보이, 이주 노동자, 정치 망명객, 낚시꾼, 여행자, 예술가, 히피, 지사 근무 간부 또는 출장중인 간부, 비디오게임 애호가,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자 등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모두가 노마드인 것은 아니다. 전재산을 갖고 다니면서 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노마드적인 윤리와 문화를 갖고 있다.⁶⁰⁾

59) 김종래, 『유목민 이야기』, 지우출판사, 2002, 91면.

60) 이효숙,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16면.

그러나 현대에 있어 유목의 의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거처를 옮기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자크 아탈리는(Jacque attali)는 21세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노마드의 삶을 예견한다. 그는 현대의 유목민에 대해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떠도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그들은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에 달라붙어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 인류는 정주민 체제에서 점점 유목민의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한다.⁶¹⁾

과거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유목생활을 통해 각 영역의 경계에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현대에는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역과 영역 사이를 횡단하고 이동하면서 공간을 넘나드는 상황이 현대의 노마디즘이다. 즉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불박하지 않고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끊임없이 탈주선을 그리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삶의 새로운 주체가 현대의 유목민⁶²⁾이다.

황순원 소설에 형상화되고 있는 ‘유랑의식’은 기본적으로 노마드의 문화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랑의식’을 곧바로 노마디즘으로 대입시킬 수는 없다. 이는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이 기존의 노마디즘과는 다소 의미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살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랑민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작가는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고향을 떠나 남한 사회로의 이주와 정착을 실행한다. 이러한 작가의 ‘유랑’적 삶은 격동하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유목민을 나타내는 방랑적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유랑의식’으로 인해 작가는 월남민으로서의 독특

61) Jacque attali, 『21세기 사진』 정혜원 역, 중앙 M&B, 1999, 11면.

62) 이진경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의 고원』(1980)의 해설서인 『노마디즘 1.2』를 펴내면서 유목민은 주류적 척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 사유방식을 창안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질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노마디즘이란 정착과 소유, 착취와 포획, 동일성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한 철학적 문제 설정이고, 우리의 신체와 삶을 사로잡고 있는 권력과 대결하며 새로운 창조적 삶을 창안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노마디즘이란 이미 굳어진 관계의 망을 뚫고 나가 기존의 배치에 저항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유, 실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목민이 된다는 것은 고정된 관계의 질서 속에서 지배적 다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소수자로서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진경, 『노마디즘 1, 2』, 휴머니스트, 2002

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랑민의 독특한 심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 즉 한국의 굴곡진 역사에 의해 작가가 경험했던 작가의 세계관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떠돌 수밖에 없는 유랑생활이 작품에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랑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는 기존의 노마디즘과는 차별성과 특별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는 ‘유랑의식’은 작가가 처한 삶의 배경, 즉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따라 어쩔 수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작중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랑적 삶을 나타내는 유목민의 삶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황순원 소설은 작중인물의 유랑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면서도 늘 정착하는 삶에 대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성을 갖는다.

이때 ‘유랑의식’의 형성 배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태어나고 성장한 서북지방인의 경계인으로서의 황순원의 정체성이다.

둘째, 일제 치하에서 자국의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인으로서의 경험이다.

셋째,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고향을 등지고 월남한 실향민으로서의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경계인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월남자로서 유랑체험이다.

넷째, 전전세대 작가로서 한국전쟁의 경험이다. 이는 이미 실향을 경험한 황순원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또 다른 ‘유랑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⁶³⁾

본고는 황순원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역사와 현실에서 느끼는 작가의 ‘상실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지향하는 것과 사라진 것’ ‘잃어버린 것과 찾고 싶은 것’, ‘정착하고 싶은 것과 부유하는 것’ 등 대립되는 가치의 경계에서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작가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유랑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긍정적

63) 노승욱은 황순원의 유랑의식에 대해서 식민지인과 월남민 그리고 “문학 창작에 있어서 시에서 소설로 방향 전환한 그에게 있어서의 시에 대한 향수이다. 즉 끊임없이 지향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의미가 그의 문학 창작의 원체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을 세 가지의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황순원은 소설을 쓰면서 간간히 시를 발표했고, 소설을 중단한 이후에도 시를 쓴 것을 참고한다면 시에 대한 향수로써 ‘유랑의식’이 형성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노승욱, 『황순원 단편 소설의 환유와 은유』, 『외국문학』, 열음사, 1998, 3, 170~171면.

인 측면을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랑의식’을 표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의 욕망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실현 양상이 다르게 구현된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개인의 내면의식으로 인해 ‘유랑의식’이 형성되고 또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정착할 수 없이 흔들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유랑의식’이 드러난다.

본고는 ‘유랑의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황순원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황순원 소설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황순원의 작품세계에서 ‘유랑의식’의 형성 양상은 작가의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작가의 삶이 일제시대, 해방기, 한국전쟁기라는 격동하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유랑의식’을 ‘유랑의 세 층위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근원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상실감 그리고 육친적인 상실감에서 ‘유랑의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유랑의식’의 형상화에 있어서 각 시기별로, 그 시기에 따른 경계인으로서 ‘동화와 차별, 그리고 파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작가가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소설에 어떠한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상실감의 의미는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당대의 현실인식은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상실감의 배후에는 인간의 삶을 해체한 원인으로 역사적으로 파행을 거듭한 시대적 현실이 그 기저에 있다. 이는 황순원 문학의 출발이 실존적 존재로서 부조리한 생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순원 소설은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을 행동을 추적하는 서사적 진행의 빈번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주목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전통/근대 사이에서 ‘유랑하는 주체’의 내면이 어떠한 정체성 찾기를 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유랑의식’의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 많은 월남민이 발생하게 된다. 작가 황순원은 북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월남을 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유랑’을 경

협해야만 했다. 황순원은 이러한 이중적인 유랑생활로 인해 독특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해방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전제민과 도시의 소시민, 그리고 농촌의 궁핍한 현상으로 인해 작중인물이 정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거나 추방되는 작중인물의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순원 소설은 타락한 현실의 일면과 함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검출되는데, 이러한 점은 황순원의 떠돌이 삶에서 생겨난 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보이는데 황순원의 작품에서 이러한 점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부정상에 대한 연구는 모성상의 연구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황순원의 작품세계에서 모성성의 탐구는 초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후기의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인다. 황순원이 추구하는 모성성을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추출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순원 작품에 등장하는 모성성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성성과 부정적인 모성성으로 혼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불구적인 모성성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 건강한 부정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작중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황순원 소설의 모성성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성인물이 두 여성의 경계에서 유랑하다 결국은 이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왜 황순원의 장편소설의 남성인물이 여성인물들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황순원의 작품세계를 통해 발현되는 ‘유랑의식’의 의미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역사적, 사회적 세계의 등가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황순원의 ‘유랑의식’의 의미를 연구하려고 한다.

황순원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텍스트 확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의 소설은 50여년의 긴 시간 동안 전집만 세 번이나 간행되었던 만큼 개작 과정의 비교분석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한 ‘유랑의식’의 형상화는 이러한 개작의 과정에서 거의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1980년대에 『황순원전집』(문학과지성사, 1980~1985)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작

가 황순원의 계속된 개작의 완성판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문학과지성사’에서 간행된 텍스트로 확정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Ⅱ. 황순원의 삶과 문학

1. 삶과 유랑의식의 형성

황순원의 문학의 출발은 일제 식민지 치하 서북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평남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1915년 3월 26일에 부친 황찬영과 모친 장찬봉의 장남으로 출생했으며, 2000년 9월 14일에 서울에서 타계했다. 본관은 제안(齊安)으로 누대에 걸친 향리 명문가의 자제이다. 황순원의 ‘유랑의식’은 경계성을 가진 작가의 개인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서북지방의 문화는 성리학과 기독교 문화가 만개한 지역으로 한반도의 경계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그는 가문의 성리학적 이념과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되⁶⁴⁾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게 대한 가문의 유례⁶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순원이 다섯 살 때, 평양 승덕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친이 3·1운동에 가담해서 일경에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했으며 승덕 소학교를 졸업하고 오산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건강을 걱정한 부모의 권유로 평양 숭실 중학교로 전학했다. 황순원은 이 학교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으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자이면서도 민족운동가였던 부친 황찬영의 ‘늘 어려울 때 일수록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과 ‘바르게 살자, 남강선생처럼 늙어질수록 아름다운 남자가 되자,’라는 생각에 의해 소년시절에 이미 그가 추구하는 삶의 정신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숭실중학을 졸업한 뒤 193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제2고등학원에 진학한 이후, 이해랑, 김동원 등과 더불어 극예술 단체인 학생예술좌를 창립하여 연극 활동 등에 관계했으며, 신백수, 조풍연 등이 주도하던 『삼사문학』의 동인이 되어

64) 노승욱, 앞의 책, 141면.

65) 김동선, 「황고집의 미학, 황순원 가문」,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262-279면.

창작활동을 지속했다. 그리고 1935년 일본 나고야 김성여자전문 학생인 양정길과 결혼했다. 숙천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며 만주 봉천에 사과를 수출하기도 한 양석렬의 장녀인 양정길은 평양 승의여학교를 다닐 때 문예반장을 지냈고 황순원과는 이때부터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1939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다.

황순원은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부터 해방의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한국 전쟁과 개발·군부독재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두루 겪은 한국 현대문학사의 증인이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소설세계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한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창작하였고, 이러한 그의 소설세계에 그가 경험한 ‘유랑’의 과정이 삶의 등가물로서 고스란히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고향 사람들」, 『카인의 후예』, 「곡예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설 속 현실과 실제 현실, 소설 속 화자가 보여주는 현실인식과 작가의 현실인식은 반드시 등가(等價)일 수 없다. 소설 속의 현실은 이미 현실 그 자체가 아닌 언어를 매개로 한 허구적 현실이 되기⁶⁷⁾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반영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품속의 허구적 현실에 작가의 경험과 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현실을 그대로 그린다는 것은, 현실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낸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의 대응물을 창조해낸다는 뜻이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또 하나의 현실을 창조하여 그것이 인식된 현실과 등가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것이 소설 특유의 기술 방법이다.⁶⁸⁾ 따라서 작품을 통해서 소설 속에 나타난 당대 사회 현실의 묘사나 작중인물이 보여주는 의식 구조를 통하여 작가의 현실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먼저 그는 식민지시기를 경험한 작가로서 일제와의 동화와 타협이 아니라 차별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 황순원에게 있어서 조국이 있지만, 그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과 식민지인으로서의 근대교육을 받은 그는 지식인으로써 느껴야 했던 상실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서

66) 김종희는 황순원이 평생 왕성한 문학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신앙심이 깊고 활동적이며 문학에 조예가 깊은 부인의 조력을 많이 받았으며 노년기에 와서도 건강과 깊은 기독교 신앙의 경지에 진입한 것도 반려자인 양정길의 도움이었다고 한다.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 『황순원- 새미작가론총서8』, 새미출판사, 1998, 11-36면 참고.

67)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 31면.

68) 이남호, 「소설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한국소설』, 민음사, 1989, 562면.

술하고 있는 단편소설 「내 고향 사람들」(196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소야, 이 유순한 소야, 어서 빨을 갈아라, 그리고 언제나 내 힘에 겨운 일은 네가 좀 대신 해주고, 네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신해주마, 소야, 빨을 가진 소야.》 오래전 소년 시절에 노트해 두었던 글귀였다. 그 잉크빛이 부엌에 날아버린 글자를 더듬으며, 이미 소는 나를 위하여 대신해줄 힘은 고사하고 제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지쳐버리고, 나는 또 나대로 그를 위해 아무런 방도도 강구해주지 못하는 한낱 창백한 인텔리 청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되었다.(4:135)

태평양전쟁기의 공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당시의 시대현실로 인해서 황순원은 그들을 위해 아무런 방도도 강구해주지 못하는 한낱 창백한 인텔리 청년일 뿐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드러낸다. 황순원은 주재소 주임의 감시와 시선 속에서 “더딘 붓으로나마 쓴 작품 초고들을 벽장 속에 챙겨 넣어두곤 한”다. “일본의 과시증적 체제의 확립과 강화로 한반도에서도 엄격한 사상 통제가 이루어져 지식인들의 행동반경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 결과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언론의 자유가 온갖 검열과 통제로 위축되었고, 사상취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사상활동이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한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거의 전면적으로 봉쇄된⁶⁹⁾”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가는 일본어로 친일 소설을 쓰기를 거부한다. 작가는 『기러기』의 서문에 “..그저 나대로 꽤 아끼고 사랑해오는 작품들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들과 같이 어두운 한 시기를 살아온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는대로 석유상자 밑이나 다락 구석에 틀어 박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라며 그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또한 원응서의 글을 통해, 작가의 일제말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1942년 가을 철에 원응서와 함께 일제의 눈을 피해 인가와는 멀리 떨어진 서장대에서 술을 마시며 ‘쌓이고 쌓였던 울분과 억눌렀던 마음을 터뜨리느라 대낮부터 밤까지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가슴을 두드렸던 것’⁷⁰⁾에서 암흑기에 훼손하거나 절필하지 않는 드문 예⁷¹⁾로 일제의 체제에 협력하지 않는 문인의 삶을 산 이

69) 장영우, 『이태준』, 도서출판한길사, 2008, 24면.

70) 원응서, 「그의 인간과 단편집 『기러기』」, 『황순원연구』, 1985, 문학과지성사, 256면.

71) 김윤식은 「해방공간의 문학」이라는 연구에서 일제 암흑기의 문학적 대응양상을 친일적인 것 외에

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의 하나로는, 일제말기의 황순원은 신진작가였기 때문에 다른 증견작가에 비해 일제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증견 작가로서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가들은 대개가 일제로부터 제반 선전, 선동정책에 동참할 것을 압박받았으며, 창작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창작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창작이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일협력만이 살길이므로 일제의 요구에 협력하거나, 적당히 요구에 부응하면서 요령껏 창작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절필을 택해야 했다. 그러나 황순원은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으므로, 창작활동과 생계가 직결된 것이 아니라서 대일협력의 창작활동이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우리말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던 요건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순원은 일제말기인 1943년 가을에 고향인 평남 대동군 빙장리로 소개해나갔고, 해방이 된 1945년에 9월에 고향에서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친구인 원응서를 영어교원으로 들여보내준 학교에 1946년 2월에 국어교원으로 취직했다가 월남하기까지 3개월간 강사로 근무한다. 작가에게 해방은 기쁨과 동시에 실망과 기만을 함께 가져다 준⁷²⁾ 것으로서 해방이 된 1945년을 넘기면서 지주계급이었던 황순원은 신변의 불안을 느껴 차분히 월남을 준비하여 1946년 5월에 남한 사회로 편입한다. 이러한 점은 자전적 경향이 짙은 소설 『카인의 후예』를 통해 작가 황순원의 일가가 남으로 내려온 배경을 알 수 있다.

해방이 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많은 월남민이 발생하게 된다.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은 수많은 월남민을 낳았다. 그들의 월남은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비자발적 동기나 상황에 의해 벌어진 경우 또한 무시하지 못할만큼 많았다. 이들의 월남 동기는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 한 가지로 규정하기에 어려운데 이는 작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대체로 북한의 주민들이 월남한 주요

①뭇을 꺾는 일. ②골방에서 계속 창작하는 일. ③일본어로 쓰되, 최소한의 협력을 함으로써 계속 쓰는 일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황순원과 박두진을 두 번째의 예로 들었다.

72) 원응서, 앞의 책, 258면.

한 원인으로서는 토지개혁과 관련된 경제적 기반의 붕괴, 그리고 해방 전, 일제에 협조한 전력(前歷)으로 인해 받게된 사상적 탄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인들의 경우엔 창작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억압이 월남의 주요인으로 덧붙여진다. 문학활동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남북한 문인들의 체제 선택은 그들의 자유로운 문학활동을 위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월남작가들이 월남한 직접적 동기를 전적으로 문학과 관련하에서만 규정 지을 수 없다. 한 개인이 자신이 몸담았던 체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원인을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경험해야 했던 월남 체험은 그들의 작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자아 정체성의 토대하고 할 수 있는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금 뿌리내리기를 시도해야 했던 월남작가들은 남한 사회의 호명 여부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호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는다는 것, 북한 사회를 떠난 그들은 남한 사회의 주변으로 위치지워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 두려움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억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월남작가들은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공유하면서도 그들만이 지닌 창작관과 현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한 사회에 편입한다.⁷³⁾ 그리고 월남 작가의 경우, 자신이 속한 월남민(越南民)⁷⁴⁾ 집단의 의식구조⁷⁵⁾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73) 김효석은 1세대 월남작가로 황순원, 김이석, 최태웅이 다른 월남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월남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월남작가에 비해 월남전후의 창작활동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한 주요원인 이라고 보았으며, 전후에 등단하는 월남 2세대 이범선, 선우희, 이호철은 월남 1세대 작가들이 공인으로 가졌던 심리적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왔기에, 월남민으로서의 자각과 분단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세와 판단과 분석을 토대로 작품 활동을 전개한다고 보았다.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74) 월남민은 연구에 따라서 월남민과 월남인으로 표기되는데, 본고에서는 용어정리를 위해서 월남민으로 정리했다.

75) 김효석은 월남민에 대해 1945년 광복 직후에서 1953년 휴전으로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기 전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한국인을 말한다면서 이와 같은 월남민의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 월남민의식은 갑작스런 광복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둘째, 월남민의식은 해방직후부터 분단이 고착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월남민의식은 월남 이후 고향으로의 귀로가 실질적으로 끊어짐에 따라, 북쪽에 고향을 둔 동향끼리의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월남민들이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되어 그 결속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한 정착 과정에 따라 같은 경험의 월남민일지라도 월남민 집단에 대한 결속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넷째, 월남민의식은 단일하고 획일화된 사회의식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분화된 다양한 월남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⁷⁶⁾

황순원은 해방기부터 현실 세계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적 시선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풍속적 차원의 삶의 인식이 주요한 소설 공간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실 세계의 변동과 삶의 상관관계를 서사적 과제로 다루는 적극성이 점차 강화되기에 이른다. 이는 식민지시기에 드러내놓지 못했던 작가의 문제의식이 해방 후 본격적으로 소설 속에 제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황순원의 문학세계는 남한에서 사실주의적이며 민중지향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좌파적 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군정 치하에서 문학가 동맹이 흔들리고 조연현, 김동리를 위시한 우익 문인들이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남한 문단을 장악하기 시작⁷⁷⁾하면서 황순원의 좌파적 경향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는 남한에서 뚜렷이 좌익계 문학인으로 나서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남한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에도 앞장선 문인이 아니었다. 해방 후, 남한의 문단상황의 어느 한쪽에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를 문학사에서 ‘중간파’로 간주⁷⁸⁾되는 경계인의 작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는 황순원이 겪어야만 했던 월남민으로서의 의식이 그의 소설 속에 드러나고 있

민 소집단의 의식지향에 의해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월남민 의식이라 함은 월남한 사람들의 동경, 사상, 감정 등이 담겨진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김효석, 앞의 책, 15-35면.

76) 월남민이 중심이 된 잡지 <문학예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월남 후 그리고 전쟁기 피난 시절 월남작가들은 동반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김이석, 원응서, 박남수 등 1,4 후퇴시 월남 문인들은 <문학예술>이라는 문학잡지를 통해 전쟁시 자신들의 불안감을 약간이나마 덜 수 있었고 기존 문단에 집단적으로 적응하려 애썼다. 문학예술은 당시의 <문예>나 <현대문학>보다 서구문학에 좀더 지면을 할애하면서 동리 미당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기존문단에서 자신들의 색채를 드러내려 힘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집의 중심에는 원응서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50년대에 국내보다는 외부로 시각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효석, 앞의 책, 45면.

77) 1947년 7월 『文藝』 창간호에 황순원의 작품을 게재했다가 “容共의 編輯”이라는 명목으로 ‘某機關’으로부터 추궁당한 것에 대한 조연현의 반박을 통해, 해방 직후 좌익편향을 보이던 황순원이 조연현과의 접촉이후 그의 문학세계가 현실의 비판적인 문학에서 서정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남한 문단에서도 자리잡아가게 된다. “그러나 <문예>의 창간을 전후하면서부터 그러한 사정은 아주 달라져 가고 있었다. 좌익 세력은 이미 쇠퇴해 갔고 『문학가동맹』에 열성적이었던 문인들도 일부 열성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치적·사상적 전향을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중간노선을 지켜왔던 작가들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려고 했다. 이러한 상당수의 문인들과 지금까지 별로 접촉이 없었던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새로운 접촉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노력과 활동은 우리 문학을 위해서 필요했다. 일부의 극단적인 문단의 우익 세력은 그러한 문인들에 대한 감정적 반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문예>에서 그러한 작가들을 제외하라는 압력을 나에게 가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문학 역량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조국의 품안에 들어온 모든 작가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조연현, 강진호 엮음 『문예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366-367면.

78) 권영민, 앞의 책, 1993.

음에 주목해야 한다. 해방 후 정치적 탄압에 의해 월남을 결행한 황순원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월남체험’이라는 사실이다. 황순원이 월남한 남한 사회는 민주주의와 온갖 근대의 문명들이 뒤엉켜 인간 본성인 자유와 이기심이 한껏 고양된 채, 한반도에서 문명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물질적, 정신적 성과를 축적하는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월남을 체험한 작가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그의 삶의 변동에 따라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상징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내려온다. 황순원은 북한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변화된 남한 사회에서 뿌리내리기를 비교적 수월히 해 낸 월남민⁷⁹⁾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정착이 쉽지 않을수록 그가 두고 떠나왔던 이북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황순원의 소설에서 고향으로의 간절한 회귀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소설에서 고향에서 행복했던 시절은 항상 유년 시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황순원에게 이미 고향은 훼손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탄압에 의해 월남했으면서도, 오히려 좌익계열의 잡지에 여러편의 소설을 발표하는 등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의 노선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으며, 그 결과 1949년 말 당국에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전력이 있다.⁸⁰⁾ ‘보도연맹’ 가입자들에 대해 6·25 직후 단지 적에게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불법적인 집단 처형은 황순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순원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주요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6·25 이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의 이유로는 ‘전선의 급격한 후퇴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일어났’⁸¹⁾기 때문이다. 월남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황순원에게 한국전쟁은 다시금 ‘유랑의식’을 상기시키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곡예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쟁 중에 경기도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겪었던 고달프고 불안정한 피난 생활들을 표출한 소설들이 작가가 주변부의 이야기, 소서사에 천착한 중요한 이유가 당시 작가 황순원이 남한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

79) 김효석, 앞의 책, 36면.

80) 박용규는 1949년 12월 2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황순원은 해방공간에서의 좌파적 문학활동이 문제가 되어 ‘국민보도연맹’에 자진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박용규, 앞의 책, 1면.

81) 박용규, 앞의 책, 57면.

서 지니고 있던 신분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비록 남한 사회에서 교수와 작가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당시 반공이데올로기가 득세하던 남한 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끝없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때 사상전향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좌익적 성향의 그들을 원죄처럼 지니고 있던 황순원에게 있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대서사는 작가적 위기의식을 갖게 하면서 그가 소서사로서의 주변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⁸²⁾ 그러나 소서사로서의 주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황순원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 현실과 거리를 두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역사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역사적 현실은 은폐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쟁기 이후에 역사나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강세를 보이던 때에도 황순원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⁸³⁾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의 작품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개작이 이루어졌던 것은 황순원의 작가의식이 자연스럽게 변모해 가기보다는 전쟁이후의 이념이나 현실이 황순원의 의식을 강박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한 측면⁸⁴⁾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황순원의 현실 인식은 전전세대(戰前世代) 특유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전세대의 경우 한국전쟁을 독자적 사건으로 바라보거나 이로부터 하나의 역사적 단절이 이루어진다⁸⁵⁾는 전후 세대와는 다른 창작관을 보

82) 노승욱, 앞의 책, 199면

83) 반공문학적 문학 담론은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집이나 소설집에 이데올로기에 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강조하거나 아동문학의 반공주의가 이에 속하는데, 계몽적이고 선동적인 반공주의를 주입시키는 내용들이다. 1950년대 초에 출판된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전쟁문학집』, 국방부 정훈부 편, 1951. 은 반공텍스트들의 선집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텍스트에 황순원 소설은 반공적인 양상을 보인 작품이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신영덕은 황순원은 다른 전쟁체험세대 작가들과는 달리 전쟁독려 문학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연구하고 있다. 신영덕, 『황순원의 전쟁소설』,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142면.

84) 박용규는 “1950년 전후 황순원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무서움’이나 ‘공포’의 형상화는 황순원 개인사적인 체험과 불기분의 관계에 있다. 황순원 소설에 나타나는 ‘공포’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내면적 두려움이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편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나, 이에 완전히 동화되어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게 하는 사람들, 또는 날것인체로 나타나는 인간의 야수성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황순원의 소설이 이 시기에 많은 개작이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변모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억압적인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박용규, 앞의 책.

85) 김외곤은 전후세대는 전쟁이 모든 것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모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나 구세대는 단절된 역사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외곤, 『구세대의

이고 있는 것으로서 황순원은 식민지 말기의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 모두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식민지 말기의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모두 근대의 폭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주의라든가 전후의 반공주의는 작가를 억압하고 규율한 외적 환경이었고, 한국 문학의 높은 성취는 그에 대한 작가들의 부단한 노력과 도전과 극복의 산물이다.”⁸⁶⁾ 황순원의 소설 속에서는 남한 생활의 억압기제로 작용한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적극적인 동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찬반의 양태보다는 전쟁에 의해 희생당한 인간 삶의 형상화에 대해 더 치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월남과 한국전쟁의 거대하고도 실존적인 체험이 황순원 글쓰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작가의 소설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작가가 살아온 일제시기, 해방기, 한국전쟁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사실적인 유랑의 삶에서 형성된 것으로 ‘유랑의식’은 작가의 삶의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역사적, 사회적 현실 속에 수용되지 못하는 작중 인물의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배반하고 학대하는 것이 굴곡진 한국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황순원은 소설 속에서 전작하는 개인의 삶을 통해 당대의 사회와 역사를 은폐시키는 한편 역으로 ‘유랑의식’을 통해 이를 노출하고 있는 것⁸⁷⁾으로 드러난다.

2. 엄격한 문학생신과 세계

황순원의 문학활동은 1930년(16세)에 매일신보에 동요와 시를 투고한 것에서 시작하여 이듬해인 1931년 7월에 『동광』 지에 「나의 꿈」, 9월에 「아들아 무서워 말라」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한다. 이듬해인 1932년 『동광』에 「넋 잃은 그의

전쟁문학에 나타난 중립적 시각과 윤리의식」, 『한국학보』 제 16권, 1990, 12면.

86) 강진호, 「반공사회의 규율과 문학의 증언」,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228면.

87) 김병익은 개인의 삶이나 내면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도외시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조건과 배경이 더 치열하게 음각되는 것이 문학의 논리라고 한다. 김병익, 앞의 책, 21-35면.

앞가슴을 향하여 힘있게 활줄을 당겨라」를 발표하여 주요한으로부터 김해강, 모운숙 등과 함께 신예 시인으로 소개되었다.

황순원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제2고등학원에 다니면서, 1934년에 제1시집 『방가』를 출판했으며, 1936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동인지 『창작』에 시와 소설을 발표했으며, 5월에 제2시집 『골동품』을 발행하게 된다.

황순원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①나는 판을 달리할 적마다 작품을 손봐 오는 편이지만, 해방 전 신문 잡지에 발표된 많은 시의 거의 다를 이번 전집에서도 빼버렸고, 이미 출간된 시집 『방가』에서도 27편 중 12이나 버렸다. 무엇보다도 쓴 사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읽힌다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빼버리는 데 조그만치도 미련은 없었다. 이렇게 내가 버린 작품들을 이후에 호사가가 있어 발굴이라는 명목으로든 뭐로든 끄집어내지 말기를 바란다.⁸⁸⁾

②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팻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⁸⁹⁾

③자기 속에 최상의 독자를 키우는 것이 작가의 해야 할 의무의 하나다. 칠순이 되었다. 앞으로도 작품을 쓸 의욕은 변함없이 갖고 있다. 하지만 작품이란 의욕만으로 되는것은 아니니, 작품다운 작품을 쓰지 않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작품다운 작품을 쓰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안 쓰는 편이 낫다는 작가적 양심이 그저 쓰고 싶다는 욕심 앞에 제발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⁹⁰⁾

위의 인용문 ①,②를 통하여 황순원의 개작과정에 대한 작가 정신과 문학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한 편의 작품도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는 작가 정신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항상 교정하고 수정하여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성과 결벽성을 추구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의 인용문을 통해서 작가 황순원의 예술의 완결성과 그 완벽성을 향한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작품다운 작품을 쓰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안 쓰는 편이 낫다는 ‘작가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작품다운 작품을 쓸 수 없는데 이를

88) 황순원,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29면.

89) 황순원, 앞의 책, 36면.

90) 황순원, 앞의 책, 23면.

만의 작품을 내 놓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의 완결성에 대한 지향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작의 완벽성은 황순원 문학세계의 예술적 성취를 위한 작가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활동에 대해 작가는 “작가의 의식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무의식의 세계를 그릴 때도 작가는 그걸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⁹¹⁾라고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작가정신을 그간 평자들이 그의 문학에 ‘장인정신’의 소산이라 불렀던 것도 그의 문학적 완결성에의 집념을 말한 것에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작가 자신은 “나는 넘치는 감정의 뒷받침 없이는 작품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더러 장인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받아들일 말인지 아닌지”⁹²⁾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말은 ‘장인정신’이 그의 창작과정에 대한 지적기교의 세련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창작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넘치는 감정’에 의해 문학을 창작하였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의 성실성은 그 ‘넘치는 감정’의 완결성을 향한 작업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장인정신’이라 일컫는 지적작업의 세련성에 준하는 말을 듣는 것에는 흔쾌히 동의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황순원은 『문학사상』 과 했던 단 한 번의 대담과 두 번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신문 연재소설 청탁도 거절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작가는 ‘활자화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작품의 독립된 생명을 스스로 지니게 하기 위해서와 작품에 대한 독자의 자유스러운 감상을 작가로서 방해하지 말자는 생각’⁹³⁾에서였다고 한다. 재직하고 있는 경희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고 했을 때 “소설가는 소설가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사절했다. 또한 황순원은 은관문화훈장도 “받고 싶지 않으니 받지 않을 뿐”이라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러한 황순원을 아는 그의 측근에서 “원래 그는 문학 이외의 일에 참여하기를 극히 꺼려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⁹⁴⁾ 황순원은 평생을 교수직과 예술원 회원 이외의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았다.

91) 황순원, 앞의 책, 36면.

92) 황순원, 앞의 책, 29면.

93) 황순원, 앞의 책, 36면.

94) 「문화훈장을 거부한 황순원」, 『문학사상』, 1996, 12. 152-158면.

황순원이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이십삼 세 때의 단편소설 「거리의 부사」를 『창작』 제 3집에 발표한다. 이후 1940년에는 그의 최초의 소설 단편집 『늪』(간행시의 표제는 『황순원 단편집』)을 간행했는데, 이 시기의 소설들은 집필 시기가 기록되지 않은 작품들로 시에서 소설가로 전환한 시인의 체취가 가장 많이 담긴 작품이다. 황순원은 이와 같이 시에서 소설로 방향전환을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 생각에 시를 가지고는 생각을 다 펴기 힘들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아마 내 체질에 맞는 장르로 자연스레 옮겨간 것 같다. 문학의 근원, 아니 예술의 근원은 시에 있다고 본다. 나는 당시나 지금이나 소설 속에 더 넉넉한 시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소설을 써 왔다.⁹⁵⁾

황순원은 자신의 장르이행이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를 가지고는 생각을 다 펴기 힘들어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체질에 맞는 단편에서 장편으로 그 문학적 장르의 확대와 심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의 문학세계가 장르 이행에 따른 뚜렷한 단절의 현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황순원의 문학세계가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서 점차 외부현실에 대해 그 문학적 대응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실현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황순원의 소설은 한국근대사의 여러 곡절들을 수렴하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순원은 한국소설사에서 그 예를 발견하기가 드문 일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황순원의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의 소설들이 당대의 현실과 긴밀하게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은 해방되기까지 『황순원 단편집』과 단편 「별」(1940)과 「그늘」(1941)을 발표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발발(1941. 12)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극도로 강화되었고, 「그늘」 이후 한글 말살 정책에 의해 작품을 현실에서

95) 송하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왜 노크하냐고 묻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작가세계』, 1995년 봄호, 53면.

발표할 수 없게 되자, 그 당시 창작한 작품들을 벽장에 넣어 두었다가 해방 후 출간된 『기러기』(1951)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해방 후 1947년에는 작가의 최초의 장편소설인 『별과 같이 살다』를 부분적으로 독립시켜 잡지에 발표하였고, 1948년에는 해방 후의 단편들을 모은 『목님이 마을의 개』를 육문사에서 간행하였다.

『기러기』가 출판되기는 51년이지만, 거기 수록된 작품들이 씌어지기는 40년에서 해방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그 어두운 시기에 황형은 언제 햇빛을 볼는지 모를 작품들을 썼던 것이다. 『기러기』 서문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이 작품집에 들어 있는 「별」과 그들만은 그런대로 해방 전에 햇빛을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열세 편은 “그냥 되는 대로 석유 상자 밑이나

다락 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락방이나 석유 상자 속에 틀어박혀 있어야 할 만큼 당시에 글을 쓴다는 것은 다시 없는 어려움이었던데, 최대한으로 당겨진 시울처럼 팽팽하고도 햇빛에 찬란히 빛나는, 고치에서 갓 뽑혀나오는 명주실처럼 아름다운 글들이 씌어진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본다.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황형의 작가로서의 성숙은 이 시기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⁹⁶⁾

일제말기의 어지러운 정국을 피하여 1943년 고향으로 소개(疏開)해 갔던 황순원의 작가로서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글이다. 그는 소설 창작활동을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소설가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소신하에 올곧게 삶을 영위한 작가로서, 일제의 한글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 발표될지도 모를 작품들을 꾸준하게 창작했다는 것에서 작가적 의지와 비장한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세속적인 것에도 흔들림 없이 황순원만의 문학세계의 특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순원의 정신적 자세에 대해 원응서는 “한 마디로 황형의 성격은 자꾸만 위를 향해 올라가는 대나무와도 같다고 할까, 또 번거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랄까, 물론 때가 때인 만큼 모래더 시절은 여럿과 어울려 다니는 걸 즐기지 않았다기보다도 꺼려하는 편이었다. 워낙 직설적인 성미여서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아서인지 몰랐다. 나는 그의 직설적인 데가 좋았다. 그의 그것은 우격적인 직설이 아니라 사리에

96) 원응서, 앞의 책, 252면.

합당한, 언제나 바른 말에 가까웠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이 분명했다.”⁹⁷⁾라고 작가 황순원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그의 성격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원응서의 글에 나타난 황순원의 성품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작가의 문학적 세계나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귀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작가가 1950년대 발표된 작품들에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단편집 『학』, 『곡예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황순원의 자전적 경향이 짙은 장편소설 『카인의 후예』(1954)가 창작되었고,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고아들에 대한 『인간접목』(1955)과 작가의 유일한 중편인 「내일」(1956-1957),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창작된 실존적 주체의 삶을 다룬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이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발표 이후에 황순원과 백철은 작가의식과 시대상의 반영에 대한 일대 논쟁을 하게 된다. 일체의 잡문을 쓰지 않고 작가적 자세로 일관하던 황순원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작가의 생애에서 중대한 문학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작가의 창작기법이나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발표 이후에 황순원과 백철은 작가의식과 시대상의 반영에 대한 일대 논쟁을 하게 된다. 일체의 잡문을 쓰지 않고 작가적 자세로 일관하던 황순원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작가의 생애에서 중대한 문학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작가의 창작기법이나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백철은 동아일보 12월 9일자에 「전환기의 작품 자세」라는 논평을 통해서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는 소설이 “서스펜스의 긴장된 장면 전개, 적은 대화를 활용한 장면의 전환” 등의 생생한 묘사를 보여 주고 있지만, 작품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연속성과 종합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세부묘사를 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 4·19의 역사적 사건을 넣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황순원은 「비평에 앞서 이해를- 백철씨의 「전환기의 작품 자세」를 읽고」라는 반박문을 12월 15일자 한국일보에 발표한다.

97) 원응서, 앞의 책, 255면.

비평가란 인상비평이건 분석비평이건 간에 (뉴크리티시즘도 예외일 수 없다) 우선 대상 작품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기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백철씨는 남의 작품을 이해는커녕 그 줄거리조차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면 씨의 상기 글 가운데 “.....선우상사가 죽을 때의 되풀이한 대사.....” 운운한 구절이 있는데, 대체 『나무들 비탈에 서다』 라는 작품 속 어디에서 ‘선우상사’가 작자도 모르게 죽는다는 말인가. 죽지도 않는 그가 죽으면서 되풀이한 대사는 또 어떤 것이었던 말인가.

그리고 씨의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가령 거리를 가는 여자(숙이)의 구두 뒤꿈치에 신문지 조각이 묻어다니는 것의 묘사.....” 이 부분의 묘사가 “트리비얼리즘을 범했다”는 씨의 평어로 보아 이 대목을 씨는 꽤 정독한 것으로 본다. 그러고도 거리를 가는 여자를 ‘숙이’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문을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숙이’는 이 소설의 여 주인공이다. (중략)(12:323-326)

라며 “백철씨는 남의 작품을 이해하기는커녕 그 줄거리조차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이에 대해 백철은 1960년 12월 18일자로 한국일보 지면을 통해 “작품 전체의 수상이 완료되어 쓰기 시작한 글”이라는 황순원의 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문학적 태도가 고전주의적인 것임을 비판한다.

이에 대해 황순원은 1960년 12월 21자 같은 지면에 「한 비평가의 정신 자세—백철씨의 「소설 작법」을 도로 반환함」을 통하여 백철이 반박한 구체적인 항목들인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남자주인공의 이름 ‘헌태’가 ‘형태’로 잘못 지칭되고 있는 것과 여주인공 ‘숙이’를 거리의 여자와 혼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과 “트리비얼리즘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문을 통해 노우라고 명확히 대답했다는 점, 그리고 ‘선우상사’의 계급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아닌 ‘선우’라는 성을 가진 작중 인물이 어디서 죽는지 알려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 간단한 물음의 센텐스조차 판독치 못하는 비평가가 어떻게 “작품의 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냐며 동문서답하는 백철을 두고 “백씨는 비평가로서의 성실성은 고사하고 한 자연인으로서의 성실성마저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토로

한다.

또한 “백씨의 이른바 ‘소설 작법’ 론인데, 대체 이 글에서 씨는 시론을 하려는 것인지 소설론을 하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면서 백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백철이 ‘4·19를 넣어야 했다’ 라는 발언에 대해,

내가 플로베르와 같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는 벌써 끝의 행고(行句)를 예상하고 쓰는” 작가가 아니고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첫 장면에서 끝 장면까지 그렇게 확고하게 처음에 구상한 대로 되는가“ 하는 씨의 반문대로 내가 처음 구상한 것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작가라 할지라도 4·19 때는 이미 내 소설의 제5회분이 인쇄중에 있었고 제6회분 원고를 잡지사에 넘기려던 때이었기 때문이다(이에 관한 사정은 잡지에 글을 써본 백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1회분을 가지고야 내 작품에 ‘필요’로 하고 또 거기까지 “연장되는 것이 필연성”이라고 느꼈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백씨가 말한 대로 ‘낡은 작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씨가 제시한 “그런 이미지중심의 창작법은 구심점으로 이동될 수 없고 원심적인 것으로서 마치 ‘돌아가는 불꽃 바퀴’와 같이 불꽃 이미지들을 밖으로 날려 떨어뜨리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조직되어가는 것”을 소설작법으로 삼는 새로운 작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12:330)

라며 “아무데고 4·19를 갖다붙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요즘의 씨의 정신자세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냉혹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철은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않아 이 문제는 종결된다.

이 논쟁에 대해 “현금의 작가로서도 꼭 반성해봄직한 창작방법론의 몇 가지와 외국 작가의 인용에 있어서의 영성함을 반성하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⁹⁸⁾라고 생각되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 논쟁을 돌이켜볼 때, 다른 모든 소설적 가치들을 제외하고라도 작품의 총체적 완결성에 관한, 한 가지 세계를 치밀하고 일관되게 제작해 온 작가의 반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논리도 작성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⁹⁹⁾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확고한 문학적 태도와 작가의 정

98) 이보영, 앞의 책, 297면.

99) 김종희, 앞의 책, 24면.

신을 알 수 있다. 원응서의 지적대로 황순원의 성격은 직설적이면서도 사리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과 좋은 것과 싫은 것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장편소설 『일월』은 1962년부터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64년에 완성되어 창우사에서 간행되는 제6권에 실리게 된다. 황순원은 『일월』로 1966년 3·1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또한 1968년에 『움직이는 성』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완성하였고, 마지막 장편소설 『신들의 주사위』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 완간하게 된다. 그리고 황순원은 이 작품으로 1983년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을 수상하게 된다.

황순원은 『움직이는 성』을 창작하고 난 이후, 1972년 『문학사상』 통권 2호(1972, 11월호)를 통하여 자신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유랑민근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선생님께서 『움직이는 성』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글세…… 겉으로 보기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外來宗教(기독교)와의 갈등이나 상극, 또는 수용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를 그리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流浪民根性을 그린거야.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건 건전한 계승이 없어. 歷史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부단한 침략으로 정착해서 안정감 있게 전통을 유지해 승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流浪民根性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流浪民根性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되는데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말하자면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정착이 되고 안정이된 사회나 국가의 사람들은 음식점을 가더라도 몇 대를 이어오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新裝開業만 찾아 다니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쪽에서 보더라도 해마다 新裝開業 간판을 붙여야 손님이 찾아들지 아무 소리도 없이 음식만 팔아 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위의 인용문은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유랑민근성’에 대한 대답이다.

이는 황순원 자신이 한국인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유랑민근성’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랑의식’에 작가가 의식하고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은 “작가가 작품을 하나 창조해 놓으면 그 작품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 생명체가 몇 십 년 몇 백 년 읽혀진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갈 만한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따라서 작가는 작품 속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한다¹⁰⁰⁾라는 언급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1985- 1988년까지 여섯 차례의 「말과 삶과 자유」에서는 에세이 형식의 글을 발표했으며, 1992년에는 「산책길에서·1」, 「죽음에 대하여」 등 여덟 편의 시를 『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 그의 문학적 업적은 시에서 시작하여 시로 환원하는 것에서 매듭을 짓는다.

100) 황순원 「유랑민 근성과 시적근원」, 『문학사상』, 1972, 11, 315면.

Ⅲ. 상실감과 유랑의식의 형상화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그의 전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발견되는 통일적 흐름이란 작품세계 전체를 생성적으로 조직하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는 총체적으로 인간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이라고 할 작가의 역사성을 함축하므로, 그러한 통일적 흐름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 자체가 그 작품의 진정성의 표징이 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¹⁰¹⁾이다. 민족의 수난사와 인간 삶의 문제는 황순원 소설의 전체성 속에서 언제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황순원 소설은 역사와 현실 앞에서 운명을 담담히 수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이는 정신적인 갈등과 시대에 흔들리며 유동적인 삶을 사는 작중인물의 정착하려는 의지가 '유랑의식'으로 형상화되어 드러난다. 황순원의 '유랑의식'은 그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정신적 현상으로 작가에게 '유랑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작가가 경험했던 삶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구성된 것으로 드러난다.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작가가 살아온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상실감은 그의 작품에서 세 가지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근원적인 상실감이다. 식민지인으로서 근원적인 조국의 상실감은 작가로 하여금 일상에 안주할 수 없는 인물을 창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배회를 통해 작가는 그가 동경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전통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일체에 대한 대립적인 문화로서 민족의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실감이다. 이는 해방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작가가 경험한 시대적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작가는 작중인물을 통해 모든 것에서 박탈, 분리, 추방되어진 삶을 형상화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들을 창작하여 남한에서의 유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유랑의식'은 작가가 의식하고 소설에 형상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육친

101) 허명숙, 「황순원의 상상적 특질과 그 역사성」,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0, 12,

적인 상실감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희망과 조국과 고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에서 모성성을 찾아 헤매는 작중인물의 삶은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작가의 의식이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잃어버리고 찾고 싶은 것, 부유하는 것에서 정착하고 싶은 것, 지향하는 것과 사라진 것,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통해 또 다른 긍정적인 ‘나’를 찾아가는 것의 경계에서 ‘유랑의식’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한국의 굴곡진 역사에 따라 변모되어 나타나는데, 시대적인 사회현상에 따라서 작가가 작품에 추구하는 욕망에 따라 그 실현의 양상 또한 달라지고 있다.

1. 근원적인 상실감과 정체성 찾기

황순원 소설에서 근원적인 상실감의 의미는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당대의 현실인식은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근원적인 상실감의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과행을 거듭한 시대적 현실이 그 기저에 있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그의 작품에서 단지 정착과 반대되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유랑의식’은 작중인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현실에서 상실한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그가 동경하고 지향하는 것, 즉 작중인물의 내면의 갈등을 통해 또 다른 긍정적인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계에서 생겨난 것이다.

1) 부조리한 일상과 탈출의지

일제식민지 시기의 ‘유랑의식’은 자국의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인의 정체성에서 형성된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일본제국의 영토로 영구히 병합하기 위해, 조선의 정신과 문화를 일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거창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전통사회에 근대적인 시장경제제도를 이식했으며, 공업화를 추진하고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근대의 물결은 시장을 넘어 인간 개체와 그를 둘러싼 사회조직의 구

석구석까지 미쳤다. 이 시기의 한국은 인간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과 상으로 나누었던 신분제가 최종 해체된 시기였다. 이렇게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는 전통과의 접맥과 충돌로 인해 경제, 사회, 사상, 문예의 여러 수준에서 전개된 융합의 양상은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수세대의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변이를 이룰 뿐인 정신세계에서 그러했다. 융합의 최전선에 놓인 관계로 정신세계가 일본적으로 바뀐 적극 협력자의 수도 적지 않았으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조선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뚜렷이 자각해가는 조선인의 집단적 정신세계에서의 동향도 못지않게 뚜렷했다.¹⁰²⁾

이러한 융합은 식민지인에게 ‘동화와 차별’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일제시대에 창작된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이 형성된 배경이다.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식민지 지식인은 자기부정과 정체성 형성에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의 의식이 결코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과 방황이 ‘소외되고 고독한’ 개인의 심리 내면의 묘사에 의해 시작되고 그런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모색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랑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고국이 있지만, 그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과 식민지인으로서의 근대교육을 받은 근대 지식인들은 자신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유랑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의 초기소설에는 식민지 지식인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고독, 권태와 허무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문학의 출발이 실존적 존재로서 부조리한 생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순원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방 전에 쓰여진 작품들이 실려있는 『늬』과 『기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늬』은 황순원이 일본 유학시절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을 담고 있으며, 작가의 청년기로서의 지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근대문물을 환기하는 장면들은 능동적으로 선택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경험한 배경으로서의 시대상황과 작중인물의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창작된 『늬』과 『기러기』에서는 식민지인으로서 ‘동화와 차별’을 선택해야 하는 작가 황순원의 고뇌와 갈등이

102) 이영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58-59면 참조.

드러나고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차별’을 지향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격적으로 단편소설을 창작한 「거리의 부사」(1937)를 통해 드러난다. 일본인인 여주인은 작중 주인공인 승구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한 집에 살기를 거부한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타인에 의해 융합되지 못하고 ‘차별’화 되는 상황에서 승구는 자신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항거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국가의 상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현실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승구는 무기력한 정신적 퇴행 속으로 그를 몰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승구는 현실에서 받는 부당한 ‘차별’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현세를 뿌리치고 이상적인 지운을 ‘자아’를 선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현실에서도 ‘나’의 이상적인 내일을 위하여 내리는 결론이다.

황순원의 초기 소설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의 행동을 추적하는 서사적 진행의 빈번함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근원적인 고국 상실감으로 인해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과 방황이 주인공의 배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적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은 황순원의 초기 소설의 주인공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현실에 대한 환멸에서 야기되는 ‘삶의 권태’¹⁰³⁾로부터 시작된 인물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배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황순원 초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의 지식인 청년이 뿌리내려 정착하고 싶은 소망은 구체적으로 집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황순원 소설에서 집의 의미는 고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속의 많은 공간들은 집을 배경¹⁰⁴⁾으로 하고 있거나, 집을 구하는 내용의 소설이 많이 존재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행복과 안식을 구하는 것은 안주에의 갈망을 나타내는

103) 이보영은 황순원의 문학의 출발이 삶의 권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권태의 기저에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환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게 어떤 구제의 모랄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감각적 탐미 속에 탈출구를 찾은 게 아니라 오직 권태 속으로만 침잠해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권태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 황순원 문학의 특질 중의 하나이라고 생각한다.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36면

104) 「집」, 「두꺼비」, 「일월」, 「신들의 주사위」, 「움직이는 성」, 「카인의 후예」 등 집이 와해되면서 주인공들이 출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갈등이나 비판의식이 ‘유랑의식’으로 드러난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집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소외’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중인물들이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유랑의식’을 만들어내는 공간적 배경으로 묘사된다.

「허수아비」는 절망감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립되는 가치를 모성에서 찾는 황순원 문학의 단초를 「허수아비」를 통해 발견해 낼 수 있는데, 「거리의 부사」에서처럼 차별화된 식민지 근대화를 경험하고 배운 소설의 주인공 준근의 내면의식을 통해 지식인의 병든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도시에서 얻은 병을 시골의 건강한 삶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준근이 찾아온 시골은 가난으로 인해 삶이 폐쇄된 공간이다. 「허수아비」가 탄생된 시간적 배경이 일제말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일제의 공출에 의해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한 궁핍에 처해 있었던 것이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소설을 읽는다면 도시에서 병을 얻어 시골로 돌아온 준근이 시골생활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될 수 있다.

「허수아비」는 소심하고 병든 준근의 권태로운 시골 생활을 배경으로 그의 의식 속에서 도시/시골, 병든/건강함, 불임/생명이라는 이원적인 세계의 경계에 서서 ‘유랑하는 자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준근은 위에서 열거하다시피 두 세계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개인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세계를 지향하는 준근의 희망은 궁핍에 처해 있는 시골 생활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만다. 도시의 삶에서 병을 얻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시골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준근에게 시골 생활의 즐거웠던 경험은 건강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에서만 가능한 공간으로 이미 상실된 공간이다. 병을 얻은 도시의 삶과 건강성을 지향하는 시골의 삶은 준근에게 있어서 권태만이 가득한 공간에 다름아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곁도는 준근의 행동은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들이나 산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소외시킨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아버지가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것같이만 느끼”(1:32)는 것에서도 나타나며, 준근이 있는 냇가에 아이들이 놀러나오는 것을 보고 “침입자”(1:35)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준근은 시골 →도

시로 회상을 통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회상을 ‘유랑의식’으로 보는 것에는 그의 행동이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시골에서는 산과 들로 배회하며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도시의 생활에서는 거리의 여자인 남숙과 함께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준근의 삶이 ‘떠도는 정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대로 정착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준근의 건강성에 대한 지향은 명주를 통해 느끼는 ‘현기증’에서 나타난다. 준근이 명주에게서 느끼는 ‘현기증’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건강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시골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어릴 적 소꿉질 동무인 빈농의 딸 ‘명주’를 보면 그녀의 투박하면서도 원시적인 생명력에 ‘준근’은 향수 같은 것을 느낀다.

곧 청년은 조밭에 그냥 남은 허수아비에 가리워지곤 하면서 수수밭을 돌았다.

허수아비 어깨에 산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마을로 날아가기도 하는 참새와 메뚜기의 그림자가 무성하게 떨어지곤 하였다.

준근이 햇볕을 안고 눈을 감으면 참새며 메뚜기의 그림자가 자기를 겹겹이 둘러쌌을 느꼈다. 준근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참새와 메뚜기의 그림자는 흰 눈이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이었다. 눈보라였다. 눈으로 어깨가 무거워 준근이 눈을 떴다.

높은 하늘과 햇볕이 준근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준근은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다.

옆 도랑에 흰 썩은 물에 날개가 찢긴 잠자리 한 마리가 꼬리를 담그면서 날았다.

준근은 조요히 잠자리의 꼬리가 지어놓은 썩은 물의 약한, 그리고 둔한 파문을 지켜보면서 거리의 남숙에게 다시 온전한 여인이 되라고 하리라는 결정을 지었다.

먼 조밭 속에도 허수아비가 서있었다.(1:45)

그러나 명주를 통해 건강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준근의 욕망은 극서와 명주의 결합으로 깨어지고, 자식을 낳고도 아내와 이혼한 ‘서울 청년’의 돌아가는 뒷모습이 ‘허수아비’와 겹쳐지면서, 자신 또한 ‘허수아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 식민지

고국의 현실로 인해 도시나 농촌에서 정착할 수 없게 된 ‘준근’의 심적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허수아비’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높은 하늘과 햇볕’이 주는 생명력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살고 싶다는 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준근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을 하게 됐던 거리의 여자 남숙에게 ‘다시 온전한 여인’이 되라고 하리라는 결정을 지은 것에서 반전을 갖고 있다. 즉 부조리한 현실에서 모성만이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옆도랑에 핀 썩은 물에 날개가 찢진 잠자리 한 마리가 꼬리를 담그면서 날”(1:45)아가는 것처럼, “다 썩어 문드러져 절망만이 느껴지는 현실이라 해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그는 새롭게 확인한다. 도시라는 문명 세계에 살면서 병들고 상처입은 자신과 ‘남숙’도 다시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¹⁰⁵⁾이 준근의 희망이 놓인 자리로 남숙의 모성성에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은 외출의 낭만적 성향과는 거리가 있다. 그의 소설에서 집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상적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의 배회가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겨우 집 주위를 맴도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부조리한 현실에서 안주할 수 없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이곳, 저곳,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배회하며 다니는 것은 방황하는 내면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은 인간관의 관계 단절과 어느 세계에도 합류될 수 없는 작중인물의 불행한 내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태평양전쟁말기를 배경으로 창작한 자전적인 성향이 짙은 「내 고향 사람들」(1961)을 통하여, 황순원 소설에서 집주위의 배회가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배회는 작가 황순원의 일상에서의 한 특징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대학 시절에 낸 두 권의 시집과 졸업 후에 낸 단편 소설집”(4:134)을 낸 적이 있으며, 주재소 주임의 감시와 시선 속에서 “더딘 붓으로나마 쓴 작품 초고들을 벽장 속에 챙겨 넣어두곤” 했던 작가 황순원의 삶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재소 주임의 감시를 받는 식민지인으로서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을 삭이기

105) 광경숙, 「황순원의 초기 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국제어문학회 제 48집, 257-275면.

위해 몸이 피곤해질 정도로 산 속을 싸돌아다닌다. 억압적인 현실에서의 배회는 몸을 괴롭힘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려는 일종의 자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곤의 정도가 더하면 더 할수록 어떤 충족을 느끼게 하는 자학으로 드러난다. 즉 고향사람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지식인인 ‘나’는 ‘나’ 스스로의 육체를 힘들게 함으로써 그 피곤의 정도가 더하면 더 할수록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나’의 배회를 통해 ‘나’는 김구장의 삶을 관찰하게 되고 일본의 학도병으로 나가게 된 아들을 염려하면 할수록 절제된 생활을 하던 김구장의 생활이 금이 가고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고향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을 서술한다. 이러한 ‘나’의 배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김구장의 타락하는 삶은 일제말기의 이 소설에서는 태평양전쟁의 공출로 인해 농촌 삶이 황폐화 되는 과정¹⁰⁶)과 이에 따른 조선인의 삶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에 대해 소설로서 형상화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갖게 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황순원의 시각은 전전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후소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한국전쟁 이전의 일제말기의 태평양전쟁 체험에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 등장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들은 부조리한 일상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뚜렷한 방법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한 개인의 내면을 통해 발현되는 작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수용하고 그것에서 삶의 신념이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이 황순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의 불행한 내면의식으로 인해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로 「지나가는 비」의 섭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섭이는 강가→바(회상)→거리→[거리→매의 하숙방(회상)] →거리→송암선생댁→거리 →매의 하숙방으로 안과 밖

106) 도시에 못지않게, 아니 시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쟁이란 것이 피부에 느껴졌다. 이미 농촌에 농한기란 없었다. 공출이 일단 끝났는가 싶더니 아직 책임수량에 미달이라고 군청과 경찰서에서 독려대가 나와 농민들을 들볶아댔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어떤 기간을 두고 파상적으로 나와서는 동네를 벌컥 뒤집어놓곤 했다. 한겨울에 계량이 떨어진 농가가 여기저기 생겼다.(4:132)

의 배회하며 현실과 회상의 경계에 서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섭이의 방황과 갈등은 사생아였던 섭이의 근원적인 상실감에서 시작된다. 또한 또 다른 사생아의 어머니인 매의 행동도 “홀에서 다른 빠루, 또 다른 거리루.”(1:98) 배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섭의 연인인 연희도 섭과 대현 사이에서 사랑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중인물이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며 ‘유랑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대적 현실¹⁰⁷⁾에서 오는 어떤 근원적인 상실감이 이들을 떠돌 수밖에 없는 인물로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나가는 비」에서 섭이의 내면심리를 드러나게 해 주는 매개체로서 연희와 매를 들 수 있다. 연희나 매는 바의 여걸로서 생활을 지탱해나가는 인물들이며 매는 모델이라는 직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여성인물을 통해 섭은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안과 밖을 배회한다. 연희와 매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하는 것에는, 사생아였던 섭의 어머니가 바의 여걸로 “내가 바로 이런 데서 난 사생아”(1:97)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섭은 사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청년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근원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이미 병든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자신이 사생아라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큰 탓에 “다음 세달 만들 여잘 저같은 게 가르칠 것같지 않”(1:101)다고 하면서 송암선생의 제시한 여학교 선생님을 거절해 버린다. 즉 섭 자신은 이미 상처받은 인물로서, 다음 세대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엔 이미 정신이 병들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송암선생 댁에서 돌아나오던 길에 섭은 송암선생의 손녀딸인 소녀에게 붓꽃 한포기를 얻어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만 붓꽃 포기를 길위에 내려놓고”(1:101)서 “누구한테 집히어야 이 붓꽃이나마 잘 가꿔질”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여학생이 섭의 옆을 지나 붓꽃이 있는 데로 다가가자 “여학생이 붓꽃 포기를 집나 안 집나의 결과를 알기 전에 그 골목을 쟈 걸음으로 빠져나오고” 만다. 이러한 섭의 심리는 사

107) 황순원의 「지나가는 비」가 실린 『눈』은 1940년 8월에 『황순원단편집』이란 표제로 간행되었다. 황순원이 1939년 3월에 동경 화세다 대학을 졸업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지나가는 비」가 창작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시기는 일제말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조국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작중 인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생아로서 버려졌던 자신의 과거를 재현해 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섭이의 어머니도 매처럼 “후에 사생아의 어미 자식 사이를 서루 알리구 싶지 않”았고 “애가 원망스럽기만”(1:102) 했을 수 있을 그 자신, 즉 섭이를 버렸던 어머니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노엽고 분노하는 감정을 분출시키는 행동이, 붓꽃을 길거리 에 버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섭은 자신도 모르게 회파람을 분다. 이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슬픈 감정을 분노로 표출시키고 나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깊이 상처나 있는 사생아 출신인 청년 섭의 병든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섭의 상처받은 마음은 매가 잃어버린 모성을 되찾아 가는 것을 보며 섭의 마음 또한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매는 탄력이 없는 젓가슴으로 인해 뒤로 돌아앉아야 되겠다는 화가의 말을 들은 이후에 모델 일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그녀가 모델로 생기가 있었던 시절의 육체를 그린 나체화를 찢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상해요. 애가 어디서나 잘 자라길 비는 마음이 됐거든요.”(1:102)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우레 없는 번개가 유리창을 찢며 지나”(1:102)가는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매의 내면의식과 자신의 내면의식을 동일화하고자 한다.

① “매씨가 사생아의 어머니라는 걸.”

② “비를 맞으면 되에 죽을지 모른다는 어항의 고기를.”

①’ “아까 송암선생 댁에서 연어가지구 나오던 붓꽃 포기를 길가에 내버렸는데 누구 가꿀 만한 사람에게 쥐워져 갔는지 어쨌는지 하는 걸.”

②’ “내가 연일 사랑하는 건 하는 거구, 연희가 자기 행복을 찾는 것도 제 자 유지요.”(1:103)

위의 인용문은 매가 잃어버린 모성을 되찾게 되면서 섭의 변화된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매가 술을 마시고서 어항의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마셔버리는 행위를 했던 것에서, 모성성을 찾고서는 어항 속의 물고기의 생명까지 걱정하는 어머니로 변화되는 것을 본 이후, 자신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붓꽃을 길거리에 버리고 회파람까지 불었던 섭이가 ‘누구 가꿀 만한 사람에게 쥐워져 갔는지 어쨌

는지'를 걱정하는 것과 연희를 사랑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연희가 행복을 찾아 대현과 떠난다 해도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매개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가는 비」는 「허수아비」에서처럼 '구름', '비'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자각할 수 있는 것으로 잃어버린 모성성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역들」은 '우울과 권태'에 빠져있는 젊은 인물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하루의 시작은 집이 아니라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조그맣게 자리잡은 이 공원"(1:55)에서 부인의 인상착의가 실려 있는 사람을 찾는 광고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부인이 그녀와 관계를 가졌던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며 목적없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작은 친구의 아틀리에→ 조훈의 집→ 식당→ 병원→ 영화관→ 찻집→ 스텐드바→ 거리로 끝맺는다. '그'가 이 공간들을 헤매면서 만나는 인물들은 용재, 조훈, 대웅 등은 '그'의 친구들로 일상을 소모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그'가 길거리와 영화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나는 조선인들의 삶은 한결같이 불행한 삶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와 '그'의 친구들의 방황의 정체가 결국 영화관의 화면을 통해 밝혀진다.

①새 화면 전체에는 재미같은 별레가 가득 차 움직인다. 아니 별레가 가득 차 움직인다. 아니 별레가 아니고 어떤 섬가에 내려앉은 날짐승의 무리가 아닐까. 그러는 사이에 화면은 점점 클로즈업되면서 날짐승같던 것이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간할 만큼 된다. 이재민의 때인가. 복지의 피난민이다. 저마다 그릇불이와 자루같은 것을 들고 먹을것을 나눠주는 곳으로 몰린다. 밀친다. 땡군다. 막 싸움판이다.(1:63)

②클로즈업된 화면에 지나가는 흡사 어떤 번잡한 지도와 같은 주름 많은 늙은이들의 얼굴과 찡그린 어린이들의 얼굴. 그는 문득 아까 진흙탕 속에서 꿩과 리를 울리고 복을 치고 하던 만주사람 일가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얼마든지 발견한다. 그리고 또 병원노인과 반신불수 소년을 찾아내고, 그러다가 언뜻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기 찾아내자 영화관을 뛰쳐나오고 만다.(1:64)

이렇게 '그'가 돌아다니며 목격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보는 영화를 통해

서 ‘그’가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서 연유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영화의 화면인 ①에서는 이재민과 복지의 피난민의 모습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물리고 뒹굴고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②에서는 화면 속의 늙은이의 얼굴과 찡그린 어린이들의 얼굴 그리고 반신불수의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모습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며 마침내 영화관을 뛰쳐나오고 만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그’는 시대적 현실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게 되는 동일시된 연대의식을 구현함으로써 삶의 저변에 깔린 인물의 심층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¹⁰⁸⁾

이 이상한 싸움은 결국 작은 편이 쓰러져 큰 편에게 매달리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끝막으리라. 그런데 지금 작은 편을 차고 물러서는 큰 편은 좀전의 스탠드의 거대한 사내가 아닌가. 그리고 작은 편은 조훈이고, 그가 어두운 골목 안으로 달려들어가기도 전에 또 넘어지면서 발에 매달리는 작은 편을 이번에는 큰 편이 겨우 뿌리치듯이 하고는 허둥지둥 달아나면서 그의 앞에다 중절모를 떨어뜨린다. 작은 그림자 쪽에서 조훈의 이상히 큰 짐승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솟아올라 그칠 줄은 모른다.(1:69)

이 소설은 ‘그’가 아닌 ‘그’의 친구인 조훈이 거대한 사나이와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훈의 저항은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심리적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 작은 편이 큰 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작은 편이 집요한 싸움에 의해 큰 편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황순원의 소설 속의 배회가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제에 ‘동화’가 아니라 ‘차별’화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후 단편 소설집 『기리기』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황순원의 후기 단편소설에서 배회는 부정적인 사회적 현실에 대한 환멸에서 야기

108) 장현숙은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인간이란 인생이라는 하나의 연극무대 위해서 저마다 아파하고 허무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제가끔 자신에게 배당된 하나의 배역을 연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장현숙, 앞의 책, 43면.

되는 '삶의 권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중편소설로 「내일」(1956년 1월-1957년 11월)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몇 가지의 '나'의 삽화가 '내일'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일'은 항상 '희망'이나 '기대'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 '나'의 경험 속의 일상은 늘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환경을 만든다. 그로 인해서 현실에 대처하는 '나'의 삶의 형태는 '권태'와 무관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마흔 셋의 남자로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 일생을 통해서 '희망'이나 '기대'가 어긋나는 삶만을 살아왔던 것을 상기하면서 번역 일에 거는 기대마저 깨져버리자 삶에 대한 무관심과 권태에 빠지고 만다. "이태동안이나 온갖 정력을 다 기울려 이루어 놓은 원고 몽텅이는 서재 한구석에서 날로 두터운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었다. 추고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만 치지고 무관심진 것이다. 남는 것은 권태뿐"(4:213)으로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시사물이나 흥미물을 번역하며 생활하고 있다. 언제나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현실을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방기하는 권태는 일체의 사물, 인간 및 자기자신마저도 무관심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황순원 소설에서의 권태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에서 야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공해온 학문을 좀더 의의있게 살리려고 번역문학에 손을 대지만 출판사에서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흥미위주의 책을 번역하라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환멸로 그 일상에서 오는 타성에 젖은 채 권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배회가 삶의 권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해 주는 소설이 「이날의 지각」(1974)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는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로서 날마다 같이 사는 창녀로부터 받은 사천원의 돈을 다 쓰기 위해 도심지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 '그'는 사천원을 하루 동안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소비해야 하며, 귀가 시간을 엄수해야 하고 잠자리에서 섹스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그'가 매일 아침을 담배를 사는 것을 시작으로 법원→다방→보신탕집→친구의 사무실→창경원→서점→다방→오락실→술집을 순서대로 배회한다. 이러한 방문에는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 일상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그'의 행적을 통해 권태가 가득한 사회의 일면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날마다 창녀와의 섹스를 위해 먹을 것만을 연구하던 ‘그’가 부조리한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거리의 사내들이 피워놓은 불빛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는 원초적 생명력에서 ‘그’는 젊은 날의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 날의 생명력을 환기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활을 찾아가게 된다.

2) 문화적 혼돈과 전통의식

작가 황순원은 단편소설집 『기러기』에서 전통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다. 『늪』의 탐색을 통해 황순원이 선택한 것은 일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지향한 것이다. 경계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조선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뚜렷이 자각해가는 조선인의 집단적 정신세계를 지향¹⁰⁹⁾하는 것이 작가의 정신세계이다. 『기러기』가 『늪』과는 변별되는 차이점은 『기러기』에 들어 있는 소설들이 단순히 소재가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것에 대한 지향이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늪』과는 다른, 소설의 내적 형식이 이야기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러기』에서 보이는 이야기체 형식은 단순히 기법적 차원의 시도라기보다는 경계 주체로서의 의식이 이 시기에 와서 민족¹¹⁰⁾에 대한 지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러기』의 소설세계가 현실과 유리된 비역사적 공간을 지향하는 것 같으나, 시대적 억압의 강도를 감안해 본다면 현실을 우회해야 하는 작가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식민주의자의 억압의 힘을 어떠한

109) 황순원 소설의 인물들은 강렬한 문명의 충격인 근대와 전통 사이의 경계에서 작중인물의 의식은 내면세계로 침잠하여 유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찾기의 결과로 자신의 고향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지향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기러기』의 세계의 상징인 전통적인 것, 토속적인 것, 실화적인 것에 대한 작가의 애착은 부정적인 현실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상상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들인데, 그것들의 공통성은 심미적으로 안온함을 찾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과거지향적인 것들이라는 점이다.

110) 이영훈은 ‘민족’이라는 단어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민족’이나 동일한 뜻의 다른 말이 없었다. 말이 없었음은 오늘날 그 말이 담고 있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식이 조선시대에는 없었거나 다른 형태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족’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널리 유포된 것은 1919년 최남선이 지은 <조선독립선언서>를 통해서였다. ‘민족’이라는 한국인의 집단적 의식도 그렇게 20세기에 걸쳐 수입되고 나름의 유형으로 정착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요 계기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한 한국인들의 소멸위기였다. 그에 따라 한국인들은 공동 운명의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로 새롭게 정의되었고, 그렇게 한민족은 일제의 대립물로서 성립했다. 이영훈, 앞의 책, 32-33면.

상징과 서술상의 형식적인 특질로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의미내용에 다가가기 쉽고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러기』를 창작한 시절은, 작가 황순원의 청년기로서 그의 문학의 기원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황순원은 일제말기의 검열과 탄압으로 발표의 지면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일본어로 친일 소설을 쓰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순원이 일제 말기 한글로 소설을 써 두고 간직했다는 사실이 식민주의자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한글이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민족을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기러기』는 『눈』과는 대타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¹¹¹⁾

황순원의 문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기준으로 전통과 근대가 역사적 대립의 양상으로 치환되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대립의 양상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품의 주인공들이 치열하게 자신의 숙명적 삶의 답을 찾기 위한 ‘유랑의식’이 대두된다. 근대를 경험하는 것은 잃든 좋든 자신의 문화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기에서 자기분열을 겪는 근대인은 자신의 주관적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문화적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상실된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사이에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로서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자각에 의해 한국 현실이 처해 있는 모순과 위기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계주체에게 문화는 심리적 연대감의 의미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이주(cross-cover)하면서 경계(border)를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에게, 문화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고향(home)에 귀속된다는 감각을 표현한다. 이 문화는 집합적인 주체와 개별적인 주체를 이음매없이 융합하는 동시에 집합체를 그 <외부>로부터 구별하고 그 <내부>의 계서체를 규정하는 분단의 경계선이기도 하다. 바꿔말해서, 경계는 민족이나 국민, 문화나 계급 성(性)이나 인종 등에 따라 구획된 집단들 사이의 범주적 차이를 분절화하거나

111) 삶에 대한 관조와 긍정적인 부정상과 모성상 그리고 옛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공간으로 토속적이며 서정적인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 「기러기」(1942)의 셋네, 「맹산할머니」(1943)의 맹산할머니, 「별」의 어머니는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억압하는 동시에 집단들의 상사기관(analogue)적인 관계를 상상 속의 정체성이나 대립으로 ‘물상화’한다¹¹²⁾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황순원은 일제식민지 말기에 와서 전통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다. 정체성 찾기의 ‘유랑의식’을 통해 황순원이 선택한 것은 일제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지향한 것이다. 경계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일제에 대립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집단적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작가의 정신세계이다. 이 시기의 작가의 현실인식은 은폐의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랑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다보면 작가가 작품 속에서 지향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편 「그늘」(1942)도 이러한 전통/근대, 한국적인 것/외래적인 것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전통적인 삶에서 근대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존재 양식의 변화를 유랑하는 자아의 내면을 통해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늘」은 친일문학이 아님에도 이 시기의 문학사에서 주목되어지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일제말기 문학사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만큼 중요한 작품임에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¹¹³⁾했던 것으로 일제에 의해 식민화된 근대를 경험한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갈등하는 청년의 내면의식이 드러난다. 황순원 문학에서 일제치하나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이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는 그것이 역사적 상황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보편화되어 작품의 내적 문맥 속에 은폐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사적 상황의 이전, 혹은 그 너머의 무역사성, 혹은 탈역사성의 세계로 뺏어나가는 작가의 미적·윤리적 상상의 세계는 결국 역사나 현실의 세계 속에 부재하는 것, 혹은 상실된 것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¹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항상 “구석구석 그늘이 깃들여 있”는 선술집이다. 여기에서 그늘은 “빛으로 인해 그늘이 지워지는 ‘어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어둠’은 1941년의 우리 민족의 현실 상황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그늘’ 속에 묻혀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¹¹⁵⁾이며, 또한 근대에 의해 파괴된 전통의 상실감

112) 강상중, 『오리엔탈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역, 이산, 1997, 197면.

113) 신회교, 「황순원의 『그늘』에 나타난 초점화 연구」, 『한국어문문학』 제4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346면

114) 박혜경, 앞의 책, 817면

을 느낀 청년의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근대의 도시문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평양의 선술집에는 청년 이외의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이 구성원들은 근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밝은 곳이 아닌 어두운 ‘그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그늘’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현실이 부조리한 세계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청년은 자신과 동일시된 남도 청년을 통해 근대와 전통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내면세계에 집착하여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전통을 지향하게 된다.

「눈」은 전통/근대의 경계주체의 심리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단편집 『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떨림’은 ‘새로운 문화 앞에서의 흔들림’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떨림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의 상태에서 발현되는 현상으로서 근대에 대한 호기심과 전통에 대한 거부감 등이 혼재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근대를 나타내고 있는 「눈」은 일제시대의 유학생살이 창작의 배경¹¹⁶⁾이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를 환기하는 장면들에 대해 주인공이 태섭의 ‘여윈 몸’은 육체의 병약함과 왜소성으로 인해 근대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수동적인 경험의 주체로서 표현된다.

이 소설에서 소녀와 어머니는 각각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와 건강한 소녀의 극단적 대립양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두 인물을 시대를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소녀의 어머니가 현재를 과거에 얽매어 살아가는 인물이라면 소녀는 현재를 부정하고 변화를 모색해서 현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소녀는 늘 달리기, 창던지기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신선한 근대적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당돌하게 태섭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에 태섭은 소녀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욕망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불행이 남편의 자유로운 애정행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녀도 연애를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떠나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115) 장현숙, 앞의 책, 208면

116) 황순원의 『눈』은 1940년 8월에 『황순원단편집』이란 표제로 간행되었다. 황순원이 1939년 3월에 동경 화세다 대학을 졸업한 점을 감안한다면, 『눈』에 나온 식민지시기 근대적 문물에 대한 경험이나 감정은 유학시절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대의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주체로 작중인물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죽기까지 모녀 단둘이 살다가 죽자고 다짐”(1:16) 시키는 것에 대해서 소녀는 반감을 갖는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받은 타격으로 보면 마땅한 일”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반감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 요새는 지난날의 가슴 아픈 사실을 되풀이하며 자식에게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만 애쓰는 어머니가 가엾게는 생각되지만 ‘그대로 좇아갈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1:16,17)는 소녀를 통해서 태섭이 갖고 있는 전통/근대 경계에서 ‘근대’의 편에 서있는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건넌방에 소녀가 한복으로 갈아 입고 꽤 얌전하게 앉아있었다. 소녀가 등진 벽에는 이제 바로 스타트하려는 단거리 선수의 사진이 한 장 걸려있었다. 앞으로 쏠리는 몸과 땅을 차려는 발끝과의 아슬아슬한 균형, 그리고 한 초점을 강렬히 노리고 있는 눈, 이러한 런닝 선수의 폼을 바라보면서 태섭은 소녀의 두꺼운 가슴이 테이프를 걸치고 골인하며 테이프 끝을 푸르르 날리는 장면을 머리에 그리고 저도모르게 여윈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태섭은 이번에는 다리를 한옆으로 모아 넓히고 앉았던 소녀의 풍만한 무릎으로 시선을 옮기다가 급히 거두면서 가까이 있는 교과서 하나를 막 집어 들고 뒤적이기 시작하였다.(1:13)

‘한복차림의 얌전한 모습’과 ‘단거리 선수의 사진’이 병치된 소녀의 방의 배경은 소녀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이다. ‘한복차림의 얌전한 모습’과 ‘이제 막 스타트하려는 단거리 선수의 사진’은 전통/근대의 문화를 표상하는 세계로 태섭의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태섭은 두 가지의 문화로 표상되는 경계에서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은 태섭의 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나’의 의식의 매개체로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가 피크닉을 가자는 제안하자 태섭은 “교외에서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는 소녀를 눈앞에 그리고 있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이 한복을 입고 나타난 소녀에게서 “소녀와는 다른 완전한 한 여인을 발견하고 당황스레 흐린 하늘로 눈을 돌릴 밖에 없었”(1:15)던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태섭의 욕망을 파괴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들 수 있다. 어머니는 늘 태섭과

소녀의 사이를 감시하는 것으로 태섭이가 근대의 문화를 지향하는 욕망에 제동을 건다. 소녀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배경에는 부정적인 부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의 탈출을 의미하지만, 태섭은 “결국 소녀가 요새 어머니에게 반항심이 생긴 것은 소년을 안 뒤부터이리라는 것을 깨닫고, 소녀에게 요즘 남자들의 속을 누가 알 수 있느냐는 말에 이르러 사실은 ‘지금 자기는 자기 자신의 속도 종잡을 수 없어’서 애쓴다”(1:18,19)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야기에 “소녀가 눈을 빛 내며, 신통히도 어머니의 말을 옮긴다”(1:19)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태섭의 갈등하는 내면의식 속에서 전통/근대가 동일선상에 섰음을 의미한다.

“소녀와 어머니 관계에서 소녀가 긍정되고, 소녀 어머니가 부정되었던 이 작품의 의미론은 ‘늬’의 공상을 통해 소녀의 파괴적 정열에 내재된 위험성이 예견됨으로써 소녀가 부정되고 소녀 어머니가 긍정되는 의미론으로 뒤집힌다.”¹¹⁷⁾ 소녀가 할 말이 있다고 태섭에게 늬가로 나와 달라고 하자 태섭은 소녀를 기다리며 늬가를 돌다가 “문득 자기의 그림자를 찾았으나 자신의 그림자는 검은 늬에 떨어져 분간할 수가 없”(1:20)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그림자는 ‘또 다른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전통을 부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전통은 ‘나’의 뿌리에 대한 심리적 연대감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태섭이 그것을 잊고 있음을 환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늬의 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아파트로 돌아온 태섭은 자리에 누워 며칠 동안 열로 떨면서 앓”(1:21)게 된다. 이러한 태섭을 찾아 아파트로 온 소녀는 나비날개 → 원앙새무늬 → 풍량이 일어난 바다 무늬의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것은 태섭에게 있어서 근대를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식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태섭은 이상한 현기증이 나서 베드에 주저앉”(1:21)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근대가 매혹적으로 다가왔고 풍량이 일어날 만큼 강렬했던 것을 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찾아온 소녀에게 태섭은 “짐짓 엄한 어 조로, 그런 광대놀음을 하는 소년 가운데 더 불량한 애가 많다고 하”(1:22)자 “소녀

117) 허명숙은 ‘늬’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긍정되었다가 ‘늬의 공상’ 이후에 소녀 어머니의 현실법칙을 따르는 태섭의 지향은 다시 소녀에 의해 부정적으로 제시된다고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허명숙, 앞의 책, 34면.

는 태섭이 자기의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며 눈을 빛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태섭이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소녀의 눈이 빛’난다는 것은 태섭의 의식 속에서 소녀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적 전통의 지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사실 소설의 문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소녀가 소녀의 어머니에게 반감을 갖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하는 태섭을 향한 소녀의 눈빛이 반감이나 경멸의 눈빛을 가져야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소녀가 태섭의 아파트에서 떠난 이후 “태섭은 무언가 안정된 심정으로 다시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가 주는 문화적 충격 앞에서 갈등과 방황을 하다가 전통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독짓는 늙은이」는 황순원 소설 『기러기』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노인들의 유형으로, 현재의 일상의 삶을 거부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질서를 지향하는 인물들의 표상이다. 이는 “근대적 물질문명에 의해 주변부로 내몰린 전통적인 요소들의 흔적을 찾아 그것과 일체가 되려는 경우”¹¹⁸⁾로 “일제말기의 폭압적인 고통의 현실 속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추구하려는 작가 자신의 정신적 고뇌가 내포된 작품”¹¹⁹⁾으로 읽어야 한다. 이 작품에서 독은 한민족의 삶의 바탕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설의 주인공에 있어서의 독은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 가치, 자존심, 희망이자 열정 그 자체, 의지의 결정체”¹²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것과 일체가 되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은 ‘독’이야말로 송영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순원 소설의 인물들은 근대적 물질문명에 의해 밀려나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의 흔적을 찾아 그것과 일체가 되려 한다.”¹²¹⁾

이 소설에서 송영감이 전통의 세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젊은 조수와 도망간 아내가 근대적 일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송영감의 집중 잡히지 않는 병은 이

118) 문홍술, 「전통지향성과 이야기 형식」, 『태릉어문연구』 제11집, 2003, 서울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4면.

119) 장현숙, 앞의 책, 92-93면.

120) 장현숙, 앞의 책, 92면.

121) 문홍술, 앞의 책, 293면.

미 근대문화에 의해 오염이 되어버린 전통문화를 상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송영감은 현실의 세계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인간이다. 자신의 반쪽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그의 직업세계에 있어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조수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것은 송영감에게 있어서 그의 집중 잡히지 않는 병보다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송영감이 느낀 배신감은 크다. 그렇기에 소설의 서두가 배경의 묘사나 상황설명도 없이 바로 그 시작을 송영감의 잠꼬대로 시작한다. 송영감이 느끼는 절박함과 패배감을 맨 앞에 서술하는 것은 이미 근대가 너무 많이 일상에 침투에 갇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마냥 누워있을 수 없다. 그에겐 자신의 어린자식인 당손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놈같은 조수놈하구”(1:285)도망간 아내에 대해 배신감만 드러내놓고 누워서 있을 수 없는 가난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 가마 채워가지고 구워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1:286)이라는 생각에, 다음날부터 송영감은 독짓는 일에 열정을 바친다.

이러한 송영감이 병든 몸으로 독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에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1:287)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독짓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짓기 작업은 근대를 상징하는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거랑질을 할 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틀림”(1:289)없는 사실이기 에 자신이 병만 나아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일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 양식과 내년엔 독짓는 밀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는 일이기 에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송영감의 결심을 결행하기위해, 아직 독을 굽는 철이 아님에도 독가마에서 사는 거지들을 내쫓고 가마 굽는 일을 실행한다. 이때 송영감은,

①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거리에 놓이게만 힘썼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해 보려는 듯이.(1:290)

② 송영감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1:293)

송영감은 근대를 상징하는 젊은 조수의 독과 전통을 상징하는 자신의 독을 같은 거리에 두고 ‘마치 누구의 독이 더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하려는 심사를 내보이는 데, 이는 전통/근대의 대결을 동일선상에 둔 작가의 내면심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마 속의 “독이 튀는 것은 거의 송영감의 것뿐이었다.(1:291) 이는 전통을 상징하는 송영감의 독만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황순원 소설 특유의 전통에 대한 지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가는 송영감의 죽음으로서 그 의미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송영감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때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 죽어가는 전통의 맥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송영감의 독이 깨진 자리에 송영감 자신이 대신 들어앉아 죽음으로서 불굴의 대결의지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즉, 독을 만들 때의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송영감은 자신의 핏줄인 아들 당손이를 앵두나 못집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남의 집으로 떠나보낸다. 이는 죽음으로서도 피할 수 없는 근대의 물질문명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유랑민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²²⁾

「풍속」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의 장손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방황과 번민 속에서 전통/근대 사이에서 유랑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주인공은 근대의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전통을 따라 애정의 기반이 없이 가정을 꾸미고 산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형태로 인식되기는커녕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공부시킨다는 건 곡식을 심는 것과는 달”(1:148)르다거나 “심는 대루 거뒀지 않”(1:149)다고 모를 소리를 하는 아들에 대해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야 할 아버지는 고향이나 목침도 던지지 않고 그저 왼손 손가락만 떨고 있으며, 어머니의 얼굴은 더 겁에 질려 누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의 인물인 주인공에게 전통적인 것은 이미 낡고 빛바랜 것 그리고 병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간의 유대는 주인공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일 뿐만 아니

122) 장현숙은 송영감이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한국사라 한다면 당손이는 새로이 펼쳐질 신한국사의 서장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황순원의 소설에서 ‘유랑의식’을 가진 인물은 결코 행복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유랑의식’에 침해되어 불행한 삶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장현숙, 앞의 책, 93면.

라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현재적 삶의 활기와 전망마저 부재하게 만든다.

① 이제는 넉넉히 혼자 마려울 때 놀 수 있을 터인데 아내는 애를 더 어리게만 보려고 한다.

하긴 지난날 어머니도 자기에겐 꼭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② 아내는 지금 지난날 어머니가 자기에겐 가르쳐준 것 같은 첫 간사함을 애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전통을 거부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마음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과 가르침의 경험적인 삶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죽기 전에 살림살이하는 법두 다 배워둬야지”(1:153)라고 말하는 부모에게서 심적 중압감을 받는다. 전통적인 삶의 형태를 답습하라는 부모와 그것을 실행하는 아내를 보면서 주인공은 “어디 답답해 집에 백혔을 수가 있나.”(1:150) 하면서 거리로 나선다.

거리가 길기만 하다. 어지럽다. 피로한 눈앞에 풍선이 어지럽게 난다. 물기진 풍선 표면마다 무지개가 어린다. 풍선이 날아도는 대로 무지개가 돌며 난다. 무지개와 무지개가 서로 부딪쳐 깨진다. 깨진 풍선과 풍선, 눈앞을 손으로 저어도 깨진 풍선 자리에 또 새로운 풍선이 얼마든지 떠오른다. 풍선, 풍선, 풍선..... 띄도 많은 풍선이 날며 무지개가 깨진다. 물고기가 뺨은 거품처럼 거품처럼. 거품, 거품, 거품, 무지개, 공, 공..... 목이 마르다.(중략)

어떤 집 가에 앞에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달린다. 쳇바퀴가 동그라미를 그린다. 많은 동그라미가 자꾸 쌓인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나 결국 동그라미는 하나가 남을 뿐이다. 그러니까 달리는 다람쥐는 머무른 다람쥐다. 아 눕고 싶다. 집으로 가자.(1:151)

주인공이 거리로 나가서 느끼는 의식은 “계속 파괴되는 무지개와 쳇바퀴 속의 다람쥐는 ‘머무른 속성’으로 파악되는 현재적 삶이 안고 있는 정체성의 상징이다. 그것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허무와 정신병적 피곤의 상태로 인간을 몰아가는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여기서 환멸의 대상인 ‘현재의 삶’은 개인적인 영역의 것과 동시에 전통적인 ‘한국적 삶’의 양태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 제기된 방향과 불안은 시대적 조망에서 그 원인이 거론될 수 있다.”¹²³⁾ 주인공에게 있어서 전통은 기능을 상실한 문화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인공은 “여기서 한번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리라. 그러는데 다른 하나의 자기가 불쌍하게 여기려는 자기와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려는 자기를 바라본다. 그럼 어느 자기가 진정한 자기냐.”(1:154)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여기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전통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낡고 빛바래서 병든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을 두고 근대적 선상에 선 주인공이 ‘전통을 거부한 것’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을 잃어버린 것’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느 것이 진정한 자기의 의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답으로 전통을 거부하던 주인공은 “어쨌든 지금은 죽음을 생각하고 비감해 하는 아버지를 반대해야 한다”라고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반대한다. 즉 아버지, 어머니로 상징되는 전통의 세계가 지속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을 전승한 집단적 삶과 개인의 삶이 하나로 결합된 환경 속에서만 전통의 진정한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순원 문학은 근본적으로 전통적 세계와의 강한 심리적 친연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고향 사람들」(1961)에는 부정적인 근대의 모습과 대립되는 전통의 세계로서 ‘나’의 고향사람들의 순박함이 살아있는 곳이다. ‘나’의 고향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더욱 강하게 환기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로 상징되는 전통의 세계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추억과 향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황순원의 문학세계가 본질적으로 전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작가 황순원이 회상하고 있는 고향은 옛투로 사진을 찍던 시절이며, 무리한 공출로 인한 차손이네 고통에 공감하고 그러한 내용을 ‘나그네’에게까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마을 노인의 모습을 통하여 ‘남’의 걱정을 제 걱정처럼, 제 걱정을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유대감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그는 소개를 가서 살 때, “고향사

123) 황효일, 『황순원 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9면.

람들이 다 스러진 듯한 재를 뒤치어 그 속에서 새로운 불씨를 일궈놓는 것(1:161)", 을 취해서 바라보곤 한 적이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나는 이 고향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내 몸 속 어느 깊이에도 그냥 남아있는 농사꾼으로서의 할아버지와 반 농사꾼으로서의 아버지의 호흡을 찾고, 그 속에 고향사람들과 나자신의 생명을 바라 보며 고개 숙이는 것”(1:295)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사람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김구장은 근대를 대표하는 타락한 인물로 ‘나’의 ‘고향-장태동’으로 추방당한다. 이는 내포작가인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세계에 김구장과 같은 타락한 인물이 공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체제에 협력하는 김구장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되는 작가의 의식에는 “역사적 악을 윤리적 선으로 끌어안으려는 세계관적 태도로부터 발원하는 작가의 윤리감각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는 인간 삶의 보다 근원적인 윤리성의 문제를 작가의 현실인식이나 문학적 언술방식을 아우르는 하나의 중심 동력을 가동시”¹²⁴⁾키는 것에서 드러난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공존해서는 안 되는 전통의 세계인 고향은 작가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서 만들어낸 추억의 세계로서 그 세계가 파행적인 근대의 인물에 의해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에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를 향한 재현이 아니라, 욕망의 세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¹²⁵⁾

「비늘」(1963)은 서두에 고려사 <악지 고구려 속악부>에 명주가라는 노래의 유례로 나오는 잉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신고서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잉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 이는 경포대 호수를 배경으로 한, 옛날 얘기 아닌 최근의 이야기”(4:170)라며 자신의 소설이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황순원 문학에서 이야기에 대한 유별난 집착은 사라져가는 세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의 한 형태인 것으로, 현대적 삶의 공간 속에서 옛 전통적 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설적

124) 박혜경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0, 816면.

125) 여기에서 ‘재현과 대상의 불일치’라는 예술의 오래된 문제의식을 논할 수 있는데, 재현이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살려서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일제말기가 배경인 「내 고향 사람들」의 서두에 ‘옛투의 사진’을 찍는 장면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대상을 재현하고 있는데 있어서 작가가 지향하는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그는 과거의 현실을 흠없는 사진으로서가 아니라, 흐릿한 사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을 재현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어한다.

장치로서 기능한다. 한 사회에서 이야기는 전통을 매개로 하여 교훈적이거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비늘」은 전통적 세계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전통을 지향하는 의식¹²⁶⁾은 사라져버린 추억의 세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의 한 형태인 것으로, 현대적 삶의 공간 속에서 옛 전통적 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인 상실감과 정주(定住)의 욕망

해방이 되면서 식민지시기 궁핍을 면하기 위해 타향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전제민이 되어 돌아오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많은 월남민이 발생하게 된다. 작가 황순원도 북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그의 고향을 버리고 북한에서 월남하게 된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유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유랑생활로 인해 황순원은 독특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모든 것에서 분리, 박탈, 추방되어지는 작중인물의 삶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1) 부정적인 현실과 정착의 의지

황순원의 해방기에 발표된 소설들은 작중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시각과 방법

126) 위의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전통/근대에 「기러기」와 「두메」를 들 수 있다. 「기러기」의 쇠네는 쇠네 아버지로 상징되는 전통의 세계를 이어나갈 상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쇠네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전통은 ‘죽은 문화’가 되지만 쇠네아버지와 똑같은 근농으로서의 쇠네가 이를 이어감으로써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에 반면에 쇠네의 오라비들은 근대적인 인물들이며, 쇠네 남편 동이는 파행적인 근대에 오염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두메」는 작대영감의 상징성이 ‘낡고 바랜 전통’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와 대립되는 인물로는 사냥하러 온 평양손님을 들 수 있고 근대에 오염된 인물로는 칠성네를 들 수 있다. 칠성네가 근대의 상징물인 총으로 하나밖에 없는 수탉을 쏘죽이고, 그 닭과 술을 마신 작대영감의 정수리에 못을 박아 남편을 살해하고 평양으로 도망치려 노력한다. 그러나 눈보라로 인해 떠나지 못하는 칠성네는 ‘숯귀신’으로 상징되는 전통에 대한 정체성이 자신의 가슴에 들어앉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하며 예리하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 「술」(1945), 『별과 같이 살다』(1946)¹²⁷⁾ 『카인의 후예』(1954) 등이 작가가 해방기의 이북에서 겪었던 사회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절망감을 반영한 작품이라면, 단편소설 「두꺼비」(1946), 「담배 한 대 피울 동안」(1947), 「목님이 마을의 개」(1947), 「모자」(1947) 등은 월남한 전제민들의 고달픈 현실과 모순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곡예사』 이후에 창작된 단편집 『학』은 「몰이꾼」(1948)이나 「여인들」(1948)의 해방기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은폐시키는 형식으로 창작되어 있고 이러한 점은 『잃어버린 사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역사와는 무관한 주변부 인물들의 삶을 천착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형식을 띤 이러한 작품들로 인하여 황순원의 문학세계에 대해 일부의 평자들은 현실과 역사로부터 단절된 도피의 문학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유랑의식’을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했을 때, 사회와 역사와의 끊임없는 조응속에서 한 개인의 삶을 천착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기 북한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 월남을 결행한 황순원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월남체험’이다. 이는 황순원의 작품 활동을 구분하는 척도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한국 전쟁과 월남이라는 거대하고도 실존적인 체험이 그의 글쓰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순원 소설의 해방기 문학의 보편적 주제는 식민 통치로 인한 실항에서 비롯된 귀향과 귀소의 문제이다. 이 시기의 소설은 해방 전의 소설에서 보여주던 방문자에 대한 환영이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의 인식이 사라지고 고국을 방문하는 유랑민들에게 적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따른 현실인식의 변모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가가 월남의 체험을 통해 겪게 된 현실의 부정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당대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해방기의 남한 사회 현실은 해방을 맞아 돌아온 전제민과 이데올로기와 생계를 위해 남하한 이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

127) 황순원의 첫 장편이 『별과 같이 살다』는 「암콧」(『百濟』, 1947, 1), 「곰」(『協同』, 1947,3), 「곰녀」(『大湖』, 1947, 7) 등의 제목으로 여기저기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소설의 미발표 분과 함께 1950년 2월 정음사에서 간행되었다. 「별과 같이 살다/ 카인의 후예」, 『황순원전집6』, 문학과지성사, 1981, 서문참조.

고, 당시의 조국은 이들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거,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소설에서는 작중인물들이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분리, 박탈, 추방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의 상실감이 ‘유랑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이 ‘동화와 차별’의 양상이 아닌 ‘동화와 파멸’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결론은 행복으로 상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공출제도 등으로 식민지농업정책을 펴면서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묶어두려 하였고,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을 전쟁기지화 수단으로 이용, 물자와 식량 그리고 많은 인적자원을 강탈해간다. 이로 인하여 유랑민이 급증하고 공동체는 붕괴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절대적 빈곤에 빠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의 노동시장으로 흘러가거나 국내 각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토막민이 되었다. 최악의 경우 걸인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¹²⁸⁾었다. 일본이나 복지 등으로 흘러들어간 조선인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고달픈 삶을 연명해 나갔는데. 이들이 해방기에 전재민¹²⁹⁾과 조선으로 귀환하는 간도 이주민 그리고 월남민이란 이름으로 지칭되며 조선으로 돌아왔다. 또한 좌·우 이데올로기에 따른 체제 선택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의 이동과 산업구조 및 사회변동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두꺼비」(1946.6)는 옛이야기를 차용한 소설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정서적 추체험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유다른 심리적 집착을 황순원의 문학 속에 내재된 이른바 어떤 정착민적인 기질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¹³⁰⁾을 가능하게 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

128)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0, 100면

129) 전재민(war victims)이란 전쟁재난민의 준말이다. 전재민은 첫째, 세계 2차대전으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으로 피해입은 한국민족 전원을 가리킨다. 둘째, 일제 때 궁핍한 가난이나 징용 등으로 고국을 떠났다가 해방 후 귀국하는 귀국민이다. 셋째, 이러한 귀국민 중에서 특별히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반민적 상태에 있는 인물들을 가리킨다.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6, 66면

130) 박혜경, 앞의 책, 49면

중인물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며 흔들리는 삶을 산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유랑하는 주인공이 정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옛이야기가 「두꺼비」에서는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소설에 삽입된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로 자신을 길러준 처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독기로 구렁이를 죽인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작가 황순원이 당시의 혼란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옛이야기의 내용을 부각시켜, 해방기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¹³¹⁾이라고 할 수 있다. 옛이야기가 정착된 삶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에서 유용한 교훈적인 이야기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정착된 삶을 살고자하는 전재민들의 고통이 존재하는 해방기의 작품 「두꺼비」에서는 옛이야기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전설을 해체시켜 버린다. 이러한 점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현세가 전재민이 되어 고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삶을 방해하는 두꺼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장로와 두갑이에 의해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독기로 구렁이를 죽인 이타적인 두꺼비에서 ‘타인의 삶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두꺼비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작가는 이들 작중인물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유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남 죽음 내 고뿔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해방기에 희망을 갖고 북지에서 돌아온 현세네에게 “살아나갈 길을 주지 않는”(2:38) 고국의 현실¹³²⁾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세는 ‘평양(고국)→ 북지(타지)→ 서울(고국)’로 유랑하는 당대의 전재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중 「집」 (1946), 「목님이 마을의 개」 (1947), 「황

131) 황순원의 초기소설에서 전통설화의 수용이 현실 관련성을 지닌 채, 이루어지며 그 결과 작품 속에서 현실적 처지를 부각시키거나 현실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기 소설의 경우 전통설화의 수용이 현실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현실과 단절된 폐쇄적 공간을 창출한다. 이는 다분히 현실 초월적 혹은 현실 회피적 성격을 띠게 된다. 박용규, 앞의 책, 11면.

132) 1946년은 극단적인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서울시 인구의 97%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미군정 통치하였으며, 남한 사회는 반봉건적 지주제도의 광범위한 온존과 비료등 농업자재 공급의 절대적 부족 및 값의 폭등 등으로 농업생산성을 감소시켜, 사상초유의 식량위기를 초래한 때였다.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65-71면

소들」(1946)을 통해, 일제치하의 가혹한 공출 때문에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촌의 궁핍화 현상을 알 수 있듯이, 가난 때문에 고국에서 타지로 내몰린 전제민들에게 해방은 고국으로의 귀향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탈경 전, 고국으로 돌아오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전에 없이 한 고국을 가진 한 겨레라는 느낌이 서로의 가슴 속을 뜨거이 흐르고 있는”(2:38) 상태로 돌아오지만, 이런 현세의 마음은 금세 식어버린다. 고국으로 돌아온 현세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제민 수용소에서 살아나간다.

① 현세는 문득 자기는 지금 고국에 와있는 게 아니라 만주나 북지 어느 곳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2:38).

② 현세는 누워서 자기네에게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창 하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마포가 물에 잠기고, 평택이 뚫다는 소식도 전쟁으로 어느곳이 함락되었다는 것만 같았다. 그래 지금 자기네는 피난 온 것이다. 고국 아닌 어느 곳으로(2:34).

해방된 고국으로 희망을 안고 돌아온 현세는 고국에 정착할 길이 막연해지자, ‘고국 아닌 어느 곳으로 유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현세의 마음은 고국에 돌아온 이후인 지금도 전쟁 중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절망하는 마음이 깊다. 그러나 현세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2:66)는 마음속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희망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의 실상은 조국의 땅에서 오히려 더욱 심한 가난에 시달린 나머지 조국의 의미마저 상실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작가는 현세를 통하여 보여준 실상이 한 특정한 계층에게만 속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황순원은 이러한 귀환동포의 애환을 「담배 한 대 피울 동안」(1947)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설을 통하여 ‘해방’의 의미를 냉철하게 반성하는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다.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어진 해방 후의 귀환의 문제는 ‘길’이라는 내적 형식 즉 旅路의 형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길’로 표상되는 旅路는 한국의 근대소설의 대표적인 내적 형식의 하나이기도 하다”¹³³⁾ 한국

133) 안한상, 「해방기 소설의 구조적 특성」, 『해방기 소설의 현실인식과 구조 연구』, 국학자료원, 1995, 246면.

의 근대소설의 대표적인 내적형식인 旅路는 ‘유랑의식’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해방기의 삭막한 세태를 묘사하는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그’는 만년서기 생활로 인해 아침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다. ‘그’는 담배를 피우려고 신문지면의 한귀퉁이를 찢다가 조선사람들이 고국 땅이라고 찾아왔다가 일 년도 못되어서 다시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다시 밀항을 한다는 <거리의 여자>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어젯저녁 다동 목로집에서 본 여자의 모양이 떠올리게 된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가 자신을 놀리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노여움이나 불쾌감도 나타내지 않는 지친모습 때문에 ‘그’는 그녀를 ‘거리의 여자’로 여긴다. ‘그’의 눈에 그녀가 이러한 모습으로 비치는 이유는 ‘그’의 가난과 수암 선생의 초췌하고 지친모습, 그리고 귀환동포라는 시대적 문제 등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해방 전의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자에게 가해지는 세태의 몰인정함으로 인해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서민의 애환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거리의 여자’가 신문의 경우와 같이 일본서 돌아온 여자라면 다시 밀항을 하다가 즉결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거리의 여자’가 즉결심판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재판관의, 이름이 뭐냐는 물음에 피고는 원 이름은 김 아무갠데 흔히 해방 전엔 하나꼬로,

해방 후엔 안나로 불리운다는 대답. 나이는? 스물다섯. 주소는? 본적은 경상남도 마산인데 해방 전에는 일본 가서 오래 있었고 해방 후에 돌아와서는 서울 있었다는 대답, 직업은?

해방 전에는 여급, 해방 후에는 댄서. 해방 후에 건너왔느냐는 말에는 그렇다는 대답.(중략)

그러면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원이었을 텐데 왜 밀항을 하려했느냐는 말에는 잠시 대답이 없다. 밀항이 범죄가 되는 줄 알았느냐는 말에는 간단히 그렇다는 대답. 그럼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 왜 했느냐는 말에는 피고는 다시 대답이 없다. 다 아는 일이 아니냐는 듯. 들리는 말에 밀항하다 변을 만나 죽는 수가 많다는데, 그래 약한 여자의 몸으로 더구나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그런 대답한 마음을 냈느냐는 말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에 그런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라는 빛을 띠우고 잠잠하다.(2:121)

‘그’의 상상 속에서, ‘거리의 여자’는 해방 전의 이름은 하나꼬로 일본에서 여급생활을 했으며, 해방후에는 서울에 돌아와서 안나라고 이름으로 댄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원으로 생각했지만, 생활고에 못이겨 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하다 붙들려 즉결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거리의 여자’의 즉결심판 받는 모습은 ‘그’가 중학시절에 어느 책에선가 본 노예선의 이야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이 노예선의 흑인들처럼 밀항선의 여자들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2:121)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이른바 ‘거리의 여자’로 일컬어지는 매춘부들이 해방과 더불어 이루어진 ‘귀향’은 고국에서의 궁핍한 생활고를 못이겨 다시 일본으로 밀항해야만 하는 유랑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공동체에서의 일탈”¹³⁴⁾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꺼비」와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이 해방기의 도시의 소시민의 삶에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집」(1946)과 「황소들」((1947), 「목넘이 마을의 개」, 「별과 같이 살다」는 농촌을 무대로 하여 해방 전과 직후 농민들의 애환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해방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은 땅을 매개로 하여 정착된 삶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기의 도시의 소시민의 모습과 같은 ‘유랑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정착을 상징하는 땅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랑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농민들의 삶에 얽힌 애환은 당시 소작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농민들은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지주들의 횡포와 착취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부터의 분리, 박탈, 추방되면서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은 고향의 지주에 의해 살아갈 의욕과 힘을 박탈당했기 때문으로 그 비극의 기저에는 지주와 소작인이 맺고 있는 부당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현실이 놓여 있음을 작가는 냉철하게 포착하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일제 청산 작업 중에서 친일 지주 계급의 숙청 및 토지개혁

134) 오현봉,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26면.

의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¹³⁵⁾였다. 단편소설 「집」에서 막동이 할아버지는 식민지시대의 농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난과 지주계급에 의한 착취와 일제의 공출에 의한 수난을 모두 겪어낸 흔적을 간직한 전형적인 한국의 농민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소설은 식민지시기에 마을의 유일한 자작농이었던 막동이 할아버지가 일제의 공출에 의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막동이 할아버지와 같은 처지를 겪는 농민들의 사정은 “해방직전 살인적인 수준으로까지 치달아 조선의 농민들을 수탈하던 공출제도의 폐해와 민창호류의 악덕 지주들의 농간에 휘말려 몰락의 길을 가야만 했던 당시 농민들의 사례에 대한 표본으로서,”¹³⁶⁾ 절대적 빈곤에 빠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의 노동시장으로 흘러가거나 국내 각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유랑민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막동이네의 내적 불행과 시대적인 공출이 맞물려 해방기라는 시대적인 병폐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집」이라면, 공출제도가 한국의 전체농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소설이 「황소들」이다.

바우라는 소년에 의해 회상되는 세 가지의 사건은 각각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일이지만, 공출에 의한 폭력성에 있어서 그 정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일어난 공출이 해방 후에 와서도 지속된다는 것은 해방의 도래와 함께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만행이지만 해방 이후에 사라지기는커녕 같은 민족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더불어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족의 불행이라 할 것이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일제만 물러났을 뿐이지 사회적 구조 차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해방’이 민족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행해진 국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주어진 하나의 선물같은 것이었

135) 전근대적인 경제체제의 농촌에서 지주는 농민의 삶을 좌지우지한 소수계급이다. 그들은 땅을 기반으로 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봉건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인물로서 착취를 주도한 계급이다. 특히 식민지시대에 일제와 결탁한 친일 지주가 농민들에게 갖은 수탈을 감행한다. “해방기의 미군정 소작(小作) 정책은 구래의 봉건적 고율소작료의 상환을 제시해 소작 조건을 완화시켰지만, 미군정당국의 권력적 배경으로 지주적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면서 일제 퇴거 후 위기에 선 지주층의 지배를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272면.

136) 황효일, 앞의 책, 58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방’이 되었다지만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¹³⁷⁾였다.

이러한 수탈을 피하기 위해 북간도로 이사꾼들이 들러 지나가는 곳이 ‘목넘이마을’이다. ‘목넘이마을’은 「목넘이 마을의 개」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이 소설은 우화소설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소설의 서두에 이 “목넘이 마을에 한시절 이른봄으로부터 늦가을까지 적잖은 서북간도 이사꾼이 지나갔다.”(2:131)면서 거지와 진배없이 초라하고 험벗은 행색과 거지노릇을 해가며 쫓기듯 북쪽으로 향하는 사정에서 보듯이 ‘이사꾼’은 식민지 정책에서 행해지던 수탈에 의해 살 곳을 찾아가는 이주민의 ‘유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별과 같이 살다』에서의 곰녀는 정착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땅밖에 팔 줄 모르는 선조들은 모두 농부였으며, 이러한 후손으로 태어나 민족의 수난사를 겪으며 살아가는 곰녀가 상징하는 ‘유랑하는 삶’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곰녀의 삶을 “관찰해 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뿌리 뽑힌 채 떠돌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빈번한 이동, 이름의 잦은 변화 그리고 신분상의 변동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¹³⁸⁾

곰녀는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것은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을 곰녀로 설정하고 나중에 하르반의 입을 통해 그것이 곧 웅녀란 뜻을 나타내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곰녀는 이 작품에서 후남이, 곰녀, 삼월이, 유월이, 복실이, 후꾸짱, 후구꼬 등 모두 일곱 개의 이름을 갖지만 작가가 소설의 끝까지 곰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곰녀는 지극히 못생긴 얼굴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타고난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부지런함과 인내 그리고 남을 위한 순박한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 이러한 곰녀가 농민의 딸→ 하녀→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창가에서 창녀로 일하면서도 조금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산다. 곰녀의 유랑생활은 고향의 샘마을→ 대구→ 서울→ 평양으로 이동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러

137) 박은태, 「『별과 같이 살다』에 나타난 소설 구조의 역사적 의미」, 『비평문학』, 제 17호, 한국비평문학회, 2003, 7, 122면.

138) 이동하, 「파멸의 길과 구원의 실- <별과 같이 살다>에 대하여」,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8, 3, 221면.

한 점은 전통적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이동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도시는 철저히 근대화된 곳으로 낯선 곳을 유랑하면서 고퍼는 자신의 본질이나 내적인 반성이나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수난의 삶을 살아나간다. 따라서 고퍼의 삶은 일제말기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전쟁기 이후부터 황순원의 소설이 역사적 현실과 거리를 두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역사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단편집 속에는 「불가사리」(1955), 「잃어버린 사람들」(1955), 「산」(1956), 「비바리」(1956), 「소리」(1956)라는 다섯 편의 작품이 들어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는 전쟁에 관련된 소설뿐만 아니라, 그와는 아주 동떨어진 시대를 표현하는 소설도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들에는 전쟁을 겪어내고 그 현실을 살아나가는 작가 황순원의 의식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며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유랑의식’으로 드러난다.

『잃어버린 사람들』에는 전후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황순원이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추방자의 주제를 인정하지만, 그 주제를 의식하고 작품을 창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소설 창작 당시 작가의 내면의식이 당대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작가 황순원의 문학에는 그가 운명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한국전쟁에 대한 생체험적인 진정성이 담겨 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율과 도덕률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삶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정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율을 넘어서는 행동에 관련된 의무를 저버렸을 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추방자의 지위에 대한 가설은 한 사회의 도덕가치, 금기, 개인적인 편견, 두려움이나 알 수 없는 현상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 과정은 탈선이나 금기깨기에서 시작돼서 희생양의 지위와 더불어 생길수도 있”¹³⁹⁾다.

전후소설에 내재된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특성상,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쟁 이

139) Bruce fulton,, 『황순원의 단편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65면

후의 현실을 윤리의 부재상황으로 보면서 혼란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1950년대 한국은 새 것과 옛 것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남한의 정부는 독자적으로 근대국가를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근대국가에서 국민의 통합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전국적인 시장권의 확립과 전통적인 신분질서의 파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상의 신분적 차별과 더불어 동족 부락을 이룬 부계친족 집단의 해체를 통해 국민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처음 실려 있는 단편은 「불가사리」이다. 「불가사리」에서는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도시가 갖는 물질적 풍요와 환상이 갖는 이미지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인물의 의식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특히 과거에 가졌던 신념이나 가치가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이 인정의 세계에서 비인정의 세계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불가사리」에서 ‘함박골’은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두메산골이다. 이곳에 자본주의 상징인 복코가 들어오므로 산골 마을의 순수성은 위협받게 된다. 곱단이를 색시감으로 데려가려는 복코는 벌써 이태 전에 서분네를 색시로 삼았으나, 평양 색주가로 팔아넘기고 서분어머니를 속이는 파렴치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복코가 가난한 곱단이의 부모에게 물질로 접근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물질에 현혹된 곱단이의 부모도 사윗감으로 마음속에 찢었던 곱이를 내치고, 돈이 많은 복코에게로 마음이 돌아서고 만다. 어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서로 사랑하는 곱이와 곱단이는 자신들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탈출하여 도망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전후 현실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전후의 궁핍한 현실은 물질만능주의의 인간관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곱이와 곱단이가 그들을 길러주었던 반수영감과 부모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은 전쟁 전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중요시 여겼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계관이 전후에 와서 전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불가사리」에서 소설 속의 한 쌍인 곱이와 곱단이의 도주는 그들의 가족과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덕적 금기를 어기면서 ‘추방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도덕적 탈선과 애정도주를 다룬, 다른 작품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불가사리」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들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시

켜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와는 상반되게 두 소설의 주제의식을 “추방자”로 파악하고, 주인공들의 ‘유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브루스 풀톤은 황순원의 「불가사리」와 「잃어버린 사람들」의 연구논문에서 “불가사리”라는 제목을 두고 “불가사리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사는 생물을 뜻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즉 상상적 괴물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뜻이 이 단편작품에는 더 어울릴 듯하다. 그리고 작가에 따르면 불가사리는 ‘불가사의’ 즉 신비하며 불멸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다. 불가사리는 상상적 괴물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추방자’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 괴물은 ‘추방자’의 탈선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⁴⁰⁾”라며 「불가사리」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의 애정도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온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다. 주인공들은 그들이 속해 온 사회에서 지켜야만 하는 도덕적 금기를 탈선함으로써, 그들이 속해왔던 공동체의 삶 속에 다시는 편입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의 삶을 ‘추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방자’의 삶은 결코 안정될 수 없어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가사리」에서 곰이와 곱단이의 야밤도주가 “어두운 산길을 헤치고 그냥 앞으로 내려가는 것(3:17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보가 결코 편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가사리」와 일맥상통한 「잃어버린 사람들」의 석이와 순이의 애정도주 또한 귀향이 좌절된 실향민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생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순원의 실향의식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소설은 외면적으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 몰락한 양반의 자손인 석이와 소작인의 딸인 순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순이가 석이의 스승인 박참봉의 병구완을 위해 첩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시련을 맞게 된다. 근친을 온 순이를 데리고 석이가 도망침으로서 이들은 기존의 제도에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석이가 배운 “군사부일체니 스승의 은덕도 부모의 은덕처럼 생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3:177)”이며, “쫓맨해서부터 귀에 못

140) Bruce fulton., 앞의 책, 66면

이 배키도록 들어온 삼강오륜(3:182)”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석이는 순이와 유랑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이어간다. 이렇게 소설의 외면으로만 보면 사랑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듯하나, 실상 소설 속의 석이와 순이가 안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관계의 전통적인 중요성,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이다. 그러나 집단의 전통성을 배반한 순이와 석이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점은 석이와 순이를 기성 세계의 완고한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라온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저버렸으므로 공동체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이해해야 한다. 즉 석이와 순이가 가족과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그들의 애정도주에 대해 비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변해가는 전후 현실 상황에 대한 불안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도덕적 금기를 탈선한 석이는 추방자의 몸(낙인)인 잘린 귀를 갖고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고향을 등지고 하동(해물장사)→사천의 양짓골(농사)→지리산(부대알)→통영의 해평나루(어부)를 유랑하며 비극적 삶의 종말을 고한다. 이 과정 중에서 석이는 귀를 잘리고, 지리산에서는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사천의 양짓골에서 살 때, 석이는 어머니의 위독함으로 고향의 문턱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귀향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좌절되고 만다. 즉, 모성과도 같은 고향은 ‘추방자’에게 안정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더 밀어냄으로써 석이와 순이의 삶은 더 힘들게 되고 만다.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던 석이는 농사일을 배우며 정착했던 농토마저 내어주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추방자’의 삶을 사는 석이와 순이는, 그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마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부초처럼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유랑의식’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친하게 지냈던 또야 아버지에게마저 다음 정착지가 어디인지 알릴 수 없는 떠돌이 삶의 연속이다. 결국 석이와 순이의 흔들리던 삶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 이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55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전후 실항민의 ‘유랑의식’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산」의 바우는 다른 작품들에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추방자’로 태어난 유일한 인

물이다. 바우는 다섯 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순수한 ‘추방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백정이기 때문에 세습된 ‘추방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소설은 ‘산’처럼 우직하고 순진한 바우가 전쟁을 겪으며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바우는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가 다섯 명의 패잔병을 만나면서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느라고 밤마다 먼 거리를 끌려다니게 된다. 바우는 패잔병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만행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바우가 순수의 세계를 표상한다면, 패잔병들은 약탈과 강간, 방화는 물론 살인조차도 죄의식이 없이 행동하는 폭력적인 세계를 표상한다. 군대라는 집단에서 분리된 패잔병들은, 현실의 욕구와 생존을 위해 살인이라는 파괴적 형태로 내분되며 나타난다, 바우는 사람을 쉽게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할 수 있는 힘이 집단(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힘(총)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간다. 순진무구한 바우의 눈에 최초로 비친 전쟁은 인간을 짐승처럼 바꿔놓을 수 있는 공포의 힘이였다.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오히려 불분명한 이유로 개인을 침범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 앞에 분열되어 가는 순수했던 인간을 보게 된다. ‘바우’는 자신을 걱정하며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으로 노심초사하지만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 그의 귀향은 좌절된다. 총을 가진 패잔병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그들과 불평등한 과정을 가졌던 바우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하면서 종래에는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미 폭력성에 동화된 바우라는 인물이 되돌아가는 사회는 곧 전후의 위기의식이 가득한 사회일 뿐이다. 바우가 처녀를 데리고 도망친 산은 전쟁을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을 간직해 온 산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속의 집단적인 광기가 아직 존재해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바우의 삶이 산→산으로 계속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말해준다.

「비바리」는 ‘추방자’를 둘로 볼 수 있다.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는’ 눈을 가진 비바리가 4·3 사건 때, 빨치산인 오빠를 죽인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장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으로 ‘추방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정착할 수 없는 준이를 ‘추방자’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다. 그리고 「비바리」에서 섬 = 비바리(여자)를 뜻한다. 이 섬은 고정된 것, 움직일 수 없는 것, 수동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여성이며 고향을 나타낸다. 여자는 모성이고 모성은 고향을 상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준이에게 제주도도 피난 중에 “한동안 쉬어갈 수 있는 곳(3:225)”일 뿐이지 정착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또한 고정된 섬을 뜻하는 비바리도 피난민으로서 유랑적인 삶을 사는 준이를 따라 떠나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준이에게 ‘추방자’로서 실향의식을 느끼게 할 뿐이며, 대구로 피난민 생활을 하러 다시 떠나 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실향의식은 고향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문제로 환원되는 것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소리」에서 덕구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석이처럼, 전쟁에서 한 쪽 눈을 잃는 것으로 ‘추방자’의 몸을 갖는다. 그러나 ‘추방자’의 지위는, 도덕적 탈선이 아닌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내면세계의 황폐화로 인해 갖게 된다. 덕구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 전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덕구가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해 전쟁터에서 귀향한 후, 다시 자신의 고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표현함으로써 전쟁을 겪은 세대의 정신적 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흔히 전쟁을 제재로 한 소설은 대체로 전쟁의 무모함이나 잔혹한 의미를 고발·표현함으로써 전쟁의 비인간성과 반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띠고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기조로 하는 경우가 많다.”¹⁴¹⁾ 이는 전쟁으로 인해 소외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전후소설에서 보다 성찰적인 관점을 보이는 휴머니즘 담론¹⁴²⁾으로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분석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2) 부성성의 세계와 떠돌이 삶

황순원 문학에서 타락한 부성성의 세계는 모성성의 세계와 대립되면서도 동시에

141) 강진호, 「전후 현실과 행동주의 문학」,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26면.

142) 1950년대 평단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휴머니즘은 당시 한국문학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한 특수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써, 휴머니즘은 전쟁이 끝난 뒤 반공주의 문학을 거쳐 민족주의적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였다. 1950년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문학 창작의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실참여를 주장하는 좌파의 참여문학론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대신 현실 참여논리의 우파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니즘 담론이 부상하게 된다. 김기환, 「50년대 휴머니즘의 비평적 전개 양상」, 『건국어문학』, 제 21, 22집, 1997, 55-57면.

긍정적인 부성성의 세계를 지향한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타락한 현실의 특성은 주로 부성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의 일면과 함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 유대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가족의 세습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은 월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가족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심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작가에게 순수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창작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의 문학이 근본적으로 초월된 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현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에서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화해의 모색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러한 순응의 자세는 정착민적인 삶의 지향성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서 유량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현실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욕망의 정도가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황순원은 조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¹⁴³⁾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러기』에는 한국인의 원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등장한다. 『기러기』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존재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모두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¹⁴⁴⁾다. 이러한 노인들의 모습은 「기러기」와 「황노인」과 같은 소설 속에 황순원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¹⁴⁵⁾ 황순원은 선조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투영하는데, 이는 인간의 순수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 곧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러기』에는 일제말기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그가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 배경으로 고향 시골 마을로 소개를 갔었던 것과 그곳에서의 체험이 들어있다. 이러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단편소설 「눈」(1944)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시기가 시기니만

143) 김동선, 「황고집의 미학 황순원 가문」, 『정경문화』, 1984, 5. 313~317면

144) 『황순원단편집』(후에 『눈』으로 改題)의 작품들과 『기러기』의 몇 작품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인생을 그린 것으로 보여지며 픽션을 느끼지 않는 픽션으로서 보여진다. 이것은 당시 작가들이 즐겨 쓰던 작품 속에서도 전도법이나 가정법을 한 곳에서나마 쓰지 않았다는 걸로도 말할 수 있다. 원응서, 「그의 인간과 단편집 『기러기』」, 『황순원연구』 12, 문학과지성사, 1985, 253면. 장현숙은 『기러기』의 연구분석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잃어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조국애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장현숙, 앞의 책, 189면

145) 원응서, 앞의 책, 255면

큼 우리들의 얘기는 대개가 공출과 징용에 관한 얘기였다. 모두가 남의 걱정을 제 걱정처럼, 제 걱정을 남의 일처럼 얘기”(1:295)를 나누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인상 깊게 경험했으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괴감과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 대한 연민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개를 가서 살 때, “고향사람들이 다 스러진 듯한 재를 뒤치어 그 속에서 새로운 불씨를 일궈놓는 것(1:161)”, 을 취해서 바라보곤 한 적이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명멸하는 내 생명의 불씨가 그 어두운 시기에 이런 글들을 적지 아니치 못하게 했다”(1:162)라고 밝힘으로서 이 시기의 체험이 그의 문학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명의 불씨”는 작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고향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내 몸 속 어느 깊이에도 그냥 남아있는 농사꾼으로서의 할아버지와 반농사꾼으로서의 아버지의 호흡을 찾고, 그 속에 고향사람들과 나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며 고개 숙이는 것”(1:295)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사람들과 함께 일제치하의 어려웠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던 고향사람들과의 유대감에서 자신의 “생명의 불씨”를 찾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체험이 이후 황순원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은 「내 고향 사람들(1961)」, 「그래도 우리끼리는」(1963), 「비늘」(1963)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소설들에서 주목할 것은 작가 황순원의 삶이 고향에 뿌리내린 정착자의 삶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의 양상이 어지러워져 고향으로 소개해 나가서 체험했던 이태 동안의 삶이라는 것이다. 즉 유랑하는 삶으로서 미래가 불안한 현실에서 고향에 대한 지향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순원은 남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전적인 소설의 경향이 보이는 작품을 많이 창작한 작가로서, 그는 가족사에 대해 「아버지」(1947)와, 「할아버지가 있는 데쌍」(1959)이라는 두 편의 소설과, 자신에 대해서는 「내 고향 사람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역사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는 해방기의 신탁통치라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 속에 아버지가 3·1운동을 하던 과거 모습을 회상하며 월남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아버지가 있는 데쌍」에서는 선조들의 내력을 역사적 자료를 검증해 가며 밝히고 이에 따라 ‘나’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남한에 살고 있었던 황순원 자신의 권위를 현

실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소설의 공통점은 그가 월남한 이후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황순원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떠나 온 고향에서 갖고 있었던 권위에 대한 월남민의 향수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황순원은 월남한 이후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이전에 한국전쟁을 체험하게 된다. 월남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그에게 한국전쟁은 다시금 ‘유랑의식’을 상기시키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전쟁 중에 경기도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겪었던 고달프고 불안정한 피난 생활들을 표출한 소설들이 그의 단편 중 10%에 해당되는 자전적인 성향을 띤 것들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검증된다.

「아버지」(1947), 「메리크리스마스」(1950), 「곡예사」(1951), 「어둠속에 찍힌 판화」(1951), 「부끄러움」(1954), 「모든 영광은」(1958), 「안개구름끼다」(1958), 「할아버지가 있는 데쌍」(1959), 「내고향 사람들」(1961), 「마지막 잔」(1974)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작품들은 자전적인 것과 자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경험치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남한 생활에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순원의 소설은 과거의 공동체 삶에 대한 지향이나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추방, 분리,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평안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작용하고, 부정적 세습을 통한 심리적 유대감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3·1운동 당시의 아버지가 행했던 독립운동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이 전반부를 월남이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후반부의 내용이다. 해방기의 부정적인 민족 현실 속에서도 작가는 냉정하게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그 비판 속에는 강한 민족의식과 현실인식이 내재해 있다. 소설에서 긍정적인 삶의 미학을 발견하는 작가의 의식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현실의 힘을 갖¹⁴⁶⁾게 한다.

146) 황순원은 가문 특유의 긍정적인 부정성의 세습과 함께, “그가 서구문물의 세계를 비교적 빨리 받은 서북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그의 부친이 기독교 학교의 교직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기독교 신자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황순원의 문학세계에 영

부정적인 현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려는 부성성은 한국전쟁을 체험하면서 작가의 본격적인 경험이 소설화 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의 소설들은 많은 작품에서 일인칭 서술 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가 자신의 실명을 문맥 속에 직접 드러내는 파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시기의 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그의 소설이 경험에서 얻어진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자전적인 경향이 매우 짙은 점이 황순원의 한국전쟁 이후의 단편소설에서 보이게 되는 면모임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남 이후 서울에서 터전을 잡았던 곳을 떠나서 ‘유랑’길에 오르게 된다. 「메리크리스마스」, 「어둠속에 찍힌 판화」, 「곡예사」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피난 생활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메리크리스마스」는 서울→부산→대구로 피난 가는 도중에 경험한 일을 소설로 형상화 하고 있다. 이러한 피난체험은 회상에 의해 진행된다. 부산에서 대구로 향하는 길마다 지나치는 도시와 시간을 병렬하면서 체험했던 일을 기록하는 형태로 소설은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의 밑바탕에는 ‘불안’이라는 정조가 가득하다.

- ① 부산 시내를 떠난 서면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세시가 가까워있었다. (중략) 게서 대구행 트럭을 기다리다못해 우선 동래까지 간다는 트럭에 올랐다.
- ② 동래에서도 좀처럼 대구행 트럭은 붙잡을 수 없었다. (중략) 마침 커벌을 썩은 군용트럭 두대가 지나가다 서기에 물어보니 서울까지 간다고 한다. 마침 이라고, 사정을 말하고 올라탔다.
- ③ 경주를 지난다기에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니, 여기저기 전등불빛도 영성 한 게 쓸쓸하고 한량 없었다. (중략) 오늘 내일은 크리스마스 관계로 야간 통금 시간이 열시로 연장 됐으니 통금 시간 안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좋아했다.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황순원의 작품에서 청교도적 절제와 결벽성, 현실에 대한 긍정의 태도가 문학의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테스탄티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내세에서의 구원 대신에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자본주의적 체제내에서 부르조아적인 삶의 세계관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세속적 현실 속에서의 직업과 노동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쾌락에 몰입을 배척하며 도덕적인 엄격성과 합리성을 존중한다.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4

④ 영천서 차가 멈추었다. (중략) 저녁요기들을 했다. 그렇저렇 사오십분은 족히 걸렸다. 그래도 그래도 대구까지 통행금지 시간 안으로 대일 수 있을 것이었다. 하양 와서 또 차가 멈추었다. (중략) 아랫도리만 들이밀고 자리에 누웠다. 출발은 새벽 네 시로 되어있었다.

⑤ 단숨에 대구까지 달렸다. (중략) 아직 다섯시 전이었다.(2:183,184)

이러한 유랑과정 중에 드러나는 ‘불안’은 서울서 먼저 내려보낸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가는 길에 생기는 것이다. “서울서의 약속은 부산서 만나기로 한 것인데 아내가 대구까지 와 본즉 모든 물가가 부산은 대구에 비겨 곱이나 된다는 바람에 생각한 꼴”(2:184)에 대구에서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나’는 아직 가족을 만나보지 못했고, 또 전쟁 중이라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나’의 의식은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공평동이란 곳을 묻기 위해 대구역으로 찾아갔다가 거기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주는 고요함에 “어느 황량한 벌판, 강추위로 땅은 얼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벌판 한가운데 한 작은 촌락이 있어 소복이 눈은 덮이고 거기 잠든 듯 고요한 집집의 들창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말할 수 없는 조용한 불빛”(2:185)을 떠올리며 눈물겨운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역사적 비극과는 대비되는 고요함의 경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의 결과로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밤낮 닷새동안 화물차 지붕 꼭대기에 눈비를 맞고 흔들리고 온 탓인지도 모를 “이 흔들림이란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벌써 전에, 어찌면 내 출생과 함께 있는 것인지도 모를”(2:185) 숙명적인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어둠속에 찍힌 관화」는 「메리크리스마스」를 통해 도착한 대구에서의 피난생활 중에 겪었던 일화를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액자소설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스토리가 이 소설의 안과 밖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액자소설에서 액자 속의 본론에 해당되는 주인집 사내의 사냥터에서의 경험담은 ‘나’의 생활과 정서와는 외형적으로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액자의 안과 밖은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① 나는 어둠 속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함 자꾸 무엇에 쫓기는 심사였다. 다른

것은 말고 요즘와서는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애들의 외치는 소리까지가 무서웠다. 저게 큰놈 동아가 아닌가, 저게 들쨌놈 남아가 아닌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해지곤 하는 것이다. 그게 어두운 밤이면 더했다.

② 그러자 내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것은 한 사람의 중년 사내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안고 그것을 감출 적당한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어둠속을 헤매고 있는 한 장의 판화였다.

나는 이 판화 속 사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서 뜰아래 우리 방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돌아가 이날 밤도 같은 어둠 속을 몇 장의 신문을 안고 헤매다 돌아온 우리 두 어린것의 이불자락이라도 여며주고만 싶었다.(2:187,196)

「어둠속에 찍힌 판화」는 피난생활로 인해 한 칸짜리 뜰아랫방에 거주하는 ‘나’의 괴로운 의식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죄책감과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아버지로서 거리에서 신문팔이 아이들의 외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거리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 “그게 어두운 밤이면 더 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미안함과 괴로움에서 야기되는 것으로서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상황에서 어린 자식들을 거리의 신문팔이로 내몰아야만 생계가 가능한 ‘나’의 현실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는 주인집에서 초대할 술좌석에서 들은 사냥터의 노루가족 이야기를 듣고 ‘어서 우리 방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몇 장의 신문을 안고 돌아온 두 어린 것의 이불자락이라도 여며주고만 싶’다는 생각을 한다. 주인사내는 ‘나’에게 사냥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혼한 지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 안택네가 임신을 하게 되고, 태중에 좋다는 노루나 사슴의 피를 먹여보리라는 생각에 포수인 주인사내가 아내를 데리고 사냥을 떠났다. 사냥나간 다음날로 적잖이 큰 노루 한 마리를 쏘아 잡았는데, 이 노루가 새끼를 뱀 암노루였다. 그날밤, 이집 안택네는 “이 세상에서도 애절하기 짝이없는 짐승의 울음소리”(2:193)를 듣게 되고 이것이 수노루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유산을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때 이후로 아이를 가지면 계속해서 유산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황순원 특유의 유다르 가족에 대한 애착의 정신이 노루가족의 비극의 묘사를

통해 강조되는 현상을 수반한다. 즉 노루가족은 암노루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태중의 새끼가 죽임을 당하고 잃어버린 혈육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에서 애절하기 짝이없는 울음을 우는’ 수노루와 노루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과 비유되는 상황에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가는 전달하려고 한다. 비록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황순원의 역사의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식을 향해 따뜻한 부성애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의 소설이다. 부정적인 현실이 ‘나’한테 가하고 있는 억압의 정도가 크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삶에 대한 긍정정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난생활을 그리고 있는 것이 「곡예사」이다. 「곡예사」는 ‘방’을 소재로 해서 대구와 부산의 두 변호사택과의 몰인정한 인심의 사이에서 곡예를 하고 있는 황순원 일가의 이야기를 신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황순원의 피난생활의 애환은 최고조로 나타난다. 이것은 소설의 ‘책 끝에’ 실린 내용으로 “이것을 쓰면서 나는 나 개인의 반감, 증오감, 분노 같은 것을 억제하기에 적지 노력해야만 했다”(2:252)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순원이 피난생활에 경험했던 분리, 박탈, 추방감의 ‘유랑의식’이 다른 작품에 비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나’는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부산 와서도 변호사택 신세를 지게 됐다.”(2:197)고 먼저 서두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신세를 지게 됐다’는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 소설의 서두의 내용으로 보아 피난살이에서 남에게 고마운 도움을 받는 내용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소설의 내용은 이와는 사뭇 다른 피난살이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방을 빌려준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과 야박한 인심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작가의 피난 시절을 회상에 의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신세를 지게 됐다’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그 체험에 대해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설의 서두에 사용된 말투다. 변호사택의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해야 하는 황순원의 가족은 이 집에서 몇 가지 지켜야할 주의 사항¹⁴⁷⁾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정원 한구석에 거적뎀 변소를 만들어 사용해야 했다. 이러한 주인집 노파는 피난민들에게 혐오감을 느

147) 이택 장모되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어슬해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와 물을 길어가서는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길은 뒤에야 물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하한 빨래건 빨래 종류는 일절 금지라는 것과 안뜰 변소에는 들어와 더럽혀서 안 된다라는 규칙이다.

껴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나’가 보기에 고상한 척하는 인간 유형이다.

주인집의 업신여김과 모멸감을 받은 ‘나’의 감정은 자기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의 아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매우 불안해 한다. ‘나’의 넷째 선아의 신발이 없어지면서 “얇는 사람의 나이와 같은 사람의 신발 한 짝을 가져다 어찌어찌 하면, 그 얇는 사람의 병이 신발 주인에게로 옮겨간다는 것”(2:199)을 들은 후부터 ‘나’는 넷째가 얇게 될까봐 노심초사한다. 이러한 ‘나’의 심정은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는 노파가 몰인정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나’의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소설의 서두에 변호사택에서 ‘나’의 가족을 멸시하는 내용을 전부 서술해 놓고서 이후에 노파가 몰인정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역으로 노파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뜻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⁸⁾ 노파의 친구들에 의해 거적뿔 변소가 들통 난 이후에 구공탄을 들이는데 황순원 가족이 살고 있는 방(실은 헛간)을 사용해야겠다고 비워달라는 말을 듣게 된다.

변호사택 헛간에서 쫓겨난 “황순원 가족 부대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삼차, 드디어 삼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내려오게까지 되었”(2:100)던 것으로 부산에서 살게 되는 집이 또 변호사택이었다. 이집 또한 상당히 큰 화양식 저택으로, 애 셋인 처제네 식구와 ‘나’의 식구가 살기에 별 무리가 없는 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인택이 별안간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처제가 방을 얻을 때 안면을 빈 분이 다른 데로 인사이드가 있는 날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이후로 매일같이 주인택에서 방을 비워내라는 독촉이 심해졌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황순원 가족은 분산해 숙박하기로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피난민의 애환과 설움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물리적 억압에 의해서보다는 주인집의 몰인정하고 야박한 인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은 회상에 의한 서술임

148) 이러한 점은 소설을 읽다보면 느껴지는 것으로서, ‘나’는 넷째 선아의 신발을 훔쳐간 것이 변호사택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어떠한 단서를 찾거나 보지 못했으면서도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의 사는 모습과 이들이 ‘나’의 가족에게 가했던 혐오감이나 모멸감들을 서술해 놓고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니는 노파가 그렇게까지 몰인정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사실에 대해 고상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보는 심정을 나타낸 글이라 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 피난생활 중에 받았던 굴욕감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곡예사」에는 ‘나’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 소설은 ‘나’를 포함한 ‘우리’의 피난민체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피난민생활에서 오는 박탈감이 오히려 ‘우리’를 결속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아내는 국제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고 위로 큰 애 들은 미군부대에서 장사를 한다. 이러한 자식들이 “어미 아비와 조부모 앞에 흥겹게 품속에 넣어가지고 온 담배보루며 껌곽을 숨씨빠르게 꺼내어 놓”(2:209)는다거나 변호사택에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쳐서 동생들이 노래하지 못하게 하던 선아가 어두운 밤길에서 “울동까지 섞어가며 한다. 흡사 어둠속을 날아가는 나비와도 같이”(2:210), “진아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냥 토끼 뛰는 시늉을”(2:211) 하며 회상을 하는 과거의 의식 속에 일어난 일들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체험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젖어있다. 이러한 ‘나’의 감상은 소설의 말미에 새롭게 재구성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밤 프로는 이것으로 끝막기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탓으로 이렇게 초라한 곡예가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곡예단을 이처럼 사랑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단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녕히들 주무세요. 굿바이!(2:212)

‘나’의 가족들과 함께 겪었던 피난생활에 ‘곡예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 이러한 점은 “현실의 고난을 예술을 통해 초극화”¹⁴⁹⁾하려는 체험의 재구성인 동시에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게 만든 것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의 신뢰나 연민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삶의 피폐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전달한다. 피난살이의 애환을 가족애를 발휘하며 살았던 삶이 ‘나’가 더욱 유다른 가족애를 드러내게 된 배경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비록 전쟁 중이라서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식에 대한 ‘나’의 사랑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소설이 「곡예사」이다.

149) 이보영, 「황순원 재고」, 『월간문학』, 1974, 8, 35면.

“나만큼 아이들 이야기를 쓴 사람도 드물게다. 아이들 것을 쓸 때는 언제나 즐겁다”(2:231)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삶에서 긍정의 의미를 갖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1950)은 피난지에서의 어른들이 느끼는 야박하고 불안한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불안에 허덕이고 먹고살기에 시달려 아침저녁 눈살만 찌푸리게 되는 어제오늘의 어른들의 세계 한옆에는 이렇듯 아직 사랑스러운 어린애들의 구김살없는 생활도 있기는 한 것이다.”(2:182) 피난길의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아이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순수의 미학은 전쟁의 상흔에 시달려 지쳐 있는 어른들의 마음에 일시적으로나마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작가는 피난지 주변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전쟁과 대비된 동심의 세계의 경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순수한 삶이 오염되거나 파괴되고 사랑받아야 할 어린존재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개구름 끼다』, 『인간점목』, 『목숨』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근본적으로 모성애적인 보살핌의 시선 속에 감싸여진 아이들의 세계는, 그러나 부성성의 세계와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황순원 문학 전반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은 기실 모성성과 부성성 사이의 대립적인 긴장보다는, 길항적인 공존관계라고 할 수 있다.”¹⁵⁰⁾ 황순원의 작품에서 긍정적인 부성성이 한국전쟁 이전에는 선비적인 자세나 정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세습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아이들이 동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들은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짙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¹⁵¹⁾

황순원 소설의 긍정적인 부성성은 『안개구름끼다』(1958)를 통해 ‘나’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까지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나’라는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겪고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두의 (4:83-87)에 해당되는 부

150) 박혜경, 앞의 책, 42면.

151) 『부끄러움』(1954)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였던 부산의 호형의 서재에서 허형이 하는 꿈의 모성성을 들은 ‘나’는 이십 년전에 죽었던 딸아이를 생각하게 된다. 죽은 새끼를 여러 번 들여다보는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아내는 ‘어떤 알지 못할 무서움’으로 인해 후에 아이가 생각키울 물건들을 모두 내다 버리고 가마니에 싸서 묻으러 가는 아이의 얼굴조차 마주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반성적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에 ‘나’의 피난지에서 생활이 회상되고 그곳에서 만났던 소녀와 ‘나’의 자식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가 창작할 펌프소년의 이야기가 ‘원인 모를 열’로 인해서 서로 연결 고리를 맺는다. 피난지에서 ‘나’는 술 한 잔 값을 감해주었던 소녀의 생각으로 인해, ‘나’는 ‘나’의 생활 주변을 스치고 지나간 아이들의 중에 펌프소년의 이야기를 쓰기로 한 것이다.

‘나’는 부산 피난 시절, 자갈치시장 쪽 부둣가에 있는 선술집에를 단골로 다닌다. ‘나’는 이 술집에 갔던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고료를 받아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던 관계로 다른 때보다 두 잔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심부름하는 계집애가 주인아주머니 몰래 한잔 값을 덜 받는다. ‘나’는 술에 취해서 바다가 보이는 돌출대에 서서 피난민으로의 심산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① 약간 취기가 돈 나는, 이 자식아, 난 아무데도 떠날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가슴속을 흔들어놓는 소릴랑 작작울러라, 그러다다가 나는 갑자기 거기 그리고 서있는 나 자신이 다시없이 처량해 보였다(4:84)

② 사태가 급해져서 영도루 건너가야만 할 때 말이다, 내 처자들만 건너가자마자, 아니 가 먼저 건너가자마자 심술궂게 그 다리 한편을 쳐 들어가겠단 거지? 평양서 온 내 친구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대동강 선창까지 나와 보니 어제까지 성했던 다리한 가운데가 끊겨져있더라, 할수없이 처자는 거기 남겨두고 자기만 혼자 능라도 쪽 좁은 살얼음진 데를 헤엄쳐 건너왔다는 거다, 그래 네 놈도 우리 가족에게 그 맛을 봐야겠다는 말이지? 이 자식아, 그런 흥겔랑 버려라, 전쟁고아는 이만하면 족하다, 평양은 그만두고 지금 한국 남단의 항구 이 부산거리에만두 부모와 고향을 잃은 애가 지천으루 깔려있다, 그래두 부족하냐?(4:86,87)

위의 인용문으로 작가 황순원의 떠돌이로서의 정조를 집약해서 알 수 있는데, 전쟁을 겪는 ‘나’의 마음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월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에서 박탈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아무데도 떠날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런 ‘나’가 스스로 보기에 처량해 보이며, ‘나’는 전쟁이 지속되어 사태가 급해지면 가족과 헤어지게 되거나 자식들이 고아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나’는 자식들이

꼭두새벽에 서면 양키부대에 가서 잔물건을 사다가 목판장사에게 넘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자식들의 “궁상스런 피난생활 얘기를 쓴”(4:84) 고료를 받은 날이어서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자 한다.

‘나’는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술값을 깎아 준 소녀를 상대로 이야기를 건넨다.

① 내 다 알지, 너희 아버지는 별루 허는 일 없이 밤낮 술만 자시구, 그래서 마지막에는 널 이런 데루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됐지, 내 다 안다, 그래 너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구 있지? 그렇지, 원망할 건 원망해야지, 그러나 말이다, 너희 아버지두 널 생각허구 있다,

지금두 술은 끊지 않았지, 별루 하는 일 없이 예전대루, 아니 예전보담 더 많이 마시지,

헌데 말이다, 술을 먹을 적마다 네 생각을 하거든, 네가 집에 있을 땐 걸핏하면 너더러 외상 술 더 받아오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구 매질거지 하던 아버지가 지금은 그애가 낫설은 곳에 가서 잘 있거나 한지, 어디가 아파 누워있거나 않은지 하구 말이야.

② 무엇보다도 전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주절대는 게 이상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가만있지 않았다. 애, 너 그런 눈으루 날 보지 마라, 그 누굴가없이 여기는 눈으루 날 보지 말란 말이다, 대체 네가 뭐라구 날 동정허구 어찌구 하는 거냐, 우리 집에는 너 또래의 사내놈이 있다만 그 놈들의 눈이 생각나 못견디겠다.(4:85)

위의 인용문은 ‘나’가 소녀를 향해 술에 취해 늘어놓는 녀두리의 내용이다. ①은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소녀의 아버지를 통해 ‘나’의 마음을 드러내놓는 내용이다. 부모 노릇도 하지 못하고 자식을 돈벌이에 내보내고 술만 마시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②는 ‘나’를 바라보는 소녀를 통해 소녀 또래의 ‘나’의 아들 들을 생각하며 ‘그 놈들의 눈이 생각나’서 못견디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나’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쟁고아가 된 펨프소년의 이야기로 전이된다. 펨프소년의 이야기는 전쟁고아가 갖고 있는 상흔으로 인해 윤리가 부재하게 된 원인을 사회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잡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¹⁵²⁾

황순원 소설의 긍정적인 부성성은 ‘나’의 조상에게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그의 소설 「할아버지가 있는 데쌍」(195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황순원의 가계(家系)에 대한 “족보조차 수중에 없는 형편”(4:102)이라 선조들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나’의 권위와 정체성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창작된 소설이다. “고향에라도 갈 수 있는 몸이라면 족보와 문집 그리고 족장 어른들한테서 참고될 말씀도 들을 수 있으련 만”(4:107)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육대 방조인 황염조를 소설화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나’는 고서의 상당부분을 인용해가면서 예를 든다. 이러한 황염조는 “한 인간으로서의 결함된 성격이 왜 그런지 도리어 가깝게 느껴지는 것”(4:101)으로, 현실의 ‘나’와 선조를 일치시키고 그 뿌리에서 나온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많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있는 책에서 그대로 따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역사적 재료로 해서 과거의 ‘나’의 삶을 복원하고 현실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 ‘나’가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나’의 남한에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의 인물들을 불러들여 긍정적인 부성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욕망은 ‘나’가 가장 가깝게 보고 기억하고 있는 조부의 모습으로 실현된다. “이상하게도 염조 선조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 친조부의 임종”(4:117)으로, “나도 이후에 내 마지막날을 이처럼 끝마칠 수 있기를”(4:121)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적 자료로 검증된 인물인 황염조 선조와 ‘나’가 기억하고 있는 친조부의 모습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조부의 모습은 ‘나’가 “졸작 <기러기>와 <황노인> 등 몇 작품에서 이 할아버지의 편모를 데포메이션하여 그린 일이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의지가 굳고 끝으신 어른”(4:117)으로 ‘나’에게 기억되어 있다.

152) 「안개구름끼다」에서는 파쪽의 누이와 명자와 같은 희생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외국군인 세 녀석에게 쫓겨 들어오는 어떤 소녀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후에 대신 그 일을 당한 창녀의 이야기나 「맹아원에서」 영이는 서울서 피난을 내려오다 박격포의 파편에 맞아 맹인이 된 후, 가족에게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맹아원에 들어와 자살을 기도하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삶의 희망을 얻게 되는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파쪽과 같은 전쟁고아의 이야기는 「인간접목」과 같이 전쟁의 비극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황순원의 소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창작의 동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전쟁소설인 「목숨」(1951)에서 낙오병으로 산 속을 떠돌던 강서방이 같은 군대 소속인 열네 살의 소년을 살리기 위해 엮고서 “사람살레라”(2:180)하고 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서 작가의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성성을 엿볼 수 있다.

할아버지께서 내 절을 받으시며 웃음을 띠우실 때는 위아랫수염이 가만히 병을며 그 사이로 하나하나 떨어져있는 성기고도 잔 이가 드러나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 웃음뎀 입모습을 바라볼 적마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누구와 별반 의논성있게 말씀을 주고받는 일이 없으신, 어느편인가 하면 좀처럼 가까이하기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웃음을 띠 때의 입모습만은 그대로 갓난애의 웃음에서나 볼 수 있는 티없이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할아버지의 미소도 내가 장성하면서부터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내 절을 그저, 응 지금 나오냐, 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받으시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내 가족이 시골로 소개를 나가게 되자 오래간만에 지난날의 그 웃음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내 어린것들(중손자)을 보시고 그 웃음을 띠우신 것이다. 흰 수염 속에서 웃음뎀 모습은 한층 티없이 맑고 부드러우셨다.(4:118)

‘나’의 할아버지는 별로 웃는 낯을 해보이시는 일이 없으셨고, 더구나 파안대소하시는 걸 보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나’가 어렸을 때와 ‘나’의 자식들을 볼 때만 갓난애의 웃음에서나 볼 수 있는 티없이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웃음을 웃는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나’가 동일시되고 싶은 인물로서 아이들을 볼 때만 웃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성상이 세습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피난지를 떠돌면서 생활하는 황순원의 소설세계에서 아이들을 통해 삶과 창작의 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황순원의 소설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부성성의 세계를 분석하는 일은 모성성의 그것에 못지않게 그의 문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¹⁵³⁾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육친적인 상실감과 모성의 지향

황순원의 소설에서 모성성의 탐구는 초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후기의 장편소설에

153) 박혜경 앞의 책, 42면.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인다. 황순원이 추구하는 모성성을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추출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순원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성성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성성과 부정적인 모성성이 혼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어머니의 존재는 희망과 조국과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중인물들은 역사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유랑의식’의 동력이 되어 나타난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부정적인 어머니가 묘사되고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모성성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의 동력으로 모성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1) 결핍된 모성성의 추구하고 상실감

황순원의 작품에는 작중인물들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적이고 단절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항상 그 기저에는 결핍되고 불구적인 모성성이 존재한다. 모성성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심리는, 유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주체를 형성한 뒤에도 공백감으로 남게 되며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사람”¹⁵⁴⁾이라는 ‘유랑의식’을 갖게 된다.

황순원의 초기 단편에서 「늪」, 「허수아비」, 「원정」, 「배역들」 등의 작품에서도 근원적 모성 상실감으로 인한 불안감의 의식인 떨림이나 발열, 현기증 증상들을 드러내며 불구화된 근대 지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나가는 비」에서는 사생아 의식으로 나타나고 「갈대」와 「사마귀」에서는 불구적인 모성성으로 인해 조숙하고 위악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한 잃어버린 모성성으로 인해 건강한 부성적 세계로의 정상적 진입에 실패한 인물로는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움직이는 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황순원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유랑민임을 의미한다.”¹⁵⁵⁾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154) 이상우, 「실향민의식」, 『육망의 서사에 비친 우리들의 초상Ⅱ』, 월인, 2001, 229~230면.

155) 손화숙, 앞의 책, 204면.

이러한 모성은 황순원 문학세계의 근간이며 그가 추구하는 작가정신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불구적인 모성성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 건강한 부성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부정적인 어머니의 존재는 희망과 조국과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중인물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황순원 소설에서 부정적인 모성성의 빈번한 형상화는 거꾸로 긍정적인 모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순원 소설의 남성인물들이 건강하고 조숙한 여성인물들과 대면했을 때, 모두가 예외없이 떨거나 현기증을 느낀다. 이러한 떨림은 초기 단편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후들거림, 천식 등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황순원 소설세계에서 남녀의 애정문제는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위태롭고 어긋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소설의 남성인물에게 결핍되거나 부정적인 모성성이 그 기저에 있음이 밝혀진다. 그래서 황순원 소설세계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남주인공들이 여성에게 여성만이 아닌 모성까지를 추구했던 것은 황순원 문학에 있어서 한 뚜렷한 특질로 파악”¹⁵⁶⁾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작가의 출신환경, 체질, 기질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상적 발전까지도 다각도로 예시한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작품”¹⁵⁷⁾이라고 본 「허수아비」를 통해 알 수 있다. 「허수아비」는 ‘1)부조리한 일상에서의 탈출의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준근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을 하게 됐던 거리의 여자 남숙에게 ‘다시 온전한 여인’이 되라는 결정을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모성을 통해서만 부정적인 현실의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황순원의 작품들은 남성주인공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병약함에서 오는 허무의식과 죽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성성에서 찾는다. 따라서 “여러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불구적인 모성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황순원의 작품들에서 모성성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세계, 혹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감싸안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세계로 그려진다.”¹⁵⁸⁾

156) 장현숙, 「황순원의 초기작품연구—단편집 『눈』을 중심으로」, 『경원공업전문대학논문집』 제7집, 1986

157) 이보영, 앞의 책, 36면.

그러나 '희망'의 모성성을 찾아 유랑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은 「별」에서부터 시작된다. 단 이미 결핍되어 있는 어머니다. 「별」은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절대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는 아이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는 누이가 아무리 죽은 어머니처럼 사랑을 베풀어도 그 애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아이는 누이→이쁜 뒷집 계집애→소녀의 사이에서 절대화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아다니는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죽어서 아이의 기억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없다. 그러나 기억에 없기 때문에 아이는 상상속의 절대화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이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현실에서 실제로 소유하려고 하는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머니의 모습과 대체될 수 있는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운 누이를 어떠한 갈등도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아이의 내면에서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절대적으로 이상화된 존재임과 동시에 아이의 현실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존재¹⁵⁹⁾하기 때문이다.

「왕모래」¹⁶⁰⁾에서 어머니는 「별」에서처럼 상상속의 어머니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별」처럼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어머니이다. 「왕모래」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인물로서 정염의 욕망을 찾아 행동하는 어머니이다. 돌이가 새벽녘에 잠든 어머니의 가슴을 더듬으면 핵 손을 뿌리치며, “왜 년 세상에 나와가지구 이 성화냐”(3:23) 하고 돌아누워 버리는 매정스러운 면을 갖고 있다.

돌이는 세든집→소슬대문→포목집→농기구점→곰보집→여관으로 유랑생활을

158) 박혜경, 「현세적 가치의 긍정과 미학적 결벽성의 세계」, 김종희 편, 『황순원』, 새미, 1998, 101면.

159) 「별」에서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조국, 고향, 꿈, 희망 등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비워져 있는 마음의 공간 즉 자궁과도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이가 다가갈 수 있는 실체로서의 어머니보다는 그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것이 더 이 소설에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현실에 없는 것을 찾아 헤맨다는 뜻에서 어머니가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고는 보고 있다.

160) 1954년 『신천지』에 발표할 당시의 제목은 「윤삼이」였다. 이후 개작 과정을 거쳐 「왕모래」로 바뀌었다.

하며 어머니를 기다린다. 「왕모래」에서 요강, 왕모래, 젓가슴, 곰보아주머니는 상징화되어 있어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돌이가족의 욕망은 ‘요강’을 매개로 하여 표현된다. ‘요강’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어머니를 타락으로 이끌었으며, 돌이로 하여금 어머니를 죽이게 만들었다. 돌이의 아버지는 사금관에서 “금싸래기구 왕모래구 마구 집어삼키”(3:29)고 돌아와서 “요강에다 뒤를 보아”(3:30) 글을 찾아내는 행동을 하다가 창자가 꿰어 죽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금관 감독을 만난 이후로 저녁이면 집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와 요강소리를 내는 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불건강한 어머니를 표상한다. 돌이 또한, ‘요강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요강’에 대해 집착을 보이는데, “이 요강으로 해서 어머니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3:33)는 욕망을 분출한다.

이 소설에서 돌이의 유랑생활과 함께 어머니의 유랑생활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자 사금관 감독→철도 감독→신길의 영감을 따라 유랑하며 산다. 이러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보다는 여자로서의 본능에 충실한 인물로서 사금관 감독과 철도 감독에게 버림을 받자 신길의 영감마저 자신을 버릴까봐 신길의 영감이 시키는대로 아편약을 맞다가 중독자가 되어서 돌이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실존적 인물로 어머니가 형상화 되는 것에는 전후 소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현실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작중 인물들의 삶은 황순원의 전후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인 전쟁의 폭행을 다루진 않았지만, 전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오히려 ‘과멸’된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절대적 순수함을 지녔던 아홉 살의 돌이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유랑생활을 하다가 열일곱 살이 되어 돌아온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타락한 습성이 몸에 배여 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에서 돌이는 한 번도 자신의 유랑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물론 나이가 어린 탓도 있겠지만,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곰보아주머니의 의견과 행동에 따라 현실을 수용할 뿐이다.

① 새벽녘에 돌아오는 어머니는 먼저 요강을 찾았다. 그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어느새 그렇게 잠귀가 밝아진 돌이었다.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쓰는 어머니의 가슴을 더듬곤 했다.(3:23)

② 어느날 밤이었다. 변소에를 가려고 안방 미닫이 앞을 지나가 저도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미닫이 유리창 안에 애가 지금 어머니의 젖가슴을 안고 잠들어있는 것이었다. 애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한 팔을 목에다 걸고.

문득 돌이는 자기도 어둠속에서 어머니의 가슴을 더듬었다. 어머니편에서도 같이 안아준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 어머니는 저쪽으로 돌아눕고 만다. 돌이는 급히 미닫이 앞을 떠나고야 말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미닫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3:28)

③ 어머니는 돌이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듯이 하여 미리 간수해두었던 주사기에 옮기기가 바쁘게, 후들거리는 손으로 가족만 남은 젖가슴을 짚었다.(3:34)

위의 인용문들은 돌이가 찾고 있는 젖가슴이 모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들이다. 이 때 젖은 “보호와 긍정의 상징”¹⁶¹⁾을 나타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돌이가 찾는 것은 어머니의 모성성이다. ①은 아홉 살의 돌이가 새벽녘에 돌아온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다가 거절당한다. ② 농기구점의 안방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리워하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을 회상한다. ③ 돌아온 어머니가 아편약을 스스로의 손으로 가족만 남은 젖가슴을 찌른다.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유랑하던 돌이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어머니가 이미 아편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젖가슴에 스스로 아편약을 찢어 넣는 것을 보고 돌이는 자신이 찾고 기다려온 어머니가 아편을 알고 살해하기에 이른다.

돌아온 어머니는 위의 인용문 ③에서와 같이 이미 가족만 남은 젖가슴에 아편약을 스스로 찢어 넣는, 즉 긍정적인 모성성을 잃어버린 한 중늙은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를 위해 돌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눈물로써 아편약을 구하는 일뿐이다. 돌이는 유랑생활을 하며 정착하려는 ‘희망’을 품게 했던 어머니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해 버린다. ‘요강’의 꿈과 ‘판자집’의 이상화된 현실은 결국 꿈과 이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요강을 통해 어머니를 소유하고자 했던 집착도 판자집에서 어머니와 세튼집에서처럼 살고자 했던 욕망도 모두 물

161) Fromm, E. 『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0, 61면.

거품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과부」(1952)에서 한씨부인은 소년과부로 한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며, 팔촌동서인 박씨부인은 시댁의 먼 시형뻘되는 사람의 아이를 몰래 낳아 다른 곳으로 보낸 비밀을 간직하고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한씨부인과 박씨부인의 순응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아온 '나그네'의 삶이다. 이 소설에서 이름도 없는 아들을 상징화하여 나타내는 '나그네'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찾아 사십 년 만에 자신이 출생한 곳을 찾아왔지만, 한씨부인은 스스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들을 다시 떠나보내고 만다는 것에서 비극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를 눈앞에서 만나고도 아들은 다시 고향을 떠나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의미에만 머물러야만 한다. 이 소설에서 박씨부인은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여 핏덩이의 아기를 버린 부정적인 어머니라고 볼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긍정적인 어머니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로 형상화된다. 그렇기에 작가는 환경에 순응하고 자식을 떠나보낸 박씨부인이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작가 황순원이 찾고 있는 긍정적인 어머니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긍정적인 모성성은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필묵장수」를 통해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국전쟁이라는 폭력성에 의해 결핍된 모성성을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폭력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전세대 특유의 작가의식으로써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동일한 근대의 폭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노인은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잃고서 소아마비가 걸린 다리를 이끌고 삼십 년 동안 “이고장 저고장을 떠돌아다니는 신세”(3:128)이다. 어렸을 적 서노인의 아버지가 아들의 소아마비 걸린 다리 때문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생업을 마련해주려고 글씨쓰기와 목화 치는 것을 배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서노인은 필묵장수로 유랑의 삶을 살게 된다. 서노인의 삶은 개화문명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에 서당문이 닫히고 사삿집에서도 필묵을 사주는 사람이 줄어들어가면서 필묵장수로서의 반생의 세월이 넘도록 고됨의 연속이었다.

서노인은 해방된 이듬해, 중늬은이 여인이 혼자 사는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다. 이

여인은 태평양전쟁 때 일본으로 징용 뺏혀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으며, “아들이 징용 뺏혀 나간 뒤로는 거지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노라고 하면서, 서노인더러 이곳을 지나게 되는 때는 아무 때고 와 주무시고 가라고”(3:128) 한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장가보낼 혼숫감으로 서노인의 버선을 새로 지어준다. 아들의 혼숫감으로 서노인의 버선을 짓는다는 것은 서노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어머니와 동일시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은 “서노인으로서의 칠십 평생에 처음 맛보는 따뜻한 정의”(3:129)로서 오랜 유랑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든 서노인에게 긍정적인 모성성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서노인이 유일하게 경험했던 긍정적인 모성성에 대한 답례로 새롭게 대화를 친 그림을 가지고 다시 모성성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 길은 가로막히고 만다. 전쟁으로 인해 서노인의 칠십평생에 처음 맛본 긍정적인 모성성은 해체되고 결국 서노인은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죽는다. 이 때, 서노인은 그때까지 간직했던 “버선을 신겨”(4:133) 달라는 유언을 통해 죽음으로써 긍정적인 모성성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남주인공들이 여성에게 여성만이 아닌 모성까지를 추구했던 것은 황순원 문학에 있어서 한 뚜렷한 특질로 파악되는 것이 「막은 내렸는데」(1967)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작가가 좌절에 빠진 한 남성의 자살하는 장면을 쓰기 위해 그의 행동을 좇아가는 과정이 소설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인공이 자살하려는 원인은 “서로가 배반하지도, 배반할 수도 없는 얼굴들”(5:161)로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들의 “뒤엎어진 얼굴들이 꾸민 추잡스런 거래(5:168)”로 인한 변심 때문이다. 남자는 진열된 보석장을 바라보며 “한번도 이러한 것들을 소유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5:160)것을 느낀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유를 향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가 결여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남자는 자살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거리를 배회하며 한강으로 나갈 차비만을 남겨두고 다 쓰기 위해 거리에서 만난 창녀를 따라 들어간다. 창녀는 이제 백일을 지난 아이를 기르느라 통통 붙은 젓가슴을 통해서 자살할 남자를 구원할 수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남자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는 창녀의 젓가슴을 빠는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살하려는 의도를 멈추고 만다.

사실 남자는 조금 전까지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는 분명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러나 말로는 그게 어떠한 것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없었다. (중략) 그런데 다가온 시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초침들이 분주히 돌아간다. 뒤이어 가지각색의 보석 귀금속들이 지나름대로의 모양을 지니고 지나름대로의 광택을 발하며 다가오더니 결의 어둠속 여자에게로 짹짹 뿌려진다, 뿌려진다.(5:168,169)

남자가 젓가슴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자살하려는 의도를 멈추자 작가는 그렇게 되면 “추잡스런 인간관계 속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정신을 차리고 자살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남자는 젓가슴을 빠는 행위를 통해 분명 자기가 달려졌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살하기 위해 멈추었던 생의 활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서 몇몇 시간들이 흐르기 시작한다. 창녀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쉽게 했던 것처럼 남성을 안아주는 모성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는 상처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생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젓가슴을 빠는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태속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무한한 휴식과 “안온한 마음”(5:169)을 얻게 된다. 이는 세상살이에 지친 남성을 치유해주는 힘이 모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반영한 작가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자는 긍정적인 모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재생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황순원 소설의 긍정적인 모성성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여야 하는데, 몸을 파는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창녀지만 모성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남자를 자살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창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아이를 갖게 되는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기르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결국 “근원적인 인간구원의 원천으로서의 모성을 그려낸 성공적인 작품”¹⁶²⁾으로서 모성이 갖고 있는 생명의 복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자연」(1966)에서 주인공은 ‘몸냄새’로 상징화되어 있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찾아서, 어머니→후모→너 경계에서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상실한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욕망을 상징화한 것으로 주인공이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찾아 ‘너’에

162) 천이두, 「원숙과 패기」, 『문학과 지성』 여름호, 1976, 516면.

게 “어머니처럼 풀려들 수 있”(5:92)기를 바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 천식증세는 “몸냄새”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써, 작중화자인 ‘나’의 내면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너’라는 여성의 몸을 욕망하는 순간에 ‘너’에게서 나는 몸냄새를 맡고 천식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천식증세를 통해 ‘나’는 어머니와 후모에게서 났던 몸냄새가 갖고 있는 유례를 회상하게 된다. 몸냄새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데,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구”(5:92) 후모와 판살림을 산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냄새가 사라졌음을 알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후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후모에게서 나는 몸냄새를 맡은 순간에 천식증세를 첫 번째로 드러낸다. 냄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의 냄새”(5:93)로 어머니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후모의 냄새에 풀려들 수 있었으나 ‘나’는 후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으로 천식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후모를 “어머니라고 불러오고 있”(5:93)는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천식증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세 번째 천식증상은 ‘나’에게 있어서 ‘너’가 애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후모와는 다르다. “오랫동안 ‘너’를 만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몸냄새를 새삼 느끼게 된 것은 마치 늘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냄새를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의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및 내부 세계의 변화와 관련된다.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변화를 암시한다.”¹⁶³⁾ “나는 너에게 내 어머니에게처럼 풀려들 수 있음을 느꼈다. 기뻐다. 이제야 네게 향한 내 애정의 바로미터라도 확인”(5:104)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너’에게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 모성을 갈구하고 있는 관계로 전환하려고 한다. 세 번째 천식증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나’가 너를 어머니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를 어머니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연’에 적응하려고 한다. 즉 몸냄새라는 자연에 ‘나’가 적응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와 처음가보는 낯선 뒷거리에서 ‘너’를 여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호텔로 들어가지만 그

163) 허명숙, 앞의 책, 86면.

곳에서 ‘너’의 몸냄새를 수술했다는 말을 듣고 ‘나’의 “남성이 위축되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5:108,109)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너’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아서 ‘나’가 찾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에게서 모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내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마흔 셋의 남자로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희망’이나 ‘기대’가 어긋나는 삶만을 살아왔던 것이, 번역일에 거는 기대마저 깨져버리자 삶에 대한 무관심과 권태에 빠져 살고 있다. ‘나’는 “무관심과 권태 속에서 그래도 아직 어떤 생을 느끼게 해주는”(4:214) 술을 마시게 되고, 이 술 덕분에 “권태와 무관심을 맛본”(4:218) 젊은 여자 하나를 알게 되면서,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은 ‘나’하과의 결혼에 있어서 남녀의 육체적인 행위와 애는 낳지 말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여성은 황순원 소설에서 추구하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실현할 수 없는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통해 기대하던 일에서 거절만 당하던 것¹⁶⁴⁾과는 반대로 ‘나’가 먼저 여성과의 결혼을 거절하는 편지를 쓴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결핍된 모성성을 찾아 유랑하는 작중인물들이 만나야 할 긍정적인 모성성은 어떻게 형상화 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도 ‘유랑의식’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긍정적인 모성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유랑하는 작중인물들에게 이타적인 희생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난다. 황순원 소설에서 긍정적인 모성성이 등장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창작된 「기러기」와 「맹산할머니」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고 있다.

「기러기」(1942)의 셋네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팔삭둥이를 낳고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인물인데, 이러한 셋네에게 아이는 그녀에게 삶의 의지처가 되어 주는 것으로, “애에게만은 아비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1:209)되겠다는 생각에

164) 거절은 네 가지의 사건으로 회상된다. ①어머니의 그림자에 놀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는 학교에 입학할 기대감을 갖고 잠이 들었는데, 방문 밖에 비친 빨래의 그림자에 놀라게 된다. ②‘나’가 다니던 소학교가 늘 소풍만 가면 비가 왔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서 소풍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나’는 다치게 되고 소풍을 가지 못하게 된다. ③중학교 때, 한 소년을 좋아해서 자주 편지를 보내게 되고, 소년을 향한 마음에 며칠 밤을 세워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갔지만, 소년이 못생긴 여자아이의 편지를 받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편지를 찢어 버린다. ④대학교 때,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소녀가 ‘나’의 잇사이에 있는 고춧가루로 인해 떠나 버린다. ⑤전공해 온 학문을 의의있게 살리고 싶어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번역을 하지만, 출판사에서 흥미물이나 시사물이 아니라고 거절당하고 권태와 무관심 속에서 산다.

췌네는 만주의 어디로 떠나버린 남편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동안 순응적인 삶 속에서 불행을 경험했던 췌네의 내부에서 자생한 최초의 생의 의지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깨어진 가족을 한데 모아서 남편과 아이를 포용하고 보살필 것이라는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맹산할머니」(1943)는 헌신적인 보살핌과 자기희생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천식노인을 살린다. 「맹아원에서」 영이는 서울서 피난을 내려오다 박격포의 파편에 맞아 맹인이 된 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몰래 집을 나와 맹아원에 살다가 남자의 배신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새롭게 삶의 희망을 갖는 인물이다. 「겨울개나리」(1967)에서 아줌마는 뇌종양에 걸린 영이를 “가족들의 발길이 차차 병원에서 떠”(5:141)간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뿌리」에서 교회아줌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목사댁으로 오기 전에 날뎠을 팔이와 식모살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목사 사택에서 죽어가면서 환상을 통해 그리워하던 아들과의 재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연구했던 「막은 내렸는데」와 「필묵장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모성성과 대면할 수 있다.

2) 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의 의미

황순원의 모성성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소설 속의 남성주인공들이 정신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지리적인 고향’→ ‘모성성을 가진 여성’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내재적 변화의 원인은 고향과의 단절과 관계되며, 남성주인공의 ‘유랑의식’과도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는 또한 정착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속의 남성은 항상 ‘모성성을 지닌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여성’의 경계에서 유랑하다 결국은 이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착생활에 실패하게 된다. 황순원 소설에서 남성주인공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헤매면서도 어떤 여성에게도 정착할 수 없는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모성성을 지닌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에게 이미 훼손된 고향을 의미하기에 선택할 수 없고,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의 남한에서의

생활이 그가 떠나온 고향에서의 유년시절과 같이 자족적인 삶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기에 선택될 수 없다. 그러나 「신들의 주사위」에서는 이 두 여성의 인물이 하나의 완결된 긍정적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황순원의 초기의 단편소설 『눈』에서 어머니가 없거나 또는 부정적인 어머니¹⁶⁵⁾를 형상화한 의미는 그가 경험한 일제치하의 고향(고국) 상실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작집인 『기러기』에 들어있는 「별」(1940)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어머니가 등장한다. 이러한 어머니는 누이의 죽음으로까지도 획득될 수 없었던 것이, 한국전쟁 이후에 창작되었던 단편소설집 『학』에 들어있는 「왕모래」(1953)에서 주인공 돌이는 「별」의 아이에서 돌변하여 아편쟁이로 돌아온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다. 「별」이 창작되었던 시대적 배경인 일제치하에서도 절대화되고 이상화되어 아름다웠던 어머니(조국)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된 조국이 흉한 아편쟁이 어머니로 표면화되었을 때, 작가는 자식의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결과를 만든다. 이는 곧 “어머니가 ‘조국’과도 관계가 되는 민족현실”¹⁶⁶⁾일 수 있는 동시에 ‘어머니’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편 『별과 같이 살다』(1946)의 여주인공 곰녀의 일대기를 다룰 때, 시련과 고난에 묵묵히 인내하는 한국적인 여인상을 창작한 것도 「별」에서 보이는 이상화되고 절대적인 어머니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장편 『카인의 후예』(1954)에 와서 오작녀는 ‘지리적 고향의 의미’를 가진 여성에서 ‘모성성의 이미지를 갖는 여성’으로 변화한다. 『카인의 후예』의 박훈이 “토지개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월남의 곁행에 이르는 길에서 오작녀의 ‘불타는 눈빛’이 연상되는 것은, 오작녀가 박훈에게 있어서 과거의 기억들을 주재하는 자”¹⁶⁷⁾이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후부터 오작녀의 ‘불타는 눈’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눈’은 이후의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하는 남성을 ‘구원할 수 있는 눈’으로, 『움직이는 성』(1972)의 지연과 흥여사의 ‘눈’이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대한 기원은 오작녀에서 출발한다. 「비바리」(1956)에서 비바리는 ‘흐리지도 빛나지도

165) 『눈』, 「거리의 부사」, 「사마귀」, 「갈대」, 「지나가는 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166) 장현숙, 앞의 책, 195면.

167) 유입하, 「설화적 세계와의 결별방식」, 『한국문학연구』 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263~264면.

않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준이를 따라 제주도를 떠날 수도 없고 유랑하는 준이를 구원해줄 수도 없다. '눈'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그」(1951)에서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예수의 기도 속의 '눈'이기도 하다. 『카인의 후예』에서 오작녀가 어머니처럼 혼을 보살피고 혼도 오작녀를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하지만, 혼은 고향을 등지면서 오작녀를 데리고 월남하는 것에 갈등한다. 즉 지리적인 고향의 의미를 지닌 오작녀라면 월남할 때 데리고 올 수 없으며, 오작녀도 혼이 고향을 떠나면 전설이 존재하는 큰애기바윗골 벼랑에서 죽는 것¹⁶⁸⁾으로 소설은 끝나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황순원의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어머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는 혼이 월남을 결행하면서 오작녀를 찾아가는 것¹⁶⁹⁾에서 미완으로 끝맺는다. “미완의 의미는 부정될 수 없는 시공간과의 결별을 이미 결행했다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고향은 마음속이나 자리잡고 있는 아픔으로 남는 기억임을 암시하는 것”¹⁷⁰⁾이므로, 고향의 의미가 지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 즉 ‘모성을 의미하는 여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에 창작된 「잃어버린 사람들」(1955)에서 석이가 어머니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의 앞까지 도달하지만 어머니가 죽어버림으로 인해 결국 고향으로의 회귀가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은 「왕모래」에서 돌이가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임을 입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순원의 소설에서 ‘지리적인 고향의 의미’는 그보다 다른 것으로 환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방기 이후에 창작된 황순원 소설에서 여성의 의미는 「카인의 후예」에서 데리고 월남한 오작녀 같은 여성에게서만 고향과도 같은 푸근함을 찾을 수 있다. 오작녀로 상징되는 모성성은 황순원의 작품에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을 보듬어 안고 어루만져주는 이타적인 자기희생을 표상하는 어머니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168) 오작녀는 혼이 고향을 떠나면 혼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전설의 큰애기바윗골 벼랑에서 죽을 결심을 한다.

169) 소설에서는 혼이 오작녀를 데리고 떠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혼이 월남을 결정하고 오작녀의 배의 좌석까지 마련하였으며, 도섭 영감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자 하나 살게 되자, 오작녀한테로 가야 한다고 결정한다. 삼득이가 눈물로서 혼이 떠날 때, 오작녀를 데리고 가기를 바라자 혼은 “그의 몸 한가운데에 어떤 불씨같은 게 남아있다가 고개”를 든 것을 깨닫고 “왜 이려고 썼느냐, 어서 오작녀에게로 가거라, 어서 오작녀에게로 가거라”하는 마음속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집 쪽을 향해 뛰는걸음으로 내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의 소설의 줄거리는 오작녀를 데리고 월남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0) 유임하, 앞의 책, 264면.

로, 황순원의 소설의 병약하고 소심하고 결백한 남성인물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긍정성의 세계이다.

황순원의 문학세계가 시에서 단편소설, 장편소설로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왔던 것처럼, 그에 따른 내면적인 변화도 거친다. 초기의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실향민의식이나 삶의 단면들이 장편에 와서는 삶의 총체적 인식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황순원의 ‘유랑민의식’의 정점은 그의 장편에 와서 더욱 빛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창작에너지가 단편소설보다는 장편소설에서 더욱 밀도있게 투영되는 것¹⁷¹⁾’으로, 장편소설들은 황순원 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두루 보이고 있는 주제, 인물, 모티브 등의 상호 연관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순원은 총 7편의 장편을 창작했는데,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일월』(1964), 『움직이는 성』(1972), 『신들의 주사위』(1982)는 이제까지 단편 혹은 이전의 장편(『별과 같이 살다』(1946), 『카인의 후예』(1954), 『인간접목』(1955))을 통해 실현된 여러 시도들을 보다 확장시키고 입체적인 틀로써 아우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편소설’이라는 장르에 쏟았던 그의 열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는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한국전쟁의 상황을 다루는 것보다는 전쟁을 겪으면서 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파멸하거나 상처받는 인물들의 정신적 상처와 관련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는 동호, 현태, 선우상사, 김하사, 숙이, 옥주, 계향 등이 그러한 인물들로서 “정신적인 정전을 받아야 할 층의 대표적인 존재”(7:295)들이다. 즉 전쟁을 겪고 정신적인 외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기 힘들다¹⁷²⁾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1부에서 동호의 삶을 2부에서는 현태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삶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숙이가 등장하고 있다. 숙이는 많은 논자들에 의해 긍정적인 모성성을 실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숙이는 전쟁에 의해서 어떠

171) 허명숙, 앞의 책, 305면.

172) 현태의 은사는 모교에 사회생활 선생 자리가 비었으니 와서 일을 해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는 곧 미국으로 떠난다고 빠른 대답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비행기를 타면 무위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보다 교문을 들어서며 본 애들의 맑고 빛나는 눈망울들 때문에 거절하게 된다.(7:355) 이러한 점은 상처받은 자의식을 가진 “정신적인 정전”을 받아야 할 현태가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상황의 변화도 겪지 않은 인물이다. 따라서 숙이는 전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숙은 자신의 의지하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에 있어서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남성인물들이 죽거나 형무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현재의 아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동호나 현태가 상대했던 창녀를 통해 마음의 충족감(7:278)이나 휴식감(7:331), 홀가분한 기분(7:352)을 얻을 수 있는데, 창녀들을 통해서 남성인물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창녀들을 모성성을 지닌 인물로 보아야 한다. 창녀를 통해 실현되는 모성성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도병이었던 결백하고 소심한 남자 동호나 능동적이지만 ‘전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현재의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7:369)¹⁷³⁾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창녀로 대표되는 옥주나 계향은 전쟁으로 인해 유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서 자신의 상처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서 남성인물에 대한 이타적인 자기희생을 치르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창녀들은 상처입은 자의식을 가진 남성인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충족감이나 휴식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감을 주는 모성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동호는 옥주를 죽이고 현태는 계향의 자살을 방조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그녀들도 ‘전정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호나 현태의 이러한 행위는 ‘피부에서 얻어진 기억’과 관련된다. 동호는 옥주와의 육체적인 교섭을 통해서 “그녀와 자기는 친숙해진 느낌”(7:265)을 갖게 된다. 동호는 숙이와의 추억에서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육체의 교섭까지 가지 않고 그 ‘분위기만이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숙은 전장에서 너무 멀리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의 순수함이 동호에게 충족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는 처음 옥주와의 교섭을 통해서 받은 강간당한 것과도 같은 불쾌감과 혐오감이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변화되어 간다. 동호는 옥주와의 관계를 계속 갖게 되면서도 자신은 숙이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옥주의 “얕팍한 뒤에 깨를 바라보며 느꼈던 무언가 모를 아쉬움 같은 것, 이것을 남겨두고는 도저히 마음

173) 전쟁의 상처로 인해 입원하게 된 선우상사를 통해 그가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해서 입원’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이 창녀와의 교섭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옥주를 찾게 되고, 옥주와의 긴밤을 통해 “숙에게도 하지 않았던”(7:272) 비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옥주가 동호에게 있어서 고향과도 같은 모성성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옥주도 그녀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아이마저 유산되어 불행한 과거를 지닌 채, 창녀가 된 사연을 이야기 한다. 서로의 비밀을 나눠가진 것에 동호는 연대감을 느끼게 되면서 숙에게서 편지가 오는 것마다 읽지 않고 태워버린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동호를 향해 “일시적인 무서움을”(7:275) 없애줄 수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살뜰한 몸짓으로 그를 이끌어주는 옥주를 통해 동호는 “처음으로 어떤 충족감”을 얻게 된다. 동호는 육체적인 교섭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옥주를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동호는 “안온한 허탈감 속에 휩싸인 채 숙이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미안함같은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7:276)는 마음의 변화 즉 숙에게서 옥주에게로 넘어가는 애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옥주가 털어놓은 비밀에서 “몸뚱이처럼 야속한 건 없드군요. 이 몸뚱이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그이의 모습을 아주 지워 없애버리는 수가 있”(7:275)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호가 옥주를 찾아갔던 날 다른 남자와 교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옥주가 육체의 교섭을 통해서 남편을 지워버리듯이 자신도 지워지는 것에 대한 분노로 옥주를 살해하고 만다. 동호는 “사랑해선 안될 사람끼리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느낀 찰 그 순간에 같이 죽었음 좋”(7:275)겠다는 옥주의 말을 실현시킨다. 이는 옥주를 사랑하게 된 동호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숙이를 만나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에서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된다.¹⁷⁴⁾ 옥주가 모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긴 하지만, 동호를 위한 자기희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는

174) 현태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태는 제대 후 아버지 회사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차장 밖으로 고스톱에 걸려서 지나가는 허름한 모녀를 보고 전쟁터에서 자신이 죽인 모녀의 ‘피부에서 얻어진 기억’을 회상하게 되고 이후로 거리를 배회하고 토요일의 회원이 되어 술을 마시고 곰처럼 잠을 자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태에게 유일한 휴식처인 계향은 백자와도 같은 차가움의 이미지로 현태에게 휴식감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감정이 들어있는 ‘죽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계향이라도 휴식처로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계향이의 자살을 도와주게 된다. 또한 숙이와는 동호의 편지를 읽으러 들어간 인천의 송도호텔에서 서로가 가해자라고 상처주면서 숙을 범하지만 숙이가 동호나 현태가 구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떠나자 잡지 않는다는 것에서 두 여자 모두에게서 떠나는 것이 된다.

전쟁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옥주 자신도 이미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물로서 생계를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창녀라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인 교섭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인물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월」(1964)은 백정의 가족사를 다룬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주변부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일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기저의식의 하나가 개인의 실존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 인철은 조선시대의 천민중의 천민이었던 백정의 후손이며 이에 대한 질긴 인습의 굴레를 체험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능동적인 참여의욕보다는 소극적인 회의와 갈등의 ‘유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랑의식’은 본돌영감으로 표상되는 전근대적 세계와 아버지와 인호로 표상되는 근대적 세계의 경계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철의 삶을 통해서 발현된다. 본돌영감의 삶은 샤머니즘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는 백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맹목적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인호는 근대적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백정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거나 신분적 출세에 대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인물이다. 인철은 이러한 인물들 경계에서 자신의 백정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아버지인 상진 영감의 모습에서 보이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갈등한다.

그러나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백정으로서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정보다는 시대적 전환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계성의 파편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철의 가족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철, 인호, 인주, 인문은 부정적인 어머니의 품에 안주할 수 없는 인물들로 ‘유랑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이 이복형제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파편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 내에서만 보이는 관계의 파편성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화된 관계양상으로 자리하면서 고립화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철은 항상 다니는 대폿집에서 우연한 실수로 낮모르는 청년에게 매를 맞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을 보고 현실이란 인간들로 이루어진 “정글”(8:191)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인

간은 고독한 개인일 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인철은 생활의 소리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소리없는 변화는 인철과 다혜와 그리고 나미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소설에서 다혜는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모성성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이고 나미는 ‘현실에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여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철은 백정으로서의 괴로움을 안고 다혜를 찾아간다. 다혜는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반가움이 담긴 미소로 인철을 맞이한다. 이러한 다혜는 인철이 “여기 오기까지 수없이 되풀이한 심상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을 일시에 풀”(8:155)리게 하는 여성이며 “누이다운 말이나 행동”(8:159)으로 어렸을 적부터 인철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성과도 같은 보살핌을 느끼게 하는 여성이다.

다혜에게서 자신의 아버지가 권유한 전경훈과의 결혼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인철은 “가슴 속 그늘이 걷히는 듯함을 느끼”(8:161)게 됨으로써, 다혜가 친구에서 이성으로 변화된다. 인철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늘 다혜에게 나미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나 인철은 스스로의 변화된 심정을 느끼면서 다혜 생각을 좇는 날은 술을 더 마시게 된다. 다혜는 인철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향한 애정이 더 커져서 인철과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렇지만 인철은 백정이라는 “자기 핏줄에 이어진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나미나 다혜에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인철에게 다혜는 나미가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미에게 가라며 어루만져 준다. 인철은 다혜의 부드럽고도 따스한 손길과 입김, 그리고 잔잔히 떨리는 음성 앞에서 “그의 가슴속 선인장의 독가시가 하나하나 꺾여져 나”(8:245)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인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미와의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백정의 핏줄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 몸 한가운데에 숨쉬고 있는 다혜 너 때문”(8:247)임을 직시하게 된다.

다혜와 대립되는 인물로 나미를 들 수 있다. 나미는 인철이 피서지에서 만나 가까워진 사이로서 능동적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이다. 나미는 피서지인 대천의 바닷가에서 바로 만난 그날 밤에 입맞춤을 나누고 “그런 행위 뒤에는 한 막의 배역을 끝낸 사람처럼 스스로없이 그 일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네”(8:70)로 인철에게 인식되지만, 인철은 나미를 사랑하게 된다. 전경훈의 소개로 은행장이었던 나미의 아

버지를 만나 나미의 집을 설계하게 되면서 나미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져간다. 나미는 다혜를 만나고 나서 가정주부같은 그 여자의 감싸임 속에 인철을 맡겨두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철이 나미에게 스스로 백정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거절하던 ‘타올랐던 눈’을 보며, 아버지의 반대나 다혜의 두꺼운 그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철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던 자리에서 나미가 약혼발표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녀와 다혜 곁에서 떠나가기로 결정한다. 인철은 백정의 신분이 노출되자 다혜와의 결혼을 허락하며 양자로라도 받아주면 민적까지 떼어준다는 아버지의 말과 나미와의 약혼을 통해 운영난에 빠져 자살하려는 아버지의 회사를 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나’를 수없이 되뇌이며,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이 두 여성은 백정이었던 인철의 집안 내력을 알게 된 후에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철이가 떠난다는 것에서 황순원 소설에서의 ‘모성성을 가진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여성’ 사이에서 떠나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두 여성에게서 떠난 인철은 더욱 더 깊어가는 인간근원의 고독을 천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황순원은 1972년 『문학사상』 통권 2호(1972,11월호)를 통하여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유랑민근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 여기서 그는 한국인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유랑민근성’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전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유랑의식’은 작가가 그것에 대해 의식하고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작가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유랑민근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움직이는 성』에서 모든 인물들은 ‘유랑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항상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성’이다. 이는 인간이 갖게 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준태는 농학도이면서 무신론자로 정신적인 귀의처를 찾지 못하고 두 여성 인물 사이를 방황하는 지식인의 존재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준태는 수원의 농업시험장→ 황계의 고산지 시험장→ 옥구의 초막으로 유랑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모성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연이라는 인물과의 ‘사랑’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준태는 근원적으로 ‘유랑의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의 ‘유랑의식’의 배경은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 준태가 “아홉살 때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저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 어느 집에 붙어”(9:141) 살았고, 열네 살때는 중학교 입학식에 남부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자, 어머니와 여섯 살 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했던 서호를 찾아가서 자살하고자 했었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인물(9:143)이다. 그는 불행한 과거로 인해 우울한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준태의 상처 입은 자의식은 창애와의 결혼 생활의 부조화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데, 결국 창애는 준태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무 의미도 없는 결혼생활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모욕이라고 느끼고 결혼 생활을 청산하려고 한다. 이러한 창애는 준태가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으로, 현실적이고 도회적이며 능동적으로 실존적 주체의 삶을 살고 여성이다. 준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데, 준태가 창애와 살면서도 "혼자하던 하숙생활을 그리워 해 왔(9:91)"이라는 것은 창애라는 여성에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실 생활의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유랑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숙 생활을 그리워하고 초막을 보고 동경심을 갖는 데서 그의 ‘유랑의식’은 잘 나타나고 있다. 창애는 준태의 무관심에 의해 화가인 미스터 강을 만나고 난 후부터, 더 이상 준태와의 결혼 생활은 무의미하다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유형의 유랑적인 인물이 되고 만다. 준태에게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애적 사랑을 일깨워주는 인물이 창애라면, 지연은 준태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성적 사랑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심중 어딘가에도 균형을 잃고 있는 듯한 허술함’을 갖고 있는 준태의 내부에는 유랑민 근성이 잠재해 있다. 어렸을 때 치명적으로 경험한 가난과 자살을 기도했던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구자가 된 그는 ‘약자의 신앙’밖에 가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후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 준태는 “지연을 만나는 일에 깊은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고 “자신의 생활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부담 없이 만나”(9:92)자고 생각하지만 지연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곤경에 빠진 준태를 구해준 지연은 모성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다. 그렇기에 준태는 지연에게 자신이 자라면서 겪었던 상처와 속마음을 전부 고백할 수 있었고 고백 이후에 준태

는 장애와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몸 속 깊숙이 잠자고 있던 무엇인가가 깨어난 듯한”(9:149) ‘회열’을 경험한다. 그러나 지연을 향한 ‘회열’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준태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작 증세를 경험하(9:147, 246, 297, 307, 340, .348)게 된다. 지연에 대한 애정이 깊어갈수록 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작 강도가 더해 가고 준태도 “막연하나마 무엇이 원인인지 짐작“(9:252)하게 된다. 이는 지연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준태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유량적 기질이 알레르기성 천식 발작이라는 상징적 증후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준태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원인을 짐작하게 된 이후, 지연에게 알리지 않고 강원도 횡계에 있는 고산시험장으로 떠난다. 준태는 횡계까지 찾아온 지연과 월정사로 여행을 가서 그곳 산자락에 있는 초막을 우연히 보고 동경심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9:244)하며 흔들린다. 초막을 보고난 이후, 준태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유량의식’을 인정하게 되고 지연에게 편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고 만다.

편지의 내용은 ‘약과 메스, 그리고 사랑’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준태의 병이 ‘유량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유량의식’은 준태가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병으로서 그는 병의 근원을 심고 길러온 것은 다름아닌 자신이 었다는 것을 깨닫고 ‘유량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살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옥구의 초막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찾아온 신내린 돌이엄마와 함께 살게 된다.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 지연을 두고도 떠나야 하는 것도 그리고 신내린 돌이엄마의 접근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그의 유량민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준태는 지연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들 듣고 지연을 쫓아가다가 다시 천식의 발작 증세를 겪게 된다. 그는 이 천식증상으로 인해 "자기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대체 나는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 건가, 지연을 그토록 갈망한 건 누구고, 이를 용납 않는 건 누구냐. 그 어느쪽도 거짓이 없다. 단지 지연을 다쳐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상반된 두 가지를 체취처럼 지닌 채 나나름대로의 유량민 같은 생활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9:341)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량적 운명에 순응하게 된다. 이는 누구보다도 우리민족의 유량민근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준태(9:123-126)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량적 기질에 침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순원 소설에서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의식인 ‘떨림’이나

‘후들거림’으로 나타난 증상들이 이 소설에서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작증세로 나타난다. 이러한 알레르기성 천식의 증세는 정착과 유랑의 경계에 놓인 자아의 흔들림이다. 준태는 모성성을 갖고 있는 지연을 만나 장애와의 사이에선 결코 느껴보지 못한 ‘자기 몸 속 깊숙이 잠자고 있던 무엇인가가 깨어난 듯’한 ‘희열’을 경험하고 그 ‘희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연에게로 정착하고자 했던 그의 삶은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지연을 떠나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준태는 ‘유랑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감자’를 심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정착된 삶을 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작가 황순원은 소설에서 준태의 죽음으로 결말지어버린다. 이는 어느 곳에서도 정신적 귀의처를 찾지 못한 한 인간상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 황순원의 유랑적인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들의 주사위」(1982)는 텃골이라는 조그만 읍소재지의 농촌이 산업화되면서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작품의 현실로 작용하고 그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세계가 중점적으로 서사적 줄거리를 이어가면서 한수네 가족의 붕괴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법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수는 대가족의 전통적 질서로 인해 피해자가 된 한영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문제들에 부딪힌다. 그 중 한 문제가 진희와 세미라는 여성과의 관계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대립되었던 모성성의 문제가 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작가의 의식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황순원의 장편소설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모성성을 지닌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대립되어 나타났는데, 마지막 장편소설인 「신들의 주사위」에서는 황순원 소설에 보이는 양면성을 갖춘 모성성이 하나의 동전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황순원 소설세계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곧 긍정적인 여성을 찾아가기 위한 길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는 「신들의 주사위」에서 진희와 세미 둘 다 긍정적인 모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는 한수의 회상에 의해 하나로 겹쳐져서 드러난다. 즉 진희를 만나고 있으면서 세미를 떠올리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한수는 진희와 세미라는 두 여성에게서 모두 사랑을 받게 되는데, 두

여성이 다 현대적 여성의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희는 밝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지만 “아버지 직장 때문에 말예요. 몇 년이 멀다 하구 이사다녀야 했어요. 꼭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같이”(10:19) 유랑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며, 세미는 불감증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상처로 방황하는 정신적인 ‘유랑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이 두 여성들은 모두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육감적으로 알아맞히게 된다. 그래서 각자 한수를 떠나고자 결심하게 되고 한수도 두 여성 모두에게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성이 하나의 동전과도 같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작중남성인물인 한수를 중심으로 한 진희와 세미의 화해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황순원 소설 속에서 늘 대립되었던 모성성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신들의 주사위」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 소설을 발표한 이후에 창작된 「그림자 풀이」(1983), 「나의 죽부인전」(1985), 「땅울림」(1985)에서 더 이상 대립되는 여성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뵈고 싶었어요.

저두요.

글쎄 말예요. 세미가 미소를 보냈다.

우린 오래 전부터..... 알았던.....사이같아요.

저두 그렇게 생각해요.

진작 뵈더라면..... 그랬더라면.....(10:273)

진희와 세미의 대화를 통해, ‘모성성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이 하나로 화해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황순원 소설세계에서 모성성을 지닌 여성은 황순원의 고향과도 같은 이미지이고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성은 남한에서의 자족적인 삶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여성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들의 주사위」에서는 두 여성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모성성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황순원의 삶이 남한에서 뿌리내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이 모성성을 지닌 여성이고 다른 어떤 여성이 현실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여성은 「신들의 주사위」 이전에 발표되었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남성인물인 한수와의 사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두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제시되지도 않는다는 것에서 여성성의 이미지가 하나로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세미가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에서 부정적인 여성으로 표상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미는 자력개발원의 과정을 밟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한수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불감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으나 한수의 남성이 위축되어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서 세미의 불감증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여성은 모두 한수에게 현실적인 정착을 실현시키는 인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진희는 한수와 오토바이를 타고 폭포를 향해 가다가 ‘저 길로 가면 어디로 통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한수가 “차차 좁아지다가 한 오두막집 앞에서 끊어지겠지 뭐”라고 ‘유랑의식’을 드러내는¹⁷⁵⁾ 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인물이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한수에게 이야기하면 한수를 속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떠날 결심을 하고 한수를 만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죽게 된다. 또한 세미는 유원장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한수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유원장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찾아와 한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 세미를 떠나보내고 난 후, 한수는 병원을 퇴원하는 길에 “콘크리트 포장길에 가느다란 금이 나있고, 그 틈새기로 풀잎들이 돋아나”(10:305)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풀잎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항상 남성인물들은 두 여성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두 여성 모두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신들의 주사위」에 와서도 변함이 없지만, 이 두 여성의 이타적인 희생 때문에 풀잎들이 돋아나 있는 것처럼 정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황순원 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이 모성성을 가진 여성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작가의식이

175) 「움직이는 성」의 준태가 지연과 함께 여행 갔던 월정사의 산 속에 있던 오두막집을 보고 ‘유랑의식’을 드러내는 동경심을 보이는 것에서 오두막집의 의미는 ‘유랑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여성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 현실에 적응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풀잎에 주목하고 있는 현대의 시선의 의미는 작가의 가슴 속에 남한 사회에서 작게나마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작품의 말미에 한수를 향한 청년의 “무얼 잃어버렸습니까?”라는 질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즉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한사회에 정착에 대한 생의 의지를 돋아나는 풀잎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가 의식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IV.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의 의의

한국의 굴절된 역사를 살아온 황순원의 정신세계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의미의 축으로 ‘유랑의식’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황순원이 살아온 세대는 역사적으로 격동기에 해당된다. 식민지시기부터 해방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시기는 대다수의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시킨 열악한 시간이었다. 황순원 소설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의 긴밀한 조응 속에서 그 지난한 시간을 통과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작가의 시선이 들어있는 것이다.

‘유랑의식’은 황순원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황순원이 항상 당대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왔고, 그 상황의 시대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역사를 내면화하는 개인의 삶에서 형성된 작가의식이다. 이러한 ‘유랑의식’에 대한 연구는 황순원의 주요 작품 연보를 제작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항상 당대의 역사와 현실의 의미를 탐구해 왔음을 알 수 있듯이, ‘유랑의식’은 역사와 현실에서의 작중인물의 행동과 의식을 통해 정착할 수 없었던 작가의 삶의 행보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중인물의 ‘유랑의식’은 비단 작가 한 사람만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았던 보편적인 사람들의 불행이라는 사실에서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작가는 굴곡진 역사를 몸소 체험화한 것에서 그의 소설에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만 했던 이 땅위의 사람들의 ‘뿌리 뽑힌 삶’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한국의 역사와 부정적인 현실에서 느끼는 작가의 ‘상실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작가가 창작하며 살아온 시대는 민족의 시련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황순원은 자신의 창작 작품 속에 대립된 가치의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의 경계에서 작가가 지향하고 동경하는 것들을 향해 작중인물의 갈등하는 내면의식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흔들림, 즉 작중인물이 정착할 수 없이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떠돌아야만 하는 불안한 삶을 통해

‘유랑의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나 사회적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늘 긍정적인 삶을 모색한다. 즉 작가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현실에서도 인간에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인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 ‘유랑의식’을 갖는 것이다. 작가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것들은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 긍정적인 모성의 탐색, 긍정적인 부성성, 아이들에 대한 유다른 애정 등이 있다. 반면에 민족의 공동체 삶을 해체시키는 것들로써, 일제의 식민주의, 한국전쟁, 새로운 외래문화 그리고 부정적인 모성성 등이 이와는 대립되는 가치로서 소설에서 표상된다. 황순원 소설은 위에 열거한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들의 경계에서 ‘유랑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작가가 현실에서 상실한 것들을 찾아 삶의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발견되는 의식이다. ‘유랑의식’은 작가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유동적인 삶에 따라 시대적으로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유랑의식’을 표출한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는 ‘유랑의식’은 작가의 욕망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실현 양상이 다르게 구현된다.

황순원은 그가 시대적 상황에서 느껴야만 했던 상실감을 그의 소설세계를 통해 세 가지로 형상화한다. 이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상실감 그리고 육친적인 상실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황순원 소설에서 근원적인 상실감의 의미는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당대의 현실인식이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근원적인 상실감의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파행을 거듭한 한국의 시대적 현실이 그 기저에 있다. 식민지인으로서의 근원적인 조국의 상실감은 작가로 하여금 일상에 안주할 수 없는 인물을 형상화하게 한다. 작가는 이러한 일상의 배회를 통해 그가 동경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모성성과 전통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일제에 대한 대립적인 가치와 문화로서 민족의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그의 작품에서 단지 정착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유랑의식’은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에서도 작중인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현실에서 상실한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그가 동경하고 지향하는

것, 즉 작중인물의 내면의 갈등을 통해 또 다른 긍정적인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계에서 생겨난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상실감이다. 이는 해방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작가가 경험한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 작가는 그의 소설 속의 작중인물을 통해 모든 것에서 박탈, 분리, 추방되어진 작중인물의 유랑적인 삶을 형상화한다. 또한 작가는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들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유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유랑의식’은 작가가 의식하고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황순원은 해방기에 창작한 작품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드러내놓지 못했던 정치의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데올로기나 고국의 무력함으로 작중인물의 삶이 해체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유랑민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황순원은 월남민의 신분이 되면서 그의 소설에 시대적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개인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유랑의식’을 표출하게 된다. 즉 작가 자신의 경험화가 작품에 투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황순원은 그가 월남민 신분이 되면서부터 시대적 상황과 부정적인 현실로 인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중인물의 흔들리는 삶을 유랑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서 그가 느낀 경험치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소설에서는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인간의 삶이 해체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한국전쟁의 폭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유랑의식’은 시대적 상황 앞에서 정착할 수 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형성되는 소설 창작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육친적인 상실감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희망과 조국과 고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에서 모성성을 찾아 헤매는 작중인물의 삶은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작가의 의식이다. 황순원이 추구하는 모성성을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추출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순원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성성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성성과 부정적인 모성성이

혼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서 부정적인 어머니의 존재는 희망과 조국과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중인물들은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어머니를 찾아간다. 이러한 점은 유년기의 아이에서 시작되어 청년에게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부정적인 어머니가 묘사되고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모성성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긍정적인 모성성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남성인물들이 어머니가 아닌 여성에게서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의 소설의 한 특징이 되기도 한다.

황순원은 유학생의 신분으로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식민지인으로서의 부당함과 편견을 경험하게 되고,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방황의 과정을 통해 그는 전통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향하게 되며 고국에 돌아와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수탈로 인해 농촌의 경제적 궁핍의 참혹한 실상과 마주하는 한편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주하는 조선인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식민 치하의 조선은 고향이 아닌, 타향으로 변질되어 버린 공간과 다름없는 것으로, 작가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수탈 그리고 지주들의 횡포와 착취에 의해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이 탄광의 노동자나 징용, 그리고 개척지를 찾아서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포착하여 소설에 형상화하고 있다.

황순원은 현실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식별하여 구체적 현실 속에서 설득력 있게 개인의 삶을 천착하여 ‘유랑의식’의 형성과정을 면밀히 묘사한다. 그는 해방직전 살인적인 수준으로까지 치달아 조선의 농민들을 수탈하던 공출제도의 폐해와 지주들의 착취로 인해 절대적 빈곤에 빠진 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사실적으로 해방기의 단편소설에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삶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황순원은 해방 후, 남한의 문단상황의 어느 한쪽에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를 문학사에서 ‘중간파’로

간주되는 경계인의 작가로 분류¹⁷⁶⁾된다.

황순원 소설은 해방기에 있어서 해방 전과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는 농촌의 궁핍한 실정이나, 해방이 되고 돌아온 전재민과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귀환한 귀환 동포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그들의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절실하게 표현한다. 고국이 해방은 되었다지만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의 기쁨을 찾아 돌아온 그들은 고국을 떠나기 전이나 돌아온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과 궁핍을 면하기 어려운 가난으로 인해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게 되는 저층민의 삶에 작가는 관심을 기울여 소설로 형상화 한다. 작가는 해방기의 민족의 삶이 심각한 분열의에 빠져있음을 고민하고, 우리민족이 고국에서 다시 일제시대에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기 위해 일했던 타지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나 조국의 무력성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월남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화상태에 이른 남한생활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현상의 하나로 주거문제, 식량문제를 포착하여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는 황순원이 겪어야만 했던 월남민으로서의 '유랑의식'이 그의 소설 속에 드러난다.

남한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황순원의 바람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뿌리뽑힘'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전쟁은 작가의 개인적 불행인 동시에 민족 전체의 비극이었다. 작가는 여러 곳에서 피난 생활을 경험해야 했으며, 앞날에 대한 불안과 한국의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그는 해방기와 같은 리얼리즘 양상에서 벗어나 월남민 특유의 정체성¹⁷⁷⁾인 경계인으로서 소서사에 천착하게 되고 전

176) 이러한 황순원의 문학세계는 남한에서 사실주의적이며 민중지향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좌파적 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황순원 소설은 좌익계열의 문학에서 주장하듯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정서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나 속담 등을 소설의 모티프로 이용하여 한민족의 정서에서 통용되는 전통의식을 기반으로 문학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좌익문학이 문학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에 대립되는 창작활동으로서 우익문학을 들 수 있다. 우익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김동리는 문학 차체의 자율성에 입각하여 순수를 주장하면서 「역마」와 「달」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초역사적인 영원한 것에서 그의 소설세계를 형상화한다. 이와 같은 김동리의 소설은 황순원 문학세계가 시대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인간의 삶에 대한 천착에서 창작되었다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그 변별점을 찾을 수 있다.

177) 월남인들이 겪은 북한 주민으로서의 경험이나 한국 전쟁 당시의 경험, 월남 후 난민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은 정착 후 그들의 생활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쟁에 관한 소설에서도 이념의 양상을 띠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기의 황순원 소설은 역사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은폐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유랑의식’의 관점에서 연구하다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는 한국전쟁기의 작품에서 직접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당시에 창작되었던 소설들에는 역사적 현상인 전쟁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당한 개인의 삶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소설들에서 보이는 작중인물의 삶은 부초처럼 떠도는 삶을 정서로 하는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의 작품들과 변별된다.

해방 직후, 월남한 황순원은 북한의 정치적 폭력을 피해 준비된 상태에서 월남을 감행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 남한의 서울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주계급 출신으로 자진해서 월남하였다는 점과 가족 구성원은 손실이 적었다는 점에서 실항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황순원은 남한에서 뚜렷이 좌익계 문학인으로 나서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남한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에도 앞장선 문인이 아니다. 그는 험난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전후 현실의 문제를 보다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문제로 접근한다¹⁷⁸⁾. 즉 작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전달하기 위해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한편 자신의 작품을 통해 피난민으로서의 설움을 한껏 표출하기도 한다.

황순원은 식민지 말기의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 모두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전쟁을 모두 근

또한 월남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 요인으로는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 월남인 연결망과 월남인 동향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들 수 있다.

178) 황순원은 월남과 분단으로 빚어진 실항의 상처를 다른 월남 작가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유랑의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황순원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는 그보다 다른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작가는 고향을 훼손된 것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회귀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황순원과 달리 이범선은 착하고 선량한 월남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월남민이 전후에 겪었던 상흔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단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은 그의 「오발탄」은 귀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월남민의 절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반면 선우휘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로 월남한 후 군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소설에 선명한 사상성이 드러난다는 점이 황순원과 다르다. 그는 「오리와 계급장」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직된 이분법의 논리를 보이고 있다. 성대령, 김선생, 김춘봉과 같은 극단적인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좌우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통해 월남민으로서의 작가정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황순원과 같은 월남작가들은 월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작가의 의식에 따라 그들의 문학창작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의 폭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황순원의 소설은 남한 생활의 억압기제로 작용한 반공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동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반공문학적 문학 담론은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집이나 소설집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험의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아동문학에서 보이는 계몽적이고 선동적인 반공주의를 주입시키는 내용이 이 담론의 특징이다. 황순원은 다른 전쟁체험세대 작가들과는 달리 전쟁독려 문학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1950년대 초에 출판된 『전시문학독본』(계몽사, 1951)과 『전쟁문학집』(국방부 정훈부 편, 1951)은 반공텍스트들의 선집인데 이와 같은 텍스트에 황순원의 작품은 실려 있으나 반공적인 양상을 보인 작품은 없다.¹⁷⁹⁾ 따라서 황순원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찬반의 양태보다는 전쟁에 의해 희생당한 인간 삶의 형상화에 대해 더 치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시기를 대상으로 창작된 소설의 작중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분리, 박탈, 추방되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는 변별되는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회귀의식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소설 「땅울림」(1985)에 금기설화인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소설의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그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은 반공주의에 의해 금기시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남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된 삶은 당시에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월남민뿐만 아니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불행한 현실상황이기도 했다.

지금도 황순원과 같은 월남민에 대한 연구와 월남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들이 어떠한 경위로 월남을 하게 되었으며,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기존에 남한에 거주했던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북에서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와 월남민 작가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월남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작가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한다. 한국 사회에서 월남민들은 자신들만의 심리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한에 거주한 사람들과는 다른 집단적 사고나 동경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는 ‘유랑의식’에 대한 연구

179) 신영덕, 앞의 책.

는 중요한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많은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제시기, 월남,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겨나기도 했지만 산업사회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의 이동 또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유랑의식’은 우리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창작된 다른 소설들에서도 보이는 하나의 보편화된 삶의 현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인의 유랑적인 삶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의 연구는 우리민족만의 특수성 속에서 야기된 문제의식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과 황순원의 문학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찾게 된 연구방법으로써, 그의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유랑의식’은 황순원의 문학적 영토로 기능하고 있는 작가의식의 하나였음을 알게 한다. 이로써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은 역사적, 사회적 현실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작가의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불행했던 과거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작가 황순원은 시대의 증인으로써 그의 소설 속에 ‘유랑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상으로 역사적,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유랑의식’은 황순원이라는 작가 한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격동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유랑적인 삶을 이야기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의 수난사와 인간 삶의 문제는 황순원 소설의 전체성 속에서 언제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황순원 소설의 경우, 그의 소설에서 여러 작중인물의 광범위한 인간 경험과 시대적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설 전체의 성격을 한 가지로 결론내리기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한 ‘유랑의식’은 그의 전 작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므로 그의 문학세계의 본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역사적 삶 속에서, 경계인의 경험체로서 작가의 ‘유랑의식’이 그의 소설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이 전체작품을 하나로 잇는 통일된 유기체로 형성되면서 황순원 소설의 문학적 영토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황순원 소설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은 역사적, 사회적 현실 속에 수용되지 못하는 작중 인물의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배반하고 확대하는 것이 굴곡진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황순원은 소설 속에서 천착하는 개인의 삶을 통해 당대의 사회와 역사를 수용하고 은폐시키는 한편 역으로 ‘유랑의식’을 통해 이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장에서는 황순원 소설에 드러나는 ‘유랑의식’의 기반으로 황순원의 삶과 ‘유랑의식’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2장 1)에서는 황순원의 삶과 ‘유랑의식’의 형성양상이 작가의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식민지시대, 해방기, 한국전쟁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체험화한 것을 소설에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의 소설에서 보이는 ‘유랑의식’을 황순원의 작품 제작시기와 연관해서 살펴봄으로써, 황순원의 소설세계가 역사와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항상 당대의 인간 삶의 의미를 탐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가 황순원은 ‘유랑의식’에 대해 의식하고 그의 소설에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장 2)에서는 황순원의 문학세계

의 완고함을 살펴보았으며 그의 소설에서 보이는 지적인 절제의 문장이 작가의 엄격한 기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유랑의식’에 대한 대답을 통해 ‘유랑의식’은 그와 우리민족의 삶에서 필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황순원의 ‘유랑의식’을 본고의 3장에서는 ‘유랑의 세 층위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3.1장에서 ‘근원적인 상실감과 유랑의식’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상실감의 의미는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당대의 현실인식은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근원적인 상실감의 배후에는 인간의 삶을 해체한 원인으로 역사적으로 파행을 거듭한 시대적 현실이 그 기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장 1)에서 작중인물은 근원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일상의 배회를 통해 내면세계에 침잠하게 되고 그러한 이후에 현실에서의 탈출의지를 갖는다. 황순원 소설에서 근원적 상실감은 초기 단편소설에서 작중인물이 식민지 시기에 느끼는 고국상실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은 「거리의 부사」, 「허수아비」, 「지나가는 비」, 「배역들」, 「내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부조리한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에서 비롯되는 작품으로는 「거리의 부사」, 「내일」, 「이날의 지각」을 통해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 중에 야기될 수 있는 상실감과 상처로 인해 생의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인간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황순원 소설에 등장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들은 부조리한 일상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작중인물이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수용하고 그것에서 삶의 신념이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상실감을 경험했던 식민지시기의 암울함을 그의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미학의 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1장 2)에서는 문화적 혼돈의 상태에서 전통의식의 지향의 과정을 ‘유랑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황순원은 『눈』의 탐색을 통해 일제와의 ‘동화’가 아니라 ‘차별’의 삶을 지향하는 것에서 전통문화로 눈을 돌린다. 황순원의 문학은 이원론

적인 세계관을 기준으로 전통과 근대가 역사적 대립의 양상으로 치환되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대립의 양상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품의 주인공들이 치열하게 자신의 숙명적 삶의 답을 찾기 위한 ‘유랑의식’이 대두된다. 문명의 전환기에서 자기분열을 겪는 근대인은 자신의 주관적 내면세계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늘」, 「늪」, 「독짓는 늪은이」, 「풍속」, 「내고향 사람들」, 「비늘」은 전통/근대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주인공이 전통을 지향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소설 중에서 「내고향 사람들」과 「비늘」은 창작시기가 일제시대가 아니지만,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식민지시기가 포함되므로 함께 살펴보았다. 이로써 황순원 소설에서 전통을 지향하는 의식은 사라져버린 추억의 세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의 한 형태인 것으로. 현대적 삶의 공간 속에서 옛 전통적 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의식은 일제시대에 창작한 단편소설에서는 일제에 대한 대타적인 가치로서 민족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남한의 삶에서 창작된 전통적 세계에 대한 복원의식은 작가의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장에서는 ‘사회적인 상실감과 유랑의식’을 살펴보았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많은 월남민이 발생하게 된다. 작가 황순원도 북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월남을 한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유랑’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래서 3.2장 1)에서는 ‘정주(定住)된 삶’을 갈망하는 작중인물의 삶을 살펴보았다. 해방기에는 「두꺼비」, 「담배 한 대 피울 동안」, 「집」, 「황소들」, 「목님이 마을의 개」를 통해서 전재민과 도시의 소시민, 그리고 농촌의 궁핍한 현상으로 인해 정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작중인물들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불가사리」, 「잃어버린 사람들」, 「산」, 「비바리」, 「소리」에서 작중인물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거나 추방되는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해방기의 작품과 한국전쟁기의 작품에서 ‘유랑의식’의 양상이 다르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기에는 정치적으로 예리한 시각을 드러내어 ‘유랑의식’의 원인으로 시대적 배경을 천착하고 있지만, 한국전쟁기에는 시

대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삶이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한국의 반공주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의식을 일제시대처럼 은폐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해방기 작품에서 작중인물은 부정적인 사회현실에서도 어떻게든 뿌리내려 살려고 하는 의지에서 남한사회에 '동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당대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해방기의 남한 사회 현실은 해방을 맞아 돌아온 전제민과 이데올로기와 생계를 위해 남하한 이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당시의 조국은 이들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거,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랑의식'의 기저에는 월남민으로서의 작가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기에는 어디에도 안주할 곳이 없어진 작중인물의 삶이 주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동화'와 '차별'의 양상이 아니라, '동화'와 '파멸'의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것의 결과는 행복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작가 황순원의 경험치가 그의 작품에 반영된 결과로서 그가 유랑적인 삶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2장 2)에서는 '긍정적인 부성성의 세계와 떠돌이 삶'을 살펴보았다. 황순원 문학에서 타락한 부성성의 세계는 모성성의 세계와 대립되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부성성의 세계를 지향한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타락한 현실의 특성은 주로 부성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의 일면과 함께 삶을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검출되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 유대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아버지」, 「메리크리스마스」, 「어둠 속에 찍힌 관화」, 「곡예사」, 「안개 구름 끼다」, 「할아버지가 있는 데쌍」을 통해서 그의 소설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부성상은 가족의 세습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작가는 월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가족에 대한 유다른 애착심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나며, 황순원에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작가의 창작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메리크리스마스」를 통해 그의 유랑적인 삶이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황순원의 삶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즉 그의 조상들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잃어버린 북에서의 권위를 남한에서 찾으려고 하는 욕망의 한 표현으로 가계에 대한 소설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3장에서는 ‘육친적인 상실감과 유랑의식’을 살펴보았다. 모성성의 탐구는 황순원의 작품세계에서 초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후기의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3.3장의 1)에서는 ‘결핍된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성은 황순원 문학세계의 근간이며 그가 추구하는 작가정신임을 알 수 있다. 황순원의 작품에는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성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구적인 모성성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 건강한 부성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역으로 긍정적인 모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작품의 작중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성성을 찾아가는 ‘유랑의식’의 동력이 되어 나타난다. 「별」, 「왕모래」, 「과부」, 「필묵장수」, 「막은 내렸는데」, 「자연」, 「내일」은 모성성을 통해서만 부정적인 현실의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황순원의 소설은 남성주인공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병약함에서 오는 허무의식과 죽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성성에서 찾는다. 황순원의 소설은 여러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불구적인 모성성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에서 모성성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세계, 혹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세계를 추구한다. 「막은 내렸는데」, 「자연」, 「내일」을 통해서 모성성을 여성에게서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희망과 고향, 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행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 이타적인 모성성을 상실에 대립되는 가치로서 제시하고 있다.

3.3장의 2)에서는 ‘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남성’인물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황순원의 모성성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소설 속의 남성주인공들이 정신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지리적인 고향→ 모성성을 가진 여성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내재적 변화의 원인은 고향과의 단절과 관계되며, 남성주인공의 ‘유랑의식’과도 상관관계

를 이루고 있다. 그의 소설 속의 남성은 항상 모성성을 지닌 여성과 현실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경계에서 유랑하다 결국은 이 두 여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착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 『신들의 주사위』의 장편소설에서 남성주인공들이 두 여성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황순원 소설에서 남성주인공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모성성을 찾기 위해 헤매면서도 어떤 여성에게도 정착할 수 없는 ‘유랑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고향과도 같은 모성성을 지닌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에게 이미 훼손된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여성의 의미는 황순원의 남한에서의 생활이 그가 떠나온 고향에서의 유년시절과 같이 자족적인 삶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선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들의 주사위』에 와서는 이 두 여성의 인물이 하나의 완결된 여성의 인물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남한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음을 알게 한다.

4장에서는 ‘황순원 소설의 유랑의식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황순원의 작품세계를 통해 발현되는 ‘유랑의식’의 의미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역사적, 사회적 세계의 등가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순원 소설에는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터전을 떠나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에 대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랑의식’의 원인을 민족의 삶의 토대 위에서 포착하였고, 당대의 보편적인 상황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전체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황순원, 황순원 문학전집, 문학과지성사, 1985
황순원, 「유랑민 근성과 시적 근원」 문학사상, 1972. 11
황순원,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3

2. 논문

- 양선규, 「황순원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박양호, 「황순원문학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혜경, 「황순원문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황효일, 「황순원 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경호, 「黃順元 小說의 主體性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8
임채욱, 「황순원 소설의 서정성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Bruce fulton, 『황순원의 단편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박진, 「황순원 소설의 서정적 구조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임채욱, 「황순원 소설의 서정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년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6

3.평론 및 학술지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의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_____. 「일상적 경험과 소설적 수법」, 『황순원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82

이석훈, 「문학풍토기-평양편」, 『인문평론』, 1940

남궁만, 「황순원 저 『황순원 단편집』을 읽고」,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1941

조연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황순원씨의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문예』, 1950

김성욱, 「시와 인형」, 『해동공론』, 1952

곽종원, 「황순원론」, 『문예』, 1952

이어령, 「식물적 인간상」, 『사상계』, 1960

백철, 「전환기의 작품 자세」, 『동아일보』, 1960

_____. 「소설작법」, 『한국일보』, 1960.12.18

천이두, 「인간속성과 모랄」, 『현대문학』, 1958

_____. 「원숙과 패기」, 『문학과 지성』 여름호, 문학과지성사, 1976

_____. 「종합예의 의지」,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구창환, 「황순원문학서설」, 『어문학논총』, 조선대, 1965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 『말과 삶의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소설의 조직성」, 『황순원전집10』, 문학과지성사, 1948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현대문학』, 현대문학, 1970

_____. 「작가로서의 황순원」,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황순원 재고」, 『일간문학』, 197-----

김병익, 「찢어진 동천사상의 복원」, 『황순원문학전집』 제4권, 삼중당, 1973

김현, 「소박한 수락」, 『황순원문학전집』 제6권, 삼중당, 1973

- _____. 「일월의 한 문단과 해석」,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 염무웅, 「8·15직후의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1975
-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창작과 비평』, 1975
- 유종호, 「겨레의 기억」, 『황순원문학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81
- 김만수, 「황순원 초기 장편소설 연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김주현, 「<카인의 후예>의 개작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 『민족문학연구』 민족문학연구소, 1997
- 강진호, 「반공사회의 규율과 문학의 증언」,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방민호, 「현실을 포획하는 상징의 연구」, 『관안어문연구』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5
- 조남현, 「우리 소설의 넓이와 깊이-황순원의 『카인의 後裔』」, 『문학정신』, 1989
- 신동욱,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 한국적 삶의 인식 연구」, 『동양학』 제1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정과리, 「사랑으로 감싸는 의식의 외로움」, 『황순원전집』 제5권, 문학과지성사, 1984
- 최일수, 「황순원 씨의 자연사상」, 『현대문학』, 1966
-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 「황순원론 - 『움직이는 城』의 실체」, 『현대문학』, 현대문학, 1981
- 김윤식, 「민담, 민족적 형식에의 길」, 『소설문학』, 1963
- 우한용, 「민족성의 근원구조」,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삼지원, 1990
- 서준섭, 「이야기와 소설」, 『작가세계』, 세계사, 1995
- 조현일, 「근대속의 '이야기'-황순원론」, 『소설과 사상』, 고려원, 1996
- 이용남, 「황순원론」, 『한국현대작가론』, 민지사, 1984
- 이동하, 「소설과 종교」, 『문학의 길 삶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7

- _____.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문학의 논리』, 정음사, 1988
- _____. 「전통과 설화성의 세계-황순원의 <기러기>」, 『물음과 믿음 사이』, 민음사, 1989
- _____. 「소설과 종교」, 『한국문학』 15권 7호, 1987
- _____. 「파멸의 길과 구원의 실- <별과 같이 살다>에 대하여」,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8
- 김영화, 「황순원 소설과 꿈」, 『월간문학』, 1985
- 김종희,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 『위기의 시대와 문화』, 세계사, 1996.
- 송승철, 「따뜻한 휴머니즘과 전쟁의 업보 황순원론」, 『실천문학』, 2001
- 정문권,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 담론 양상」, 『인문논총』 21집, 배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노승욱, 「유랑성의 소설화와 경계의 수사학」,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 _____. 「황순원 단편 소설의 환유와 은유」, 『외국문학』, 열음사, 1998
- 송하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왜 노크하냐고 묻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작가세계』, 1995
- 박배식, 「황순원 소설의 구원의식」, 『인문논총』, 동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박남훈,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02
- 장인식,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자』 비교」,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2
- 이은영, 「『움직이는 성』의 경계 넘나들기」, 『한국문학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 구인환, 「황순원소설의 극적양상 -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1992

- 손화숙, 「존재의 고독과 모성의 추구」, 『우암어문논집』, 부산외국어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4
- 김미현, 「유랑의 형식과 대위법의 언어」, 『현대문학』, 현대문학, 1999
- 김동선, 「황고집의 미학, 황순원 가문」,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 원응서, 「그의 인간과 단편집 『기러기』」,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 허명숙, 「황순원의 상상적 특질과 그 역사성」,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0
- 김외곤, 「구세대의 전쟁문학에 나타난 중립적 시각과 윤리의식」, 『한국학보』 제 16권, 1990
- 곽경숙, 「황순원의 초기 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국제어문학회 제 48집, 257-275면
- 신희교, 「황순원의 『그늘』에 나타난 초점화 연구」, 『한국어문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2
- 문홍술, 「전통지향성과 이야기 형식」, 『태릉어문연구』, 서울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3
- 박혜경,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0
- 이상우, 「실향민의식」, 『육망의 서사에 비친 우리들의 초상Ⅱ』, 월인, 2001
- 장현숙, 「황순원의 초기작품연구—단편집 『눈』을 중심으로」, 『경원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7집, 1986
- _____. 「황순원, ‘민족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황순원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190면
- 안한상, 「해방기 소설의 구조적 특성」, 『해방기 소설의 현실인식과 구조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박은태, 「『별과 같이 살다』에 나타난 소설 구조의 역사적 의미」,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03
- 김기환, 「50년대 휴머니즘의 비평적 전개 양상」, 『건국어문학』,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소, 1997
- 김동선, 「황고집의 미학 황순원 가문」, 『정경문화』, 1984

유임하, 「설화적 세계와의 결별방식」, 『한국문학연구』 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
소, 1995

「문화혼장을 거부한 황순원」, 『문학사상』, 1996, 12.

4. 단행본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김윤식, 『한국현대소설사』, 일지사, 1976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2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유종호외,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1964
김교선, 『소설의 이해와 평가』, 형설출판사, 1975
박혜경,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소명출판, 200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이영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
이남호, 『오늘의 한국소설』, 민음사, 1989,
조연현, 강진호외음 「문예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조연현, 『한국신문학교』, 문화당, 1966
장영우, 『이태준』, 도서출판한길사, 2008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0
오현봉,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김종래, 『유목민 이야기』, 지우출판사, 2002
이효숙,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이진경, 『노마디즘 1,2』, 휴머니스트, 2002
황한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강상중, 『오리엔탈을 넘어서』 이경덕 · 임성모 역, 이산, 1997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4

Fromm, E. 『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0

Jacque attali, 『21세기 사전』 정혜원역, 중앙 M&B,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 Centering around Wandering Consciousness -

Bang, Keum D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watching that wandering consciousness is being revealed as principles form tendency of core which is immanent in work on the basis of mental world of novelist, Hwang, Soon Won and finding connection link between its historical and social actuality and novelist's literature world.

In novel by Hwang, Soon Won, wandering consciousness is starting from loss sense of novelist which is felt in history and actuality. Novelist reveals wandering consciousness in the border of value to be opposed such as what he is heading, disappeared thing, lost thing, what he wants to find, what he wants to fix, and floating thing etc. so as to fill this loss sense. This wandering consciousness is what was given to novelist fatally. Then, novelist adapts himself to actuality than revealing wandering consciousness so as to resist actuality, and he expressed wandering consciousness so as to grope for affirmative side and bring the form of irrational actuality into relief. Thus, this wandering consciousness is realized to the extent that the

realization aspect is different with time in accordance with novelist's desire.

As for wandering consciousness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wandering consciousness is formed by individual inside consciousness for finding what can substitute for loss sense in actuality, and wandering consciousness is revealed in shaking individual life which cannot be fixed in front of period situation also.

Colony intellectuals who received modernistic education by colonialists of Japanese imperialism came to have obstacle for self-denial and formation of real form nature.

Novelist gets to have wandering consciousness for finding own real form nature by realizing that the base is absent though there is native country and that he doesn't belong to any side as colony people. And, what Hwang, Soon Won chose through this wandering consciousness was not assimil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 but heading for differentiation.

In release period, work world of novelist, Hwang, Soon Won who experienced coming south comes down from local and traditional world of symbol to world of actuality in accordance with his life change. Hwang, Soon Won is being evaluated as a people coming south who did taking root in changed South society relatively easily while maintaining his own real form nature in North Korea, but it seemed that it was not so really. Since he belongs to southern society, he should assimilate with the society, but that he is distinguished in it is being revealed as wandering consciousness.

In Hwang, Soon Won, Korean war gets to have wandering consciousness to be different from experience coming south. In the novel created after he came to south, if character in work is showing that he tries to live by taking root by some means even in negative society actuality, characters to live, shaking like floating grass form main current in the life of characters

in work who are revealed after Korean war. Critical mind of characters in work in the novel of this period is not assimilation and distinction, but it is revealing wandering consciousness between assimilation and ruin, and conclusion of this doesn't appear by being symbolized as happiness.

In the novelist, Hwang, Soon Won, actuality recognition of the day is starting from the state that he already experienced loss sense. And, there is period actuality which repeated limping historically as cause which dismantled human life at the back of this original loss sense. This point is revealed in the frequency of narrative progression to chase the action of character to wander about street. Then, this shows that trouble and wandering to be unable to live peacefully anywhere in irrational actuality are revealed through the wandering of hero. In addition,

In the novel of the late period also, tiredness in irrational routine is showing as motive power of wandering. But, it is revealed that characters to wander about street who appear in novel by Hwang, Soon Won are finding the meaning for life, looking into their own inside even in irrational routine. It can be seen that they don't cope with actuality actively but they accept even negative actuality and try to find the faith or goal of life.

In the literature of Hwang, Soon Won, tradition and modern times are replaced with the aspect of historical opposition on the basis of dualistic view of the world.

And, wandering consciousness that heroes of work find the answer of their own life intensely, while aspects of human ontological opposition are dashed mutually there comes to the fore. Because moderns to experience self-disunion in the turning point of civilization are confronted by situation that they cannot help proving their own existence by entering their own subjective inside world. By examining that creation period is not Japanese

imperialism period but that colony period is included as the period background of novel, it can be seen that consciousness to head for tradition in novel by Hwang, Soon Won is one form of efforts to try to take the world of disappeared recollection and that it fulfills its function as novelistic device to try to restore old traditional world in the space of modern life.

In the literature of Hwang, Soon Won, corrupt paternity world is opposed to the world of maternity and heads for healthy paternity world.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feature of corrupt actuality has relation with paternity mainly. But, with one side of corrupt actuality, part to recognize life purely and affirmatively is detected. Then, it can be seen that this point is by the heredity of family as what takes root in the affirmative recognition for his grandfather and father and the relation sense, and it is revealed that conspicuous love for family was formed, while he failed in fix in actuality and wandered due to coming south and Korean war, and it can be seen that story of children is acting as motive power of creation of novelist.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maternity acts as very important motif. It can be seen that this maternity is the basis of literature world of Hwang, Soon Won and the novelist spirit that he seeks. In the work of Hwang, Soon Won, there is not mother, or mothers to have maternity who fail to play the role of mothers are appearing mainly.

That characters to belong to this deformed maternity world appear with the form to fail to enter healthy paternity world and wander is to emphasize affirmative maternity all the more in opposition. And, this appears by becoming the motive power of wandering consciousness that characters in work search for maternity endlessly.

Novel by Hwang, Soon Won finds power to be able to overcome nihilism

consciousness and death consciousness to come from mental and bodily weakness of male heroes from maternity.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affirmative maternity world seeks healthy life world, or the world of unconditional love and care which shields all the wounds and pain in spite of deformed maternity world to be described in many work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t is finding maternity from female.

Maternity of Hwang, Soon Won changes as female to have maternity at geographical hometown that male heroes in novel may live peacefully mentally as what passes through the course of change. In his long novel, male gesticulates to fail in fixing life by drawing conclusion that male doesn't choose all these females while he wanders in the boundary between female to have maternity and female to be able to make him take root in actuality.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male hero reveals wandering consciousness that he may not fix in any female, though he wanders so as to find affirmative maternity endlessly. This point may not be chosen, as meaning of female to have maternity like hometown means already damaged hometown to Hwang, Soon Won. And, meaning of female to be able to make him take root in actuality may not be chosen, as the life of Hwang, Soon Won in South Korea means that self-sufficient life is realized like childhood at hometown that he left.

This researcher thinks that studying the meaning of wandering consciousness to be revealed through the work world of Hwang, Soon Won has important meaning as equivalent material of historical and social world that he has lived. In the novel by Hwang, Soon Won, life for characters who cannot help wandering by leaving the site which can be referred to as own root is being revealed completely. Novelist caught the cause of wandering consciousness being revealed in his novel on the basis of life of

race, and he is making it into form as whole thing of period as well as unhappiness of individual dimension as the universal situation of the day.